

---

# 국가협력전략 2011~2015

- 베트남, 가나, 솔로몬군도 -

---

관계부처 합동



## 총 목 차

1. 베트남 협력전략 ..... 1
2. 가나 협력전략 ..... 61
3. 솔로몬군도 협력전략 ..... 124



---

# 베트남 협력전략 2011-2015

## Viet Nam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



## 관계부처 합동

동 전략은 베트남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하에 작성되었으며, 국내 및 베트남 현지의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 베트남 주요개황

국 명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위 치	인도차이나반도 동부에 위치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에 접경)		
수 도 (주요도시)	하노이(680만명) / 호치민(710만명), 하이퐁(183만명), 다낭(85만명)		
기 후	평균기온 24.1℃ / 북부지역(아열대성), 남부지역(열대몬순)		
종 족	베트남족 89%, 타이, 므엥, 크메르 등 54개 산악소수민족		
면 적	33만 341 km <sup>2</sup>	<b>GDP</b>	898억 달러 (2009년)
인 구	86백만 명 (2009년)	<b>1인당 GDP</b>	1,052달러 (2009년)
정치체제	사회주의 공화제	<b>통화단위</b>	동 Dong (VND)
대외정책	사회주의 친서방 노선	<b>언 어</b>	베트남어(공용어)





# 목 차

I. 베트남의 개발환경 .....	9
1. 베트남의 주요 특성 .....	10
2. 국제사회의 원조현황 .....	16
II. 베트남 국가개발전략 및 분석 .....	20
1. 베트남 국가개발전략 .....	20
2. 종합분석 .....	23
III. 한국의 對 베트남 지원현황 .....	24
1. 지원현황 및 특성 .....	24
2. 지원에 대한 평가 .....	26
IV. 한국의 對 베트남 협력전략 .....	29
1. 對 베트남 협력의 기본방향 .....	29
2. 협력분야 .....	31
3. 연수 및 기술협력 .....	46
V. 이행전략 .....	49
1. 자원배분 및 조직 .....	49
2. 연계강화를 통한 원조효과성 제고방안 .....	49
3. 개발파트너와의 협력전략 .....	50

# 목 차

VI. 성과관리 방안 .....	54
1. 모니터링 .....	54
2. 평가방안 .....	55
VII. 베트남 ODA관련 고려사항 .....	57
VIII. 전망 및 2016-2020 계획 .....	58

[참고1] 베트남 주요 사회·개발 지표

[참고2] 베트남 주요 경제지표

- ◇ 베트남 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은 2011-2015년중 대한민국 정부의 對베트남 최상위 공적개발원조 계획으로 베트남 원조의 방향과 기본 틀을 제공함
- ◇ 동 전략은 베트남의 사회경제개발전략(SEDS) 및 계획(SEDP)의 성공적인 수행에 협력·기여함으로써, 베트남의 균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과 빈곤감소에 공헌하고 양국간 우호와 교류협력을 증진하고자함
- ◇ 동 전략은 베트남의 개발전략에 대한 상호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베트남의 개발수요를 바탕으로 한국의 발전경험과 장점을 연계함으로써 원조효과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 한국은 OECD DAC 회원국으로서, 개발협력의 국제적인 규범을 베트남 협력전략에 충실히 반영함
- ◇ 동 전략을 통해, 국내적으로 다양한 원조기관간 연계와 역할분담을 강화하고, 국제적으로 타 공여국과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고 원조분절화를 극복해 나가겠음
- ◇ 동 전략은 2011-2015년 중 한국 ODA의 역할과 기여를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원조수행과 함께 베트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행정부담을 감소해 나가겠음
- ◇ 동 전략은 베트남의 대내외적 여건변화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양국간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임



# I. 베트남의 개발환경

- 1986년 개혁·개방정책 이후, 베트남은 연평균 7% 이상의 높은 성장과 급격한 빈곤률 감소 등 성공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룩해 왔음
  - \* 빈곤률 : ('93)58.0% → ('09)12.3%
- 특히, 정치·사회적 안정을 바탕으로 정치 및 공공행정 분야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WTO가입, 수출진흥 및 외국인 투자 유치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경제체제로 빠르게 편입
- 이에 따라 HIV/AIDS(MDG 6)와 지속가능한 환경확보(MDG 7)를 제외한 대부분의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이미 달성하거나 달성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베트남은 **2015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2,100달러, 2020년까지 3,200달러를 달성하고, 현대화된 산업국가로의 도약을 추진**
- 그러나 그동안의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지역적 불균형, 인프라 부족, 환경오염 및 제도적 역량미흡 등 새로운 제약요인이 제기
  - 최근 베트남의 인플레이션 심화, 환율불안, 경상수지 적자확대 및 국영기업의 채무불이행 등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음
  - 이와 함께, 경제발전에 따라 일부 공여국 및 개발은행이 원조를 줄이려는 움직임도 향후 베트남 발전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
- 따라서 對베트남 국가협력전략은 대내외적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에 중점을 두어야 함
  - 이를 위해, 베트남의 개발전략을 바탕으로 우리의 강점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대내외의 다양한 원조기관과의 협력과 역할분담을 통해 원조효과성을 제고해 나갈필요

## 1. 경제현황 및 전망

- 저임금의 우수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수출진흥정책으로 '07년까지 연평균 7.5% 이상의 고도경제성장을 지속하였으나, '08년 세계경제 위기로 경제성장률이 다소 둔화

\* 실질GDP 성장률(%) : ('07)8.5 → ('08)6.3 → ('09)5.3 → ('10)6.8

-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인근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경기회복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물가상승, 경상수지 적자, 환율불안 등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어, 국가신용등급이 하락

\* 무디스(Ba3 → B1, '10.12), 피치(BB- → B+, '10.7)

- 기업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및 기술인력 양성 등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베트남의 새로운 개발목표 및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

\* World Bank "Ease of Doing Business Ranking" : ('07)104위 → ('11)78위

- 국영기업의 경영개선과 금융개혁의 지연, 저기술-저부가가치 중심의 산업구조 및 서비스업의 미발달 등이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장애

- 여러 가지 제약요인과 최근의 거시경제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베트남의 성장잠재력은 높은 것으로 평가

- IMF는 2011년 6.3%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09-'10년간 감소했던 외국인직접투자(FDI)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향후 베트남이 '저비용-저임금-저부가가치' 제조업 중심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개혁을 통한 시장경제 체제로의 신속한 전환이 필요

## 2. 빈곤감소 현황 및 전망

- 베트남의 빈곤률은 '04년 19.5%에서 '09년 12.3%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15년까지 2~3%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특히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09년 베트남의 1인당 GNI가 1,010달러를 기록하여 중저소득국(LMIC)에 진입
- 그러나 도농간·성별·지역별 불균형 및 계층간 소득격차 확대와 도시빈곤 등의 새로운 형태의 빈곤문제가 대두
  - \* 빈곤률('08년) : 도시(3.3%), 농촌(18.7%)
  - \* 소수민족 빈곤률은 전체 빈곤률보다 약 2.5배 더 높은 것으로 추정
- 특히 여성·소수민족의 임금 및 소득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이며, 자연 재해 및 환경오염에 대한 취약성도 빈곤탈출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
- 2~3%의 빈곤률 목표('11~'15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취약지역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

## 3. 인적자원 개발

- 성인의 문자해독률이 90.3%('03년)로 상승하는 등 '15년까지 보편적 초등교육에 대한 MDGs 목표를 달성할 전망
  - UNDP의 인간개발지수(HDI)도 0.572('10)로 매년 점진적으로 개선
- 그러나 고용시장의 경우 교육의 질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 낮아 노동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못하고 있음
  - 직업훈련의 경우, 교육 프로그램 및 양질의 교사가 부족하여 기술인력양성의 질 제고 필요
- 현대화된 산업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시설의 확충과 특히 고속런 인력양성을 위한 장기 교육프로그램 확대가 시급

#### 4. 보건·의료

- 베트남 정부의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주요 공여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주요 보건지표가 크게 개선
  - AIDS 통제를 제외한, 평균수명(73세), 5세미만 아동 영양결핍(18%), 영유아사망율(1세미만 15%, 5세미만 24%) 등 보건·의료분야의 **MDGs** 목표를 모두 달성
    - \* HIV/AIDS 감염자 MDG 목표 : '10년까지 전체인구의 0.28%로 감소
    - \* 십만명당 HIV/AIDS 감염자(명) : ('05)15.5 → ('06)14.8 → ('07)27 → ('08)23.5
  - 이와 함께, 건강검진·진단 관련 법령도입 등 제도개선과 마을 단위까지의 보건인프라 확충에서도 큰 진전
- 그러나 의료서비스의 지역별·계층별 격차가 심화되고, 신홍 전염병 및 비전염성 질환이 급증하는 등 새로운 의료문제가 대두
  - 특히, 북부산간·중부고원 등 낙후지역과 소수민족·빈곤계층을 위한 보건인프라 및 의료인력이 부족
    - \* 의료인력 도시 집중도('08) : 의사(60%), 약사(84%), 간호사(57%)
  - 조류독감(H5N1) 및 신종플루(H1N1) 등 신홍 전염병에 대한 대비가 취약하고, 급속한 도시화로 인하여 비전염성 질환(심장병, 암, 정신병, 교통사고 등)이 크게 증가
    - \* 비전염성질환 비율 : ('76) 42.65% → ('08) 63.14%
- 지역·계층간 균형있는 의료서비스 지원확대, 신종전염병 및 HIV/AIDS의 효과적인 통제를 위한 법·제도 구축, 의료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 5. 법적·제도적 역량강화

- 베트남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각종 법·제도 및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향후 경제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는 상황
  - 다만, 'one-stop-shop'\*을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와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 등이 일정부분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
    - \* 베트남이 도입중인 행정서비스 통합처리 시스템
- 2006년 반부패법 도입 등 부패척결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음
  - '09년 국제투명성기구의 평가에 따르면, 베트남의 부패정도가 평가대상 180개국 중 120위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심각한 수준
- 베트남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기반 구축, 행정 기관의 역량제고 및 효율화, 반부패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6. 지속가능한 환경

- 깨끗한 식수공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었으나 지속가능한 환경확보라는 MDGs 달성은 불확실한 상황
  - 특히,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폐기물 증가와 기후변화 등으로 환경의 질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으나 환경을 위한 인프라가 미비
- 이와 함께 베트남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해 베트남 인구의 23%가 거주하는 해안지역과 메콩 델타 지역이 해수면 상승, 홍수 및 삼각주 침수 등의 피해에 취약

-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1980년 14백만 톤에서 2010년 103백만 톤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
- 특히, 에너지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비하여 에너지 효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인 점도 문제
  - \* '10년 Energy Intensity(IEA, toe/000 \$) : 1.06(베트남), 0.3(세계), 0.58(아시아)
- 2008년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청정수 공급, 폐기물처리 개선, 신재생에너지 도입확대 등 경제와 환경을 보다 균형있게 고려하는 개발전략 추진이 필요

## 7. 양성평등

- '06년 양성평등법 도입, '07년 가정폭력방지법 도입 등 베트남은 타 개도국들에 비해 양성평등 실현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
  - \* OECD Social Institution and Gender Index('09년): 비 OECD 102개국 중 31위
  - \* 성불평등지수(GEM): 0.561('07년, 52위/93개국)
- 국회내 여성의 지위는 세계 31위로 8개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여성의 **83%**가 경제활동에 참여
- 그러나 기존 전통사회와 새로운 시대적 요구 사이에서 여성인권의 사각지대와 비공식적인 부분에서 차별이 존재
  - 여성 대부분이 저임금 분야에 고용되어 있는 등 취업과 임금에서 차별받고 있으며 여성의 재산권도 취약(토지의 1/3만이 여성소유로 등재)
- 양성평등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관련 법률(양성평등법, 가정폭력방지법)의 실효적 이행 및 정부의 지속적인 개혁의지가 요구됨
  - 특히, 소수 민족과 산악지역 여성의 건강, 교육, 농업 서비스의 접근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수립할 필요

**< 베트남 새천년 개발목표(MDGs) 달성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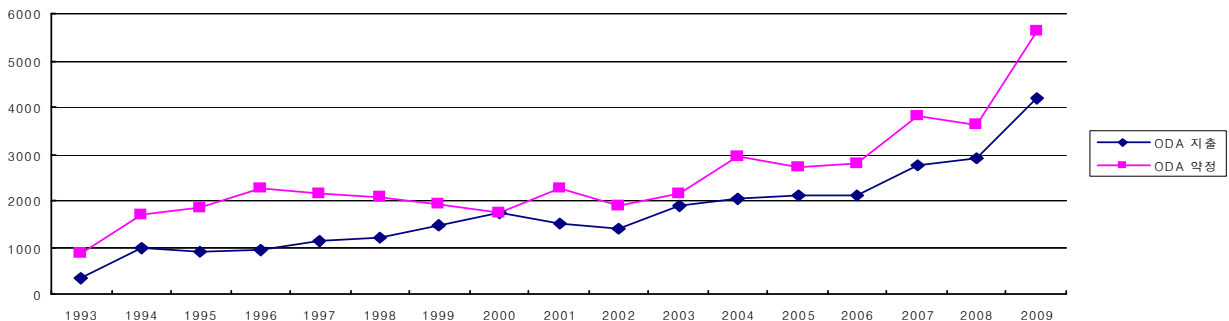
목표 1	절대빈곤 및 기아문제 퇴치	진행상황	상태
세부목표 1	1990-2015년간 하루 소득 1달러 미만 인구비율 반감	1993-2006년간 빈곤 2/3 이상 감소	이미 달성
세부목표 2	1990-2015년간 기아인구 비율 반감	1993-2006년간 비율 2/3 이상 감소	이미 달성
목표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진행상황	상태
세부목표 3	2015까지 남녀 어린이들이 동등하게 초등교육 전 과정 이수	초등교육 이수율 (남아 100%, 여아 98%)	달성 가능
목표 3	양성평등 실현	진행상황	상태
세부목표 4	2015까지 초중등교육 남녀 격차 없앰	모든 교육수준에서 양성평등 (소수민족 제외)	이미 달성
목표 4	아동 사망률 감소	진행상황	상태
세부목표 5	1990-2015년간 아동 사망률 2/3 감소	1990-2005년간 65%감소	달성 가능
목표 5	모성 보건 증진	진행상황	상태
세부목표 6	1990-2015년간 산모 사망률 3/4 감소	1990년 100,000명당 250명, 2007년 85명으로 2/3 감소	달성 가능
목표 6	HIV/AIDS, 말라리아 및 각종 질병 퇴치	진행상황	상태
세부목표 7	2015까지 HIV/AIDS 확산 저지 및 반전	감염률 2001년 0.34에서 2005년 0.44로 증가	달성 불확실
세부목표 8	2015까지 말라리아 및 기타 주요 질병 발생 저지 및 반전	말라리아 현저히 감소 (2007년 사망 35명)	이미 달성
목표 7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진행상황	상태
세부목표 9	지속가능성 수용, 환경자원 손실을 반전	삼림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층부 폐쇄림 및 종다양성 손실	달성 불확실
세부목표 10	2015까지 식수 및 위생시설 접근성이 없는 인구비율 반감	식수면에서는 빠른 발전, 위생시설은 그렇지 못함	달성 불확실
목표 8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진행상황	상태
	N/A	WTO가입(2008), ASEAN과 협력강화 등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중	N/A

\*출처: Vietnam and the MDGs (UNDP Vietnam 2010), GSO, World Bank

## 1. 베트남의 수원 현황

- 베트남은 높은 잠재력, 가시적인 원조성과 및 상대적으로 우수한 수원체계 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원조를 받는 국가중 하나
- 2000년대 초반부터 원조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중저소득국 진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추세

&lt; 베트남의 ODA 수원 추이(백만달러) &gt;



\*출처 : 베트남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 최대 수원국임에도 ODA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 수준에 불과해 원조의존도는 낮은 수준
- 정부예산에서 ODA가 차지하는 비중도 15% 내외의 안정적 수준을 유지
- 베트남의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08년 경제위기 이후 프로그램 차관 및 예산지원이 확대
- \* '09년 베트남 ODA 총 집행액(41.1억달러) 중 예산지원이 44.8%(18.4억달러)
-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을 차입함에 따라 국제개발은행을 중심으로 한 유상원조가 총 원조의 60%를 차지

- 베트남의 성장잠재력과 원조성과에 대한 기대로 많은 국가들이 고정적인 공여국으로 활동하고 있어 양자간 원조비율이 66%를 차지

유상 : 무상 60 : 40	양자 : 다자 66 : 34
--------------------	--------------------

□ 분야별로는 경제·사회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

< 베트남 분야별 ODA 지원: 1993~2009 >

(백만달러)

경제 인프라 (도로, 에너지 등)	사회 인프라 (보건·의료 등)	생산 분야 (농·임·어업 등)	프로그램·예산	기타	합계
10,218	9,072	2,359	2,299	2,442	26,390

\*출처: 베트남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 지역별로는 수도인 하노이가 위치한 홍강델타 지역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고, 중부고원 및 북부산악 지역에 대한 지원은 다소 부족

< 베트남 지역별 ODA 자원배분: 2006년-2010년 >

	지역	ODA 예산 (백만달러)			인구	1인당 ODA (달러)
		총 ODA	차관	증여		
1	북부산악지역	409.33	342.85	66.48	11,092.70	36.90
2	홍강델타지역	3,989.47	3,925.36	64.11	19,487.33	204.72
3	중북부 및 해안지역	1,566.05	1,464.68	101.37	19,658.30	79.66
4	중부고원지역	74.66	34.70	39.96	4,931.07	15.14
5	동남지역	894.39	865.44	28.95	12,460.57	71.78
6	메콩델타지역	907.16	813.25	93.91	17,543.13	51.71
7	복수 지역간	8,822.35	8,143.50	678.85		
	TOTAL	16,663.41	15,989.78	1,073.63	85,173.10	

\*출처: 베트남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 국가별로는 일본, 프랑스, 한국 등이 주요 공여국으로 활동

○ 기관별로는 **6 Banks Group**(WB, ADB, JICA, KfW, AFD, Korea Exim bank)이 총 수원액의 약 **80%**를 차지하는 등 원조활동을 주도

< 공여국별 2009년 대베트남 ODA 원조 약정액 >

양자(백만달러)		다자(백만달러)	
일본	2,287.8	세계은행	1,444.3
한국	307.2	AsDF	544.7
프랑스	270.7	EU Institutions	19.3
호주	144.2		
미국	104.3		
영국	100.6		
합계	3,214.8	합계	2,008.3

\*출처: OECD 통계

## 2. 주요 공여국의 활동 및 협력 현황

- 베트남은 기획투자부(MPI) 주도로 다양한 원조협약체와의 협력을 통해 원조조화에 노력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평가되고 있음
  - 파리선언을 자국 상황에 맞게 현지화한 하노이 선언(Hanoi Core Statement, 2005년)을 마련
  - MPI가 주도하는 원조효과성포럼(Aid Effectiveness Forum)을 중심으로, 6 banks Group, Like Minded Donor Group, 기타 섹터별 그룹 등을 통해 분야별 협력을 추진
- 베트남의 최대 유상원조 공여그룹인 **6 Bank Group**이 경제·사회 인프라 중점 지원
  - 여타 공여국 및 원조기관은 사회서비스 및 제도와 정책적 역량 강화에 원조를 집중

분야	주요 지원내용	공여국 및 공여기관
경제 및 행정개혁	행정개혁 및 수행능력 강화 경제개혁-시장경제이행 지원 민간기업 촉진	한국, 일본, 스웨덴,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WB, ADB, UNDP
빈곤	소외계층 지원사업 농촌서비스 및 인프라 지원 기아 및 농촌빈곤 축소	스웨덴, 캐나다, 호주, WB, NGO
보건	병원설립 및 의약품 지원 의사 및 간호사 파견 식수 및 위생, 전염병 예방 기초보건, 인구-가족계획	독일, 일본, 프랑스, 한국, 호주, WB, NGO
교육 및 인적자원	초등학교 건립, 직업훈련, 언어·문화개발, 과학기술, 능력개발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WB, ADB, NGO, 한국
사회	전쟁후유증 극복 민주주의-인권신장	스웨덴, NGO, 미국.
교통	철도, 고속도로, 항구	일본, 독일, ADB, WB, 한국
에너지	에너지사업	일본, 스웨덴, WB
도시	도시개발	세계은행
농업	농업 인프라 개선, 상수원, 농업, 수산업, 농촌발전	일본, 한국, 호주, 덴마크, WB, NGO
환경	환경 친화적 지속가능개발 환경보호	스웨덴, 프랑스, 일본, NGO

### 3. 향후 ODA 전망

- 현재까지 대다수 공여국의 對 베트남 원조규모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 유지
  - 특히 금융위기와 베트남의 중저소득국(LMIC) 진입에도 불구하고 '10년 對베트남 ODA 원조 약정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80.6억달러**를 기록
    - \* 2009년도 59.1억달러 대비 36.4% 증가
- 베트남이 중소득국가로 진입함에 따라 유럽의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ODA 지원을 줄여 나갈 계획**
  - \* 영국과 덴마크는 '15년까지 점진적으로 베트남 사무소 철수 및 원조출구전략 (phase out strategy)을 시행할 계획
- 또한 소득증가에 따라 World Bank, ADB 등의 지원 중 양허성이 높은 차관(highly concessional loans)의 비중이 점차 감소할 전망
- 이에 따라 안정적인 개발재원 확보가 향후 베트남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주요 관건으로 작용할 가능성
  - 특히 베트남 경제발전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인프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대규모 개발재원 확보가 필요
    - \* World Economic Forum의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0-2011에 따르면 베트남의 인프라 경쟁력 순위는 139개국 중 83위에 불과
- 따라서 World Bank 및 ADB 등의 지원중 양허성이 낮은 자금\*의 비중을 점차 확대하고, 상업성 차관·민자사업 등을 활용할 필요
  - \* WB IBRD 자금, ADB Ordinary Capital Resources, 일본 Other Official Flows, AFD Guaranteed Loans 3, 독일의 개발차관 등이 양허성이 낮은 편
- 또한 공여국간 협조와 사업간 우선순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원조자금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

## II. 베트남 국가개발전략 및 분석

### 1 베트남 국가개발전략

#### 1. 2011-2020 사회경제개발전략(SEDS 2011-2020)

##### < 기본목표 >

정치·사회적 안정, 물질·정신적으로 개선된 생활수준, 독립과 통합의 유지, 국제적 지위향상 및 더 높은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 **현대화된 산업국가**로 진입

- 베트남은 2020년까지 **1인당 GDP 3,200달러** 달성과 **현대화된 산업국가**로의 도약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10개년(2011-2020) 사회경제개발전략(SEDS)**을 수립 중('11년 하반기 완료예정)
- 현대화된 산업국가 진입을 위해, 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  
② **고급인력 육성** ③ **인프라 확충**이라는 3대 정책목표를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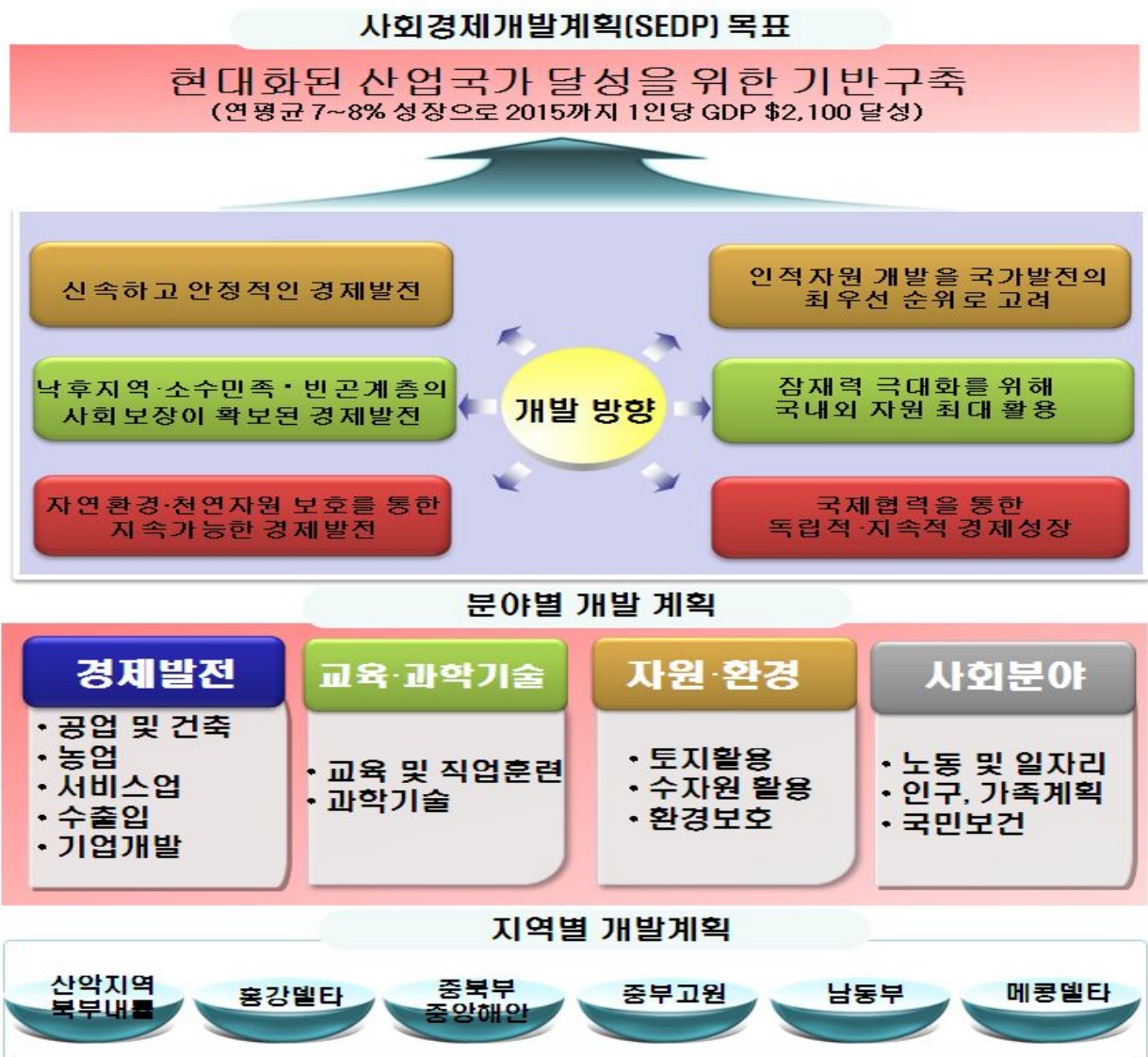


2. 2011-2015 사회경제개발계획(SEDP 2011-2015) : 현재 수립중으로 '11년 하반기 완료

**< 기본목표 >**

지속가능한 빠른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해소, 국민의 정신적·물질적 삶의 질 향상을 통해 현대화된 산업국가 달성을 위한 기반구축

- 베트남은 2011-2020 사회경제개발전략(SEDS)의 하부계획으로 2011-2015 사회경제개발계획(SEDP)을 수립 중
- 2015년까지 연평균 7-8% 성장을 통해, 1인당 GDP 2,100달러 달성 추진



\* 10개년 계획(SEDS)은 두 차례의 5개년 계획(SEDP)으로 추진

- ① 경제분야 ② 교육·직업훈련 및 과학기술 ③ 자원·환경분야 ④ 사회분야를  
4대 중점분야로 선정하고, 분야별로 주요 성과지표 및 목표를 설정

< SEDP(2011-2015) 부문별 주요 성과지표 달성목표 >

구분	항 목	'06-'10 목표	'06-'10 성과	'11-'15 목표
경제 지표	① GDP 성장률(%)	7.5-8.0	6.9	7-8%
	② 1인당 GDP(USD)	1,100 ('10)	1,220	2,100
	③ 산업구조비율(GDP내,%)			
	- 농림수산분야	15-16	19.9	18-19
	- 제조·건설분야	43-44	40.3	40-41
	- 서비스 분야	40-41	39.8	40-41
	④ 연간 수출 증가율(%)	16	13.8	12
사회 개발 지표	⑤ 고용 창출(백만명)	8.0	8.1	8.0
	⑥ 숙련 인력 비율(%)	40	40	55
	⑦ 빈곤가구(%)	10-11 ('10)	10	연간 2% 감소
	⑧ 인구증가율(%)	1.14	1.14	1% 이하
환경 지표	⑨ 청정수 공급율(%)	75(농촌)-95(도시)	83(농촌)-85(도시)	96(농촌)-98(도시)
	⑩ 산림녹화율(%)	42-43	40	42.5

- 이와 함께, 균형있고 유기적인 국토 종합개발을 위해, 6개 지역별로  
개발전략을 제시

- 산악지역·북부내륙 : 하노이 연결고속도로, 공항·철도·항구건설, 생태관광, 수력발전, 광물 가공, 농산물 가공, 공공보건서비스 등
- 홍강 델타 : 핵심 인프라(고속도로, 항구·공항, 전기·상수도 공급) 확충, 전자·전산·기계·제약·식품, 농산물 가공, 고부가 서비스(금융, 보험, 통신) 등
- 중북부·중앙해안 : 선박운송·관광, 철강, 기계제조, 양식·특용작물, 산악·해안지역 빈곤감소, 기후변화 적응능력 강화 등
- 중부고원(Tay Nguyen) : 특용작물(커피, 고무, 후추, 차)재배, 수력발전, 목재가공, 생태관광, 교통인프라개발, 정치사회 안정 및 신속한 빈곤감소 등
- 남동부 : 전자·전산·기계제조·정유·석유화학·제약, 특용작물·과일, 도로·공항·항구, 물공급·폐기물 처리, 금융·관광·교육훈련 등
- 메콩 델타 :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쌀, 양식, 가공), 고속·해안·항구 연결도로건설, 경제구역 중심 개발, 산업수요에 적합한 훈련강화, 기후변화 대비 관개시스템·주거건설 등

- 베트남 경제가 현대적인 산업국가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 동력의 유지와 함께 성장의 질을 제고하고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제약요인을 관리·극복해 나가야 함
  - 특히 베트남이 중소득국으로 진입함에 따라 성장의 속도저하 및 소득·사회계층의 양극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
- 이러한 측면에서 베트남의 사회경제발전전략은 다양한 위험요인을 관리하면서 성장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적절히 고려한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사회·경제·행정분야의 개혁, 과학기술발전 및 고급 기술 인력 양성 없이는 지속적인 발전이 어렵다는 점을 잘 인식
  - 또한 과거 5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발생한 도시집중화, 환경오염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적절히 포함
- 그러나 정부가 계획중인 행정시스템 개혁 및 부패척결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실천이 요구
  - 또한, 사회경제개발전략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합리적인 우선순위 결정 및 지속적인 개발재원 확보가 필요
  - 이와 함께 대외채무,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관리와 이를 위한 역량강화도 시급

### Ⅲ. 한국의 對 베트남 지원현황

#### 1 지원현황 및 특성

##### 1. 지원현황

□ (총괄) 지난 5년('05~'09)간 베트남에 대해 **23개 부처**(기관)에서, **총 890백만달러**를 지원(연평균 약 178백만달러 수준)

\* '09년 기준 한국이 지원하는 국가중 베트남은 유상 1위, 무상 2위, 유·무상 통합 1위의 수원국임

○ 이중 유상은 804백만달러(승인기준), 무상은 86백만달러(집행기준)

□ (지원규모) 對 베트남 ODA는 '05년 32백만달러에서 '09년 309백만달러로 약 **9.7배** 규모로 급격히 증가

○ 유상은 약 **14.5배** 증가(19.5백만달러 → 287백만달러)하였고, 무상은 약 **1.8배** 증가(12.3백만달러 → 22.4백만달러)

< 한국의 對 베트남 지원추이 >

	2005	2006	2007	2008	2009	계(백만달러)
유상 승인액	19.5	26.0	243.4	227.6	287	803.5
무상 집행액	12.3	11.9	26.4	13.1	22.4	86.1
계	31.8	37.9	269.8	240.7	309.4	889.6

\* 출처 : EDCF, KOICA 통계

□ (사업형태) '05-'09년간 EDCF와 KOICA가 총49건의 사업을 추진

단위 백만달러/건·명	프로젝트	초청연수	봉사단	개발조사	NGO	기타
유상	803.5(26건)	-	-	-	-	-
무상(KOICA)	32 (23건)	5.8(877명)	12.8(634명)	4.1(6건)	1.5(27건)	1.0(26건)

\* 무상은 KOICA 사업만 포함

- (분야별) '05~'09 중 교통인프라(도로) 분야에 대한 지원이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보건·물/위생·교육·IT 분야 등에 지원

< 2005-2009년도 대베트남 EDCF/KOICA 분야별 지원현황 >

	교통	교육	물/위생	보건	환경	거버넌스	IT	기타	합계
금액(백만달러)	495.2	53.4	116.2	120.5	23.9	3.9	37.3	8.0	858.4
비율(%)	57.7	6.3	13.5	14.0	2.8	0.4	4.4	0.9	100.0

\* 출처 : EDCF, KOICA 통계

- (지역별) 수도인 하노이가 위치한 홍강델타 지역(39%) 및 메콩델타 지역(30%)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으며, 중부고원에 대한 지원은 미미

< 2006년 이후 한국의 대 베트남 지원사업 및 지원예정사업 지역별 예산배분 >  
(단위: 백만달러)

지역	교통		직업훈련		물/위생		보건의료		환경		거버넌스		기타		총액 (%)
	차관	증여	차관	증여	차관	증여	차관	증여	차관	증여	차관	증여	차관	증여	
북부지역	70		6	10	45.7		55								<b>186.7(12)</b>
홍강델타 지역	300		50		14.3		47		112	1.5	60	9.84	25	3.7	<b>623.34(39)</b>
중북부 해안지역		1.2	6	7					11				43	7.7	<b>75.9(5)</b>
중부고원 지역			3				3							4.6	<b>10.6(1)</b>
중남부 해안지역				15.3			31	35					10	3.5	<b>94.8(6)</b>
남부지역		0.9			26		4		78				10		<b>118.9(7)</b>
메콩델타 지역	433				30	2.4	19								<b>484.4(30)</b>
<b>TOTAL</b>	<b>803</b>	<b>2.1</b>	<b>65</b>	<b>32.3</b>	<b>116</b>	<b>2.4</b>	<b>159</b>	<b>35</b>	<b>201</b>	<b>1.5</b>	<b>60</b>	<b>9.84</b>	<b>88</b>	<b>19.5</b>	<b>1,594.64 (100)</b>

\* 출처 : EDCF, KOICA 2006년 이후 승인사업 및 롤링플랜상 후보사업(연구, 연수 및 전문가 파견 소액 제외)

## ① 지원전략에 대한 평가

- (작성체계)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지원전략 없이 유·무상 기관이 각각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및 기관의 참여도 저조
- (내용) 유·무상 지원전략이 외형적으로는 베트남 개발계획과 일치하고 국제기준과 부합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
  - 유·무상 공동 정책협의를 실시하고, 정부간협정(Framework Arrangement) 체결을 통해 다년간 후보사업 리스트를 공유
  - 다만, 계획의 구체성과 실질적인 ODA 지침기능이 미흡하고,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통합적인 모니터링과 평가체계가 미비

## ②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 (효과성) 국가개발전략 우선순위에 따라 성장기반 확충과 빈곤감소에 기여하는 등 개별사업 측면에서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 다만, 원조기관간 협력이 부족하고, 프로젝트 위주의 지원으로 사업간 연계나 프로그램화된 지원이 미흡
- (지속가능성) 사업종료 이후에 후속지원을 하고 있으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이 미비

## ③ 현지 지원체계에 대한 평가

- (현지인력) 원조규모 및 봉사단 관리 등을 고려할 때 인력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사업발굴이 어려운 상황(KOICA 3명, EDCF 2명)
- (원조조화) 6 Bank Group등을 통해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현지전문가 채용, 분야별 상주전문가 파견 등을 통한 개선이 필요
  - \* '09년 개발사업 운용성과 공동보고서 작성 참여 및 중장기 공동과제(JAP: Joint Action Plan) 초안 도출

#### ④ 성공사례 및 교훈

- 직훈원 건립, 상수도 사업, 제도개선 및 역량강화 등 우리 강점분야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였고, 이를 모델로 2차 사업을 실시하여 성공사례를 확산
- 타 공여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한 사업추진\*과 베트남 정부의 긴급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
  - \* 일본과 독일은 차관승인에서 지출까지 평균 7년 이상이 걸리나, EDCF는 평균 4년 11개월 소요
- 새마을운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베트남 정부의 농촌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제고와 사업확대의 계기를 마련
- 베트남내 취약지역이면서 국제사회의 지원이 적은 중부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임으로써 취약지역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성공사업 사례

- ① **티엔탄 상수도 사업('00-/26백만달러)** : 동나이성 지역의 식수공급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고, 베트남 요청으로 제2차 사업을 추진하여 MDGs 달성에 기여
- ② **농촌개발(새마을운동) 시범사업('01-02/30만달러)** : 베트남 북부 6개 마을과 중북부 팜찌성에 새마을운동 경험 전수, 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 정부가 전국적으로 650여개 마을에서 농촌개발 사업 확대·추진
- ③ **산업오염방지기술지원사업('03-05/60만달러)** : 베트남의 인구증가와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폐수처리 및 수질분석 관련 장비지원과 기술협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베트남 MPI로부터 우수사업으로 평가받아 2차사업('07-'08/90만달러)로 이어졌으며, 현재 3차사업 지원 요청 접수하여 검토 중
- ④ **백신공장 건립사업('03-06/28백만달러)** : 베트남의 전염병 방지 및 국민보건 증진의 기반을 마련하였고(콜레라, 장티프스, 소아마비 등 5개 전염병 백신의 전량 국내생산 가능), 백신개발 기술이전까지 이루어졌다는 데 큰 의의

## <우리나라의 對 베트남 ODA SWOT분석>

<b>Strength</b>	<b>Weaknes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에서 유일하게 최빈국에서 선진 공여국으로 단기간에 발전한 경험 보유</li> <li>□ 비교적 근래에 개도국으로서 발전 경험을 가지고 있어 진정성 있는 접근 가능</li> <li>□ 2010년 말 기준 일본에 이어 對 베트남 제2의 양자 공여국으로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지원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짧은 원조역사에 따라 원조활동이 국제적인 기준에 미흡</li> <li>□ 베트남 연구 및 한국적 개발경험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부족</li> <li>□ 개발컨설턴트 등 전문가 그룹 부족</li> <li>□ 현지전문가 및 관리 인력의 부족</li> <li>□ 전문화, 세분화 되어있는 파트너십 그룹에 참여부진으로 정보부족</li> <li>□ 개별사업 중심의 지원으로 베트남 정부 주도 개발프로그램에 일치하는 프로그램형 원조경험 부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 증가와 협력기회 확대</li> <li>□ 우리의 개발경험과 잠재력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높은 관심</li> <li>□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와 베트남 정부의 ODA 수원전략과의 유사성</li> <li>□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으로 보다 많은 개발협력수요 예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 경제발전에 따른 국제사회의 지원 축소</li> <li>□ 주요국가의 자국이익을 위한 ODA 활용 경향</li> <li>□ 다양한 개발주체 등장에 따른 원조 분절화 심화</li> </ul>
<b>Opportunity</b>	<b>Threat</b>



# IV. 한국의 對 베트남 협력전략

## 1 對 베트남 협력의 기본방향

베트남 사회경제개발전략 2011-2015

현대화된 산업국가 달성을 위한 기반구축

연평균 7~8% 성장으로 1인당 GDP \$2,100 달성

### 對 베트남 CPS 전략목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유·무상 원조수행을 통해  
동반성장 및 개발전략 수행에 협력



- 베트남의 균형적·지속적 발전과 빈곤감소에 공헌
- 양국간 우호협력·동반성장 증진

### 중점분야

#### 지속가능성장

- 환경 및 녹색성장

#### 인적자원개발

- 기술·직업 훈련

#### 경제인프라

- 도로 등 교통인프라

베트남의 개발전략

한국의 개발경험 및 강점

###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실천계획

#### 사업 효과성

- 예측가능성
- 선택과 집중
- 사업간 연계

#### 지속 가능성

- 사후관리 강화
- 성과평가 강화
- 모니터링 강화

#### 원조조화

- 원조일치
- 프로그램원조

### CPS 의 기반

MDGs, 파리선언, DAC 권고사항, ODA 선진화방안

- **(목표)** 베트남 사회경제개발전략의 성공적인 수행에 협력·기여함으로써, 베트남의 발전과 빈곤감소에 공헌하고 양국간 우호와 교류협력을 증진
  - 최우선 협력대상국으로서 베트남이 중소득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에 중점
  
- **(중점분야)** 베트남의 개발수요, 우리의 강점 및 원조분업 등을 고려하여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총 지원금액의 70%를 집중
  - 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 마련 ⇒ 환경 및 녹색성장
  - ② 성장의 질적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 ⇒ 기술·직업훈련
  - ③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인프라 확충 ⇒ 도로 등 교통인프라
  
- **(실행전략)** 對 베트남 지원의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업효율성 (efficienc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원조조화(harmonization)의 3대 가치를 추구
  - 사업효율성 : 원조사업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 지속가능성 :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강화하고 베트남의 자립운영 능력을 육성
  - 원조조화 : 현장의 역할을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베트남 및 공여국·공여기관과의 협력과 원조분업을 확대
  
- **(전략의 기반)** 원조사업의 전 과정에서 MDGs, 파리선언 등 원조 규범, DAC 권고사항 및 ODA 선진화방안을 준수
  - 비구속화 비율, 프로그램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

## 1 중점분야 프로그램

## 1.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 마련 ⇒ 환경 및 녹색성장

## ① 검토배경

- (베트남의 개발수요) **SEDP 2011-2015**는 환경을 경제·사회분야와 함께 3대 개발 분야 중 하나로 선정하고, '자원의 효과적 이용, 환경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을 9대 개발과제로 추진(잠정)
  - 베트남은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과 함께, 해수면 상승, 홍수, 태풍 등 기후변화에도 취약하여 **MDGs** 달성이 불확실
  - 농촌지역 정화조 설치는 6~20%에 불과하고, 주요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하수처리 시설로 구식 정화조를 이용하는 등 폐수 및 고체폐기물 처리를 위한 **환경 인프라가 부족**
  - 전체 인구의 47%와 600여개 도시 중 150개 도시에만 상수도가 공급되고, 도·농(78%/44%)간 상수도 보급률에 큰 격차가 존재
  -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980년 14백만톤에서 2010년 103백만톤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에너지 효율이 매우 낮은 상황
- (한국의 강점)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와 상하수도 확충 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과 기술력 보유
  - 또한, 우리 정부는 '동아시아 기후변화 파트너십' 등 기후변화 사업을 정책 최우선순위로 선정하고 동 분야 예산을 증대할 계획
  - \* '11년 녹색성장산업에 대한 EDCF 지원규모를 승인 총액의 20% 수준으로 확대하고, '15년까지 30% 수준으로 제고

## ② 목표 및 한국의 기여

환경보호와 녹색성장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성장의 질을 높여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구축

- (베트남 개발목표) 2015년까지 폐기물처리 시스템, 상하수도 시설 및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지속적으로 확충
  - 고체폐기물의 95%, 유해폐기물의 85%, 의료폐기물의 100%를 표준처리
  - 2015년까지 농촌의 96%, 도시의 98%에 청정수 공급
  - 2015년까지 태양광 발전 2,015MW, 소수력 발전소 250MW 증설
- 한국의 기여
  - 2015년까지 1개 이상의 고체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및 연구·역량강화
  - 2015년까지 81,000m<sup>3</sup>/1일 규모의 정수용량과 28,200m<sup>3</sup>/1일 규모의 하수처리 용량을 확충
  - 태양광 발전소 등 신재생 에너지 시설 건립지원을 검토하여 '15년 이전에 1개 사업 이상을 추진

## ③ 추진계획

### (1) 기본방향

- (분야별 프로그램 마련) 식수공급 및 위생, 폐기물관리, 기후변화 대응 등 3개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타공여 기관과 공동사업 및 지정기여(earmark) 등 추진
- (인프라 확충)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
- (역량강화) 폐기물 처리 및 상하수도, 신재생에너지, 산림, 자연재해 등 기후변화 관련 제도개선, 정책자문, 인력육성 및 운영관리 대책 마련 등
- (연계강화) 유·무상 사업의 지역별·기능별 역할 및 기 지원시설에 대한 후속지원 연계 등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

## (2) 실행계획

- **(관련기관)** 원조기관과 국내 환경·녹색성장·기후변화 관련 기관이 합동으로 상하수도, 폐기물, 기후변화 등 분야별 추진전략 마련
  - 중앙부처 :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녹색위원회
  - 시행기관 : KOICA, EDCF
  - 관련기관 : 환경산업기술원, 환경연구원, 수자원공사, GGGI,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KOTRA 등
- **(프로그램별 추진방향)** 식수공급 및 위생, 폐기물 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실시

### ① 식수공급 및 위생 프로그램

- 식수관리 정책 및 체제개선 등 역량강화를 위해 상하수도 파트너십 그룹(RWSSP: Rural Water Supply and Sanitation Partnership) 및 베트남 도시포럼(VUF: Vietnam Urban Forum)과 기술협력 실시
- 도시지역 상하수도 인프라는 차관 중심으로 추진하고, 제도개선, 역량강화 및 농촌지역 인프라확충은 예산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무상지원

### ②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

- 산업폐수처리, 산업환경보전, 유해폐기물 통합관리 등 폐기물 관리 제도구축을 위한 기술지원을 확대
- 생활 및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물 건축 지원

### ③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

- 기후변화대응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차관\*에 시범적으로 참여하고, 성과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 \* JICA·WB·AFD 등과 협조용자 형태로 지원하며, 매년초 전연도 성과를 평가하여 집행여부 결정
- 신재생 에너지원 및 기타 친환경적 시스템 건립을 지원하고, 에너지 및 기후변화 인력육성과 국내 기후변화정책 노하우 전수, 산림복구·대기오염 등을 위한 연구 등(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을 지원

## 2. 인적자원 개발 - 기술 · 직업훈련

### ① 검토배경

- **(베트남의 개발수요)** SEDP 2011-2015는 현대화된 산업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숙련된 고급 노동인력 확보를 위한 **교육 시스템 개선 및 전문인력 개발**을 중요한 축으로 규정(잠정)
  -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전문 기술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인력양성 공급시스템이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
  - 타 아세안 국가와 비교할 때도 **인력채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며**, 산업화가 가속될수록 숙련 노동력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특히, 숙련 노동력의 부족을 2·3차 산업으로의 경제구조 전환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중 하나로 평가

< 베트남 산업 구조별 취업 구조 변화 추이 >

(단위 : %)	2000	2004	2005	2006	2007	2008
농업	65.3	57.9	56.7	54.7	52.2	52.6
제조업	12.4	17.4	17.9	18.3	19.2	20.8
서비스업	22.3	24.8	25.4	27.0	28.6	26.6

- 이에 베트남은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별도의 전략을 마련하고, **기술훈련 및 산학협력** 등을 확대할 계획
- **(한국의 강점)** 산업인력 양성 등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산업화에 성공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제조업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기능인력을 양성
  - 특히, 직업훈련제도 구축, 직업훈련모델 개발, 교수법 개발, 훈련원 운영관리 및 **IT관련 직업훈련** 등에서 강점 보유

## ② 목표 및 한국의 기여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시스템 개선을 통해 현대화된 산업국가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고 고용창출과 빈곤퇴치에도 기여

### ○ 베트남의 계획

- 경제개발 수요에 맞는 주요 분야 숙련 인력 공급증대
- '15년까지 숙련된 노동력을 전체 노동력의 **55%** 수준으로 증가
- 기술학교 입학시험과 직업대학 입학시험 치르는 학생의 숫자를 각각 **16%, 18%**로 증가

### ○ 한국의 기여

- '15년까지 연간 약 **9천명** 수준의 숙련 기술인력을 교육·배출할 수 있도록 7개 이상의 직업훈련원을 건립하고 교육용 기자재 등을 공급
- 직업훈련분야 장기연수·학위과정을 수립하여 고급기술인력 양성
- 직업훈련분야 제도개선 및 교수방법 개선 등 역량강화를 추진

## ③ 추진계획

### (1) 기본방향

- (중장기 지원계획 마련) 베트남 정부와 공동으로 기지원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직업훈련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베트남 **2020** 직업훈련분야 개발전략과 연계
- (민관협력 활성화) 기능인력 양성이 취업으로 원활히 연결될 수 있도록 산학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시범사업 발굴추진
  - 베트남의 관심 산업과 직업대학(하노이 제약대학, 다낭 IT대학)과의 연계 및 업종별 지역 클러스터와 직업훈련기관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검토
    - \* 업종별 클러스터: 호치민(의류, 직물), 홍강유역(전자, 엔지니어링), 호치민 인근(물류), 중부지역(관광), 메콩 델타 지역(농산물가공) 등
- (취약계층 지원) 소수민족, 여성, 농촌지역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빈곤감소 프로그램을 연계

## (2) 실행계획

- (관련기관) 원조기관과 국내 직업훈련 기관이 합동으로 종합적인 지원방안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 등 마련
  - 중앙부처 :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 시행기관 : KOICA, EDCF
  - 관련기관 : 직업능력개발원, 산업인력공단 산하 국제 HRD 센터, 한국노동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폴리텍, 한기대, 교육연구원 등
- (사업형태별 추진 방향) 직훈센터 확충, 직훈관련 제도개선 및 정책자문, 교사 연수, 전문가파견 등 역량강화 추진
  - ① (직업훈련시설 확충) 지역 산업계의 인력수요 및 특성을 고려한 중·대형 규모의 기술대학 및 직업훈련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
    -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기술학교는 무상으로 지원하고, 대규모 대학시설 및 성공사업은 유상으로 확대 지원
  - ② (역량강화) 직업훈련의 제도적 기반구축, 직훈 프로그램의 수준제고, 사후관리지원 및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무상지원을 확대
    - 교사관련 정책(자격기준, 채용 및 고용보장 관련) 및 교육과정 개발자문, 장단기 교사연수(국제기능진흥협력센터 활용) 등을 통해 교수인력 양성을 지원
    - 베트남 유수의 대학을 대상으로 직업훈련분야 장기연수·학위과정 지원
    - 학교운영 관리, 교육과정 개발 등을 위한 전문가 파견을 확대하고, 한국의 우수한 기술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계 및 교류협력을 지원
    - 노후시설 보완 및 새로운 교육 기자재 공급 등을 통해 지원시설의 지속가능성 제고
- (원조조화) 독일·ADB 등이 주도하는 직업훈련(농촌지역) 장기전략 및 마스터플랜 수립에 기여하고, 파트너십그룹에 참여하여, 정보공유



### 3.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인프라 확충 - 도로 등 교통인프라

#### ① 검토배경

- (베트남 개발수요) SEDP 2011-2015는 현대화된 산업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9대 개발과제의 하나로 현대화된 교통인프라 구축을 규정(잠정)
  - 산업화와 교역증가에 따라 교통량이 '06-'10년간 연평균 9.7% (화물운송량 기준)의 높은 속도로 증가
  - 베트남의 도로포장률은 48%에 불과하여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
    - \* '93년 이후, 베트남 도로예산의 90%가 전체 교통망의 10% 미만을 차지하는 국도 부분에 지원되어, 산악 지방도로 여건이 열악
  - 열악한 도로여건이 수출과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고 경제전반의 비용증가와 비효율을 유발하여, 향후 베트남 경제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WB, ADB, JBIC 등 주요 공여기관도 도로확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최우선적 지원분야로 선정하여 재원을 집중
- (한국의 강점) 종합적인 국토개발계획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전국적으로 도로교통망을 확충한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
  - 특히, 최근에는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도로교통시스템 개발·도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경쟁력을 확보
  - 2005년 이후 베트남 교통분야 인프라 구축에 총 ODA 지원의 50% 이상을 집중
  - ADB와의 협조유자 등 교통분야 주요 원조기관과의 협력도 활발

## ② 목표 및 한국의 기여

교통인프라 확충 및 관련 역량강화를 통해 경제통합, 국토의 균형 발전, 무역활성화 및 환경보호 등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

### ○ 베트남의 계획

- 2020년까지 국도 4,297km, 고속도로 4,246km, 해안도로 3,127km 구축을 추진

### ○ 한국의 기여

- '15년까지 고속도로, 해안도로, 교량 등 **160km** 이상의 도로건설 및 개선을 지원
- 베트남의 도로교통 분야 제도개선 및 역량강화 추진

## ③ 추진계획

### (1) 기본방향

- 인프라 구축은 유상중심(타당성조사, 프로젝트 실시)으로, 역량강화는 무상중심(마스터 플랜, 개발조사, 기술지원, 초청연수 등)으로 추진하는 등 분업과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 제고
- 주민이주계획 수립 및 사회·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원조사업으로 인한 새로운 빈곤층 발생을 방지

### (2) 실행계획

- (관련기관) 원조기관과 국내 도로관련 기관이 합동으로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주요 사업별 우선순위 검토 등 추진
  - 중앙부처 :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 시행기관 : KOICA, EDCF
  - 관련기관 :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공사, 한국엔지니어링 협회 등

○ (사업형태별 추진방향) 도로인프라 확충 및 역량강화 중점 추진

① 도로인프라 확충

- 베트남의 개발수요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되, 수출증대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메콩델타 유역과 북부산악지역 등 낙후지역 중점지원
- 고속도로와 국도 개선사업 및 해안도로 연결사업 등을 지원하여 무역활성화 및 경제발전을 위한 운송망 형성
-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BRT**(Bus Rapid Transit) 등 현대화된 교통·안전시스템 지원

② 역량강화

- 도로건설 마스터플랜, 도로건설 기술, 운영·관리 및 관련 제도 등 베트남의 도로교통 분야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강화
- 단순 초청연수 뿐만 아니라, 베트남 관계자와 개발현안에 대한 공동연구 및 사업성 검토 등 문제해결형 연수를 강화
- 도로분야 EDCF 차관사업에 관련 국내 전문가 파견을 포함시켜 프로젝트사업과 역량강화를 연계

○ (재원확충) 기 조성된 글로벌 인프라펀드 등 국내 민간자본과 EDCF 연계사업을 추진하여 부족한 도로건설 재원을 보충

- 베트남은 그간 전기, 통신 및 가스분야를 중심으로 민자를 유치해 왔으나, 최근 수익성이 예상되는 도로사업도 민자유치를 적극 검토

○ (원조조화) 6 banks가 참여하는 교통분야 파트너십 그룹 참여를 통해 효과적인 원조분업 및 공동사업 수행을 확대

- EDCF 주재원 이외에 국내 교통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교통분야 파트너십 그룹에 지속적으로 참여

## 1. 검토배경

-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특정지역 또는 마을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패키지로 연계하는 지원방안을 마련(ODA 선진화방안)
  - 특히, 농촌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고 기초적인 인프라가 취약하여 개별·분산적 지원보다 특정지역에 종합적인 지원을 집중할 필요
- 베트남의 경우 빈곤인구의 80~90%가 농촌 및 산간지역에 집중되는 등 도·농간 소득 및 기본적인 사회서비스에 대한 격차가 심화
  - \* 농촌의 월평균 소득은 도시의 47%, 전국평균의 77%에 불과
  - 중부와 북부의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아동사망률, 아동빈곤, 깨끗한 식수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시급
- 베트남 정부도 2020년 현대화된 국가건설을 위해 '삼농(三農)문제'(농업, 농촌, 농민) 해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 농촌개발을 위한 '2011-2020 신 농촌을 위한 국가목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사회·경제인프라 등 '신 농촌'에 대한 19개 기준을 마련
  - 2015년까지 '신농촌'의 기준을 충족하는 마을을 전체 농촌마을의 20%, 2020년까지 50%까지 확대할 계획
- 한국은 '새마을운동'이라는 성공적인 농촌개발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 베트남에 이러한 경험을 공유할 경우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새마을운동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조화를 이루어 농촌의 빈곤퇴치에 기여한 한국의 독특한 성공경험
  - 베트남도 한국의 농업분야 경험 및 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여 왔으며, 특히 새마을운동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 \*Thai Nguyen 지역('01-'03년)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랑모이('06-'10) 운동 실시

## 2. 지원방안

### ① 추진전략

- **(기본방향)** 새마을 운동의 기본 정신을 공유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사업을 추진
  -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 **(통합모형 발굴)**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새마을운동의 역량을 결집하여 통합적인 새마을운동 모델을 발굴·적용
  - \* 외교부(KOICA), 행안부(새마을운동중앙회), 경상북도, 농식품부 등
- **(현지밀착형 지원)** 현지여건(농업환경, 기후, 지형 등)을 감안하여 베트남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전략을 마련(봉사단 및 전문가 파견)

### ② 실행계획

- **(성공사례 구축 및 확산)** 2011-15년중 성공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시범마을로 선정하고 역량을 집중
  - 성공사례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6년 이후 대규모로 전국적 확산을 추진·지원
- **(종합적 연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원조 프로그램을 연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
  - 정책자문 및 마스터플랜 작성, 인프라 및 기술지원, 자원봉사 및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
  -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관개수로, 저수지 등 농업인프라 구축
  -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로, 상하수도, 마을회관 등 기초생활시설 구축
  - 농촌개발 지도자 양성을 위해 초청연수 및 전문가 파견 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
- **(원조조화)** 국제지원그룹(ISG: International Support Group) 등 공여국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공동사업 수행

## 1. 제도적 역량강화

### ① 현황

- **(베트남의 개발수요)** SEDP 2011-2015는 조직구조, 행정시스템, 행정 제도의 역량부족을 주요 취약부분으로 지적하고, 행정개혁 및 제도적 역량강화를 지속성장을 위한 우선 과제로 제시(잠정)
- **(지원현황)** KSP(재정·외환·부동산 등 경제분야), KOICA의 개발경험 전수사업 (노동·인적자원 개발 등 사회분야) 등 정책자문과 전문가파견, 초청연수를 통해 공공 행정분야 정책수립에 기여

### ② 기본방향

- 2차 행정개혁(PAR: Public Administration Reform) 프로그램 중 전자정부 (공공행정 시스템) 구축, 행정서비스 개선, 국가표준화 제도 등을 집중지원
- 중점분야(교통, 직훈, 환경) 사업 수행시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자문 및 초청연수를 연계·지원

### ③ 실행 계획

- 2차 행정개혁의 전 과정(설계, 실행, 평가)에 적극 참여하고, 프로그램형 지원으로 전반적인 행정능력 향상을 달성
- 관계 기관 합동(기재부, 외교부, 행안부, 지경부, 방통위 등)으로 행정 IT 인프라 구축, 경제개발전략 수립, 법·제도 구축 및 관리자 역량강화 등 부분별로 종합적인 추진전략을 마련
- 기지원 시설의 운용관리 인력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사업의 지속성 및 효과성을 제고

## 2. 의료·보건

### ① 현황

- 의료·보건분야는 그간 종합병원 건립, 기자재 지원 등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지원
- 의료서비스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대도시 집중화, 보험혜택의 부유층 집중 등 지역·계층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심화

### ② 기본방향

- 현재 진행중인 대규모 병원건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의료인력 양성, 제도개선 등 정책자문 및 중부지역 등 국제사회의 지원이 적은 소외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충에 중점
- 베트남 보건분야 원조조화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공조지원에 중점

### ③ 실행계획

- **(인력양성)** 수준 높은 의료인력 양성 및 의료기술을 전수함으로써 의료전문성 향상 및 소외지역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 전문의료인력 보강을 위해 국내대형병원 등과 장기연수 프로그램 추진
  - 현지 전문의료인력 교육 관련 프로그램에 자금 및 기술 지원
- **(제도개선)** 보편적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을 위한 의료보험법 제정 및 식품안전과 의료서비스 수준 개선 관련 제도도입을 위한 정책자문 시행
- **(연계강화)** 우리가 지원한 의료기관에 KOICA, 복지부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인력·기술·기자재 등을 포함하는 프로그램 마련
- **(원조조화)** 베트남 보건부 및 주요 공여국이 참여하는 보건 파트너쉽 그룹에 적극 참여하여 원조분업 및 공동사업을 확대

## ① 기본방향

-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여성·IT·환경 등 범분야에 대한 지원 방식 검토 절차 수립
- KSP 등 정책자문 지원시 IT 기반 행정서비스를 접목하여 베트남의 삶의 질 개선
- 중간소득국으로서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소수민족, 산악 지역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와 보건분야 접근성 개선에 집중
-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하며 전략적환경평가(SEA) 및 환경영향평가(EIA)를 실시하여 친환경 ODA 추진

## ② 추진계획

- **(IT 기술이전)** 중점 프로그램 이행에 있어 IT에 기반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적 역량강화를 지원
  - 사업계획 수립시 부터 IT를 활용한 행정제도 효율성 향상방안을 검토
- **(방송통신 발전)** 국민의 알권리 및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 분야 역량강화와 인프라 구축을 지원
  - 방송통신 기반시설 구축 및 인터넷 통신망 구축 등 정보화 지원
- **(여성) 소수민족 여성의 건강·교육·농업 서비스 접근 향상, 고정된 성별 역할 개선을 위한 성인지적 모듈과 교재개발**
  - 특히, 농업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및 여성 농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기술전수 등 실시



## < 2011-2015 중점분야별 한국의 기여사항(안) >

분야	베트남 개발목표 (SEDS, SEDP등)	주요 프로젝트(주)	예상 기여사항
중점분야	<b>녹색성장·환경</b> 자연환경 및 천연자원 보호 강화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b>2015 Target :</b> 산림녹화율 42.5% 농촌지역 위생수 공급 96% 도시지역 청정수 공급 98% 산업지역 공업용수 처리시설 70% 도시지역 쓰레기 처리 85% 의료용 쓰레기 처리 85% 환경오염원 규제 80% 태양광 발전 2,015MW 증설 소수력 발전 250MW 증설	<기승인 진행사업> - 닌빈 고체폐기물 처리사업 - 호아칸띠미 상수도 건설사업 - 목짜우 상하수도 건설사업 등 - 한베 환경교육센터 설립 -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다목적 빗물관리사업 등 <승인 후보사업> - 폐기물 재처리기술연구역량 강화 - 산업 환경오염방지 역량강화 - 통수엔 상하수도 - 팡빈성 태양광 발전시설 -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 차관 등	<인프라> - 정수장 : 81,000m <sup>3</sup> /1일 규모 - 하수처리장 : 28,200m <sup>3</sup> /1일 - 태양광: 1,312kW 규모 발전설비 구축 - 섹터예산지원: 약 2천만달러 규모 <역량강화 등> 전문가과견 10명, 초청연수 120명, 봉사단과견 20명
	<b>기술직업훈련</b> 교육, 훈련 및 인적자원 육성 및 강화 <b>2015 Target :</b> 숙련노동비율 55% 고용창출 8백만명 도시실업을 감소 4%	<기승인 진행사업> - 5개지역 한-베 직업기술학교 건립 - 아운파 중등직업학교 개선사업 등 - 박장성, 팡치성 직업훈련원 -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 구축 등	<인프라> - 5개 직업기술학교 건립(약 9천명 규모) - 5개 직업훈련원 앞 기자재 공급 <제도개선> - 국가 기술자격 검증체제 등 <역량강화 등> 전문가 10명, 초청연수 150명, 봉사단 50명
	<b>교통(도로)</b> 현대화된 산업국가로 도약을 위한 교통인프라 현대화 구축 <b>2015 Target :</b> 연간물류 수송량 9.4% 증가 연간 승객수송량 10% 증가 <b>2020 Target :</b> 해안도로 3,127km, 고속도로 남북연결 3,262km, 남부지역 984km	<기승인 진행사업> - GMS 남부해안도로 2차 - 히노이-하이퐁 고속도로 - 빈틴교량/밤콩교량 건설 사업 등 <승인 후보사업> - 북부 산악지역 도로연결망 - 하노이-라오까이 ITS 구축사업 등	<인프라> - 도로개선 : 총 연장 160km - 교량 : 8.47km(연결도로 포함) - 차량운행비용 감소 : 평균 30% - 교통량/물동량 증가: 평균 30-40% <제도개선> - 교통법규, 안전관련 제도 및 시스템구축 <역량강화 등> 전문가과견 10명, 초청연수 50명
기타분야	<b>공공행정</b> 역량강화와 IT기술 도입 통한 공공기관 효율성 제고 <b>2015 Target :</b> 공공행정절차 간소화 및 연간 비용 10%감소 2013년까지 지역 공공행정기관 윈스톱축소 100%, 공공기관 공식문서 60% 전자화 등	<기승인 진행사업> - 경쟁 행정국 통합정보시스템 - 한국개발협력 전수사업 등 <승인 후보사업> - 전자정부 및 정부 통합 데이터센터 구축	<인프라> - 행정디지털화 60%, 서비스 만족도 65% <역량강화 등> 전문가과견 10명, 초청연수 80명, 봉사단과견 60명
	<b>의료보건</b>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개선 <b>2015 Target :</b> 교민의 80%이상 의사 보유 인구 80%가 의료보험 소지 등	<기승인 진행사업> - 엠바이성 및 중부지역 종합병원 건립사업 - 투아티엔 종합병원 외 2개 병원 개선사업 등 - 의료보험법 제정 지원사업 <승인 후보사업> - 벤째 종합병원 건립사업 등	<인프라, 역량강화 등> - 해당지역 병상 수 및 의사 수 증가 - 의료보험 수혜자 비율 증가 - 초청연수 100명

주) 승인후보 사업 및 기승인 사업 중 '11-'15년 분야별 주요 집행예정 사업

### 3

## 연수 및 기술협력

### 1

#### 초청연수

#### ① 중점지원 분야 및 추진방안

- 연간 100명 이상의 초청연수를 추진하고, 환경, 기술직업교육 및 교통 프로그램 등 중점분야와의 연계를 강화
- 다년간 연수과정(Multi-year training program) 도입, 장기 학위연수, 전공 분야 다양화 및 1인당 연수비용 증액 등을 통해 연수품질을 제고

#### ② 초청연수의 효과성 제고

- 베트남의 개발과제, 사업발굴 및 사업간 우선순위 등을 공동으로 연구하여 그 결과를 ODA 사업에 활용하는 문제해결형 연수를 도입
  - \* 우선 중점지원 분야별로 베트남 공무원 및 관계자를 초청하고, 장기연수를 통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운영
- 연수자가 사전에 연수목표 설정, 연수프로그램 내용 및 구성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연수의 효과성을 제고
- 연수자의 역량강화가 기관의 역량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범 기관을 선정하여 종합적·장기적인 연수계획을 수립
  - 과정당 연수기간을 2주 이상으로 확대하여 연수의 효과성 제고

#### ③ 연수기관 역량강화

- KOICA를 중심으로 분야별 연수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종합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
  - \* 도로분야의 경우 국토부,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도로공사, KOICA, EDCF 등이 합동으로 연수 프로그램 개발
- 연수기관별 평가, 분야별 연수사업 전문가 Pool 구축, 연수전문가 육성 등을 통해 연수기관의 역량을 강화

## 2

##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 1 전문가 파견

- **(지원계획)** 전문가 파견을 통해 베트남 현지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완료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 중점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관련 연구기관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베트남 수원기관 및 관련 연구소와의 협력 강화
  - 분야별 원조분업회의 참석 및 자문제공 등을 통해 현지사무소의 전문성을 보완
- **(지원규모)** 베트남의 분야별 수요와 국내 연구기관의 전문가 인력 현황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 \* '05~'09년간 수산물 품질검사, 사이버 수사, 도시계획, 거시경제 분야에 총 17명 파견
- **(파견기간)** 6개월 이상 중장기 전문가 파견을 확대하여 수원기관의 자립능력 향상 제고

### 2 해외봉사단 파견

- **(지원계획)** 중점프로그램 목표달성 및 연계·후속조치를 위한 지원과 함께 봉사단 고유영역(한국어, IT등)의 별도 지원을 마련
- **(지원규모)** 연간 80~90명 규모의 봉사단을 유지하고, 분야별로는 빈곤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보건, 교육, ICT 분야 중점 지원

< 분야별 지원비중 >

교육	지역 개발	보건 의료	산업 에너지	정보 통신	환경 및 기타
19%	10%	19%	15%	25%	12%

- **(파견기간)** 봉사단의 현지 적응 등을 고려하여, 활동기간이 최소 2주 이상 되도록 파견계획 수립

### 3

## 개발조사 및 정책자문

### ① 기본방향

- 개발조사 및 정책자문사업 등 베트남의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형 원조를 현행 0.42%('05~'09, 무상지원 대비)에서 **15년까지 2.5% 수준으로 확대**

### ② 개발조사

- 개발조사의 활용도 제고 및 중복방지 등을 위해 사전에 국내 원조기관간 협의를 강화
- 무상 개발조사를 EDCF 본사업으로 연계하는 등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개발조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타공여국과 공동조사 강화
- 초청연수 및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다양한 개발조사 후보사업을 발굴하고, 개발조사에 수원기관의 참여를 통한 역량강화도 추진

### ③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 베트남 상황에 맞게 우리의 경제발전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험전수 및 자문을 제공
- 재정·금융정책, 기업정책 및 인력양성 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법률 제·개정 및 실행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
- 정책자문 결과가 유·무상 사업으로 연계되도록 후속 지원을 검토하고, 기존에 실시된 자문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

## V. 이행전략

### 1 재원배분 및 조직

- (재원배분) 양자원조 중 최소 **70%** 이상을 중점프로그램에 지원
  - 다만, 베트남의 긴급요청 및 사업지연 등 상황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중간 이행 점검시('13년) 조정
- (조직) 현지 사무소 인력확충, 역량강화를 통해 현장 중심의 **ODA** 추진
  - 「재외공관 현지 **ODA** 협의체」 등을 통해 유·무상 기관, NGO, 기업 등 ODA 기관의 역량을 결집
  - 현지사무소 인력을 현재 5명(KOICA 3명, EDCF 2명)에서 8명(KOICA 4명, EDCF 4명)으로 확충하고, 현지전문가 채용 확대
  - 원조조화 및 타공여국과의 협력강화를 위한 상주 전담인력 배치

### 2 연계강화를 통한 원조효과성 제고방안

- (사업간 연계와 시너지효과) 베트남 정부와의 정책협의 및 사업 발굴 단계에서부터 관련 사업간 연계가능성을 검토
  -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연합하여 베트남 기획투자부 및 수원기관과 협의하고 지원계획을 수립
  - 유·무상 사업간 연계, 개발조사·프로젝트·기술지원간 연계 등 사업간 연계강화를 통해 시너지효과 창출

- (사후관리 강화)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이 종료된 사업에 대해 베트남과 공동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
  - 사후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일정기간 후에 수원기관이 자립하여 지원을 종료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 확충에 중점
    - 운용·관리 인력에 대한 훈련시 자체적인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역량강화를 통한 자립에 중점
    - 수원기관의 사후관리 예산확보를 고려하여 장비·물품 등을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지원규모를 축소
    - 도로·상수도 등 수익이 가능한 시설은 비용절감 및 수익성 제고를 추진하고, 직업훈련원 등 비영리 시설은 수익사업 발굴 등을 지원
  - 사업의 성격 및 리스크를 감안하여 하자보수 기간(통상 1년)을 적절히 연장하고 하자보수 업체에 대한 요건과 관리감독을 강화
  - 사후관리 지원을 위해 전문가 파견, 봉사단 파견, 초청연수 등을 연계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

### 3 개발파트너와의 협력전략

#### 1 베트남 및 타공여국과의 협력

- (원조일치) 비구속화비율 제고 및 베트남 시스템 활용 등 원조 일치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도입
  - 2015년까지 베트남 국가예산에 보고된 분야에 대한 지원(Budget support)비율을 20%로 제고
  - 중점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2015년까지 기술협력자금의 100%를 국가개발전략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에 지원
  - 베트남 시스템 활용비율을 2015년까지 10%로 향상
  - 우선 중점지원 분야에 대해 국내 관계기관 합동으로 베트남과 협의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점차적으로 비중점 분야로 확대

- (원조조화) 프로그램 원조(PBA)를 위한 제도개선 및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공여국간 공동조사를 강화
  - 베트남 기후변화 프로그램 차관\*(SP-RCC)에 시범 참여하고, '15년까지 프로그램 예산비율을 총 지원의 10% 수준으로 점차 확대
    - \* 베트남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국가프로그램(NTP-RCC)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JICA), 프랑스(AFD) 주도로 시행중인 프로그램 차관
  - 교통, 식수 분야 파트너십, 원조효과성 포럼에 참여하고, '15년까지 주요 공여국과의 공동현지조사 및 분석연구 참여 비중을 10%로 제고
  - EDCF내 신설된 MDB 특수사업팀을 통해 협조용자 비율을 전체 유상지원의 20%로 확대하고 협조용자 기관을 다각화
  - 타 공여국과의 원조분업 강화를 위해 현지 사무소 인력을 확충하고 필요시 중점 분야별로 상주 전문가를 파견

<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이행 목표 >

이행지표		추진현황 (2007)	2015년 달성목표
원조일치	1. 베트남 예산에 통합된 원조 (Budget support)	7%	20%
	2. 우리 지원전략과 베트남 SEDP와 일치 정도	93%	100%
	3. 베트남 공공재정관리(PFM) 시스템 활용	-	10%
	4. 베트남 공공조달시스템 활용	-	10%
	5. 원조의 예측가능성 제고	5%	90%
	6. 원조의 비구속화 확대	-	40%
원조조화	7. 공여국간 공동합의 및 공동절차 활용 (프로그램원조 비율 확대)	0%	10%
	8. 공여국간 공동 분석 (공동 현지조사 및 공동분석연구 등)	0%	10%
상호 책임성	9. 상호 공동책임(공동평가 실시)	0%	10%

## < 분야별 파트너십 그룹 참여 계획 >

파트너십 그룹명 / 베트남 관계부처		현황	참여 공여국	참여계획
환경 및 녹색성장	RWSSP (농림부)	2006년 설립, 농촌지역 물공급및위생 관련 NTP PhaseII(2006-2010)관련 공여국들 예산지원조정, Phase III 준비중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호주 등	정보공유와 예산지원 (Targeted Program Budget Support) 및 기술협력 가능성 타진
	ISCE (자원환경부)	2001년 설립, SP RCC (Support Program to Respond to Climate Change)등 기후변화대응 분야 지원 프로그램 및 해당분야 5개년 실행계획 마련	WB, ADB, 일본, 캐나다, 덴마크, 스웨덴 등	정책대화와 워크샵 참여, PBA가능성 모색 및 실행에 활용
	ISG-MARD (농림부)	1997년 설립, 삼림·자연재해·조류독감·농촌 지역물공급및위생 등 하위 파트너십 생성, 정책 대화와 정보공유 및 분야 내 중장기 계획 수립	호주,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일본, 독일 등	정책대화와 워크샵 참여, PBA가능성 모색 및 실행에 활용
기술·직업 교육훈련	GDVT주도 파트너십 (노동부)	생성 단계 (2011. 2. GDVT 및 동 분야 주요 공여국 회동)	ADB, 독일, 일본, 프랑스, 스페인, 한국 등	노동부(MOLISA) 산하 직업훈련국(GDVT)과 대화 및 협력 강화, 파트너십그룹 생성단계 부터 적극 참여 및 주도
도로 등 인프라	교통 파트너십그룹 (교통부)	2000년 설립, 정보공유 및 원조효과성 제고 위한 정책대화	WB, ADB, 일본, 영국, 독일, 호주, 한국(수은)	정보습득, 교통분야 기술협력
	베트남 도시 포럼 VUF (건설부)	2003년 설립, 도시개발 및 주택정책 분야 정보 공유 및 정책개발	UN Habitat, EC, WB, ADB,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정보습득, 도시개발 분야 사업발굴에 활용
보건	보건 파트너십그룹 (보건부)	2009년 설립, 정책대화 및 보건분야 5개년계획 주도, 연간 보건분야 리뷰 등 공동연구	미국, 일본, 독일, EC, ADB, UNFPA, WHO 등	정보공유 및 공동연구 등에 참여, 보건분야 정보 및 원조동향 파악에 활용



## 2

## NGO 및 기업과의 협력

### □ NGO 및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ODA에 대한 홍보를 강화
- 베트남 ODA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베트남에서 수행중인 정부의 ODA 활동뿐만 아니라 NGO 및 기업의 원조활동 정보를 공유
- 현지에서 활동중인 NGO 및 지역전문가 인력 Pool을 구축

### □ 정부기관, 대학 및 연구소, NGO, 기업 등 ODA 참여기관의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 기관간 인적교류 확대, 분야별 전문영역 구축, 해외 민간단체와 공동 프로젝트 시행 등을 통한 역량 강화
- 대사관 중심으로 정부기관 및 NGO·기업이 함께 모여 공동사업 발굴 및 협력을 위한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

### □ PPP 사업 확대

- '12년까지 민관협력 시범사업을 발굴·시행하고 성과를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 글로벌 인프라펀드 등 민간부문의 참여 및 EDCF와의 연계를 추진

### □ NGO 및 기업의 ODA 역량강화 지원

- 베트남 현지 NGO의 역량강화 및 기업의 참여제고를 위해 ODA 교육 및 봉사단 파견 등의 지원을 확대
- 정부의 ODA 사업 및 NGO 사업에 대한 평가시 공동참여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NGO와의 연계사업 발굴 및 NGO의 역량강화도 추진

## VI. 성과관리 방안

### 1 모니터링

- (통합 모니터링) 투입 및 성과의 적시성 있는 진도관리를 위해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 현행 통계시스템을 바탕으로 ODA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ODA 사업을 등록
  - 사업별 진도, 예산집행, 현지여건 변화 등 추진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
  - '현지사무소-베트남 정부'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회의를 정례화하여 정보를 공유
- (위험관리) 중점분야별로 체계적인 리스크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내·외부의 위험요인 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필요시 전략을 수정
  - 현지사무소의 실시간 모니터링, 양자대화 및 공여국회의 참석을 통해 위험요인 발생 여부를 적시에 확인

#### < 리스크 매트릭스(예) >

위험요인	관리방안
1. 거시경제환경 악화	· 경제환경변화를 실시간 반영한 원조예산 조정 및 적시 투입 · 개별사업 일정조정을 통한 효과적 사업관리
2. 공공부문 부패 등 비효율적 거버넌스	· 사업진행의 투명성 지속 모니터링 · 부패방지법 관련 제도확충·공공부문 역량강화 지원 확대
3. 사회 및 환경문제 심화	· 사업수행시 사회·환경영향평가 지원 · 소외계층·지역 대상 지원 프로그램 발굴
4. 한국내 공여기관간 통합 결여	· 부처간 통합 CPS 작성, 공동 정책협의, 연계사업 강화를 통해 통합된 ODA 시스템 구축
5. 공여국간 협력 약화	· 현지인력 증원을 통한 공여국 대화채널 참여 확대 · CPS 공개를 통한 효과적 원조분업 및 재원배분

### ① 사업 및 프로그램 평가

- (실적평가) 사업 시행기관별로 사업 종료 전후에 해당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
  - 시행기관 자체적으로 추진하되, 대형사업이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통합평가를 실시
- (사후평가) 사업종료 후 일정기간(2-3년) 경과 후 해당사업의 효과 및 영향력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
  - 대형사업 또는 중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제3자가 수행하는 외부평가를 실시
  - 정량적인 평가를 위해 사업선정 단계부터 기대되는 산출(output), 결과(outcome), 효과(impact)에 대한 평가지표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계
- (주제별평가) 모니터링, 실적평가 및 사후평가지 여성, 인권, 환경 등 범 분야에 대한 평가를 포함
  - 필요시 해당 범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개별적으로 추진
- (베트남의 참여 제고) 평가시 베트남의 참여를 확대하여, 베트남의 의견을 반영하고 평가결과를 공유
  - '11년중 베트남과의 공동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공동평가 비율을 '15년까지 10% 수준으로 제고

## ② 국별협력전략 평가

- (목적) 국별협력전략의 주요 분야별 목표달성 여부 및 기여도를 평가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차기 전략 수립시 반영
- (평가시기) '13년에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15년에 종료평가를 실시
  - 이행보고서('13년) : 해외사무소와 합동으로 중간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전략수정 및 목표 재정립
  - 종료평가('15년) : 관계기관 합동으로 국별협력전략 종료 6개월 이전에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차기전략에 반영
- (평가방식) 중점분야별로 '결과-지표-출발점-목표-검증수단'을 반영한 '결과 평가틀'(Result Framework)을 수립하고, 목표 대비 달성현황을 정량적/정성적으로 측정
- (평가내용) 사업평가, 정책평가 및 주제별평가를 실시
  - 사업평가 : 국별협력전략 기간 중 수행한 전체 사업의 과정 및 영향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집계·분석
  - 정책평가 : 국별협력전략 및 그에 따른 성과를 DAC의 5대 평가 지표\*에 기반하여 평가
    - \* 주인의식, 원조일치, 원조조화, 결과지향, 상호책임
  - 주제별평가 :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여성, 인권, 환경 등 주요 범분야에 대해 평가를 실시
- (환류계획) 개별사업 및 국별협력전략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 VII. 베트남 ODA관련 고려사항

### □ 베트남의 사회주의적 특징 및 문화 존중

- 베트남은 체제전환국으로서 경쟁적·시장경제적 요소를 포함하는 ODA 지원시, 지역간·계층간·성별 '평등'을 강조하는 베트남의 사회주의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
- 베트남은 54개의 종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로, 소수민족의 생활풍습 등을 고려하여 ODA사업을 신중히 추진할 필요

### □ 중앙·지방 정부의 분권화

- '90년대 이후 행정 분권화 작업으로 ODA 사업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분산
  - 인력부족, 행정체제 미비 등으로 지방정부 주도\*의 개발사업의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측면
- \* 사업대상지 주민이주,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
- 이에 따라, 사업 계획 단계부터 중앙·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실행 단계별로 주요 협력 기관과의 밀접한 관계 유지가 필요

### □ 베트남 낙후지역 지원

- 베트남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으나 국제사회의 지원이 적은 중부 지역에 지원을 확대하여 취약지역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 지역주민이 직접적인 혜택을 느낄 수 있는 의료, 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

---

## VIII. 전망 및 2016-2020 계획

---

- **2020년까지** 베트남이 1인당 GDP \$3,000~3,200을 달성하고, 현대화된 산업국가로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15년 이후에도 상당한 수준의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됨
  - 2011~2105 사회경제개발계획(SEDP)의 성과와 2016-2020 기간의 목표달성을 고려하여 '15년중 향후 지원규모를 결정하고 '16년 차기 CPS에 반영
  - **2020년 이후** 중고소득 국가에 진입하는 경우 점차적으로 지원을 감소시키고 민간차원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
- 경제성장으로 기술중심의 산업구조로 변모함에 따라 '15년 이후에는 제도개선, 과학기술협력, 전문인력양성 등의 역량강화와 녹색성장 등의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전망
-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을 넘어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 제고를 위해, 국제개발협력 규범의 준수와 공여기관간 파트너십 강화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

[참고1] 베트남 주요 사회·개발 지표

지 표	수치 (기준연도)	지 표	수치 (기준연도)
평균수명	74세(08)	농경지 비율	32.4%(05)
성인 출산율 (1,000명중)	2.1명(08)	산림지역	129,000 Km <sup>2</sup> (05)
청소년 출산율(1,000명중)	17명(08)	도로포장률	48%(07)
5세미만 유아사망율(1000명중)	24명(09)	위생수 접근율	94%(08)
초등교육 제공비율	96%(00)	1인당 에너지 소비량(석유환산)	614 Kg(05)
초·중등교육 여/남 비율	93%(00)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1.2 메트릭톤(05)
피임보급율	80%(08)	1인당 전기소비량	573 kWh(05)
홍역예방비율	97%(09)	개업 준비기간	50일(09)
HIV 감염율	0.5%(05)	상장사 시가총액	GDP의 23.1%(09)
이동통신 가입자(100명중)	81명(08)	군비지출(GDP대비)	2.2%(09)
인터넷 사용자(100명중)	24.2명(08)	고기술 수출비중	수출 제조업의 5%

\* 출처 :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 base, Dec 2010

[참고2] 베트남 주요 경제지표(최근 5년간)

구분	경 제 지 표	단위	2006	2007	2008	2009 <sup>e</sup>	2010 <sup>f</sup>
국내 경제	G D P	억 달러	610	711	903	932	1,011
	인 구	백만명	84.4	85.3	86.1	87	87.8
	1 인 당 G D P	달러	720	830	1,008	1,040	1,128
	경 제 성 장 륜	%	8.2	8.5	6.2	5.3	6.2
	산 업 생 산 증 가 율	%	10.4	10.6	14.6	7.6	10.0
	국 내 총 투 자 / GDP	%	9.9	24.2	3.8	2.0	6.2
	실 업 륜	%	4.8	4.6	4.7	6.5	6.2
	재 정 수 지 / GDP	%	-2.9	-7.3	-5.4	-9.0	-7.7
	소 비 자 물 가 상 승 륜	%	7.4	8.3	23.1	7.0	10.4
대 외 거 래	환 율 (달러당, 연중)	D	15,981	16,078	16,444	17,800	19,146
	경 상 수 지	백만달러	-164	-6,953	-10,706	-6,120	-7,924
	경 상 수 지 / GDP	%	-0.3	-9.8	-11.9	-6.6	-7.8
	상 품 수 지	백만달러	-2,776	-10,438	-12,782	-8,078	-9,478
	상 품 수 지 / GDP	%	-4.6	-14.6	-14.2	-8.7	-9.4
	수 출	백만달러	39,826	48,561	62,685	56,917	68,526
	수 입	"	42,602	58,999	75,468	64,996	78,004
	서 비 스 수 지	"	-8	-755	-835	-800	-1,143
	수 입 (Credit)	"	5,100	6,030	7,096	5,700	..
	지 급 (Debit)	"	5,108	6,785	7,931	6,500	..
	자 본 수 지	"	3,088	17,730	12,342	..	..
	F D I 순유입	"	2,230	6,739	8,050	8,700	..
	외 환 보 유 액	"	11,293	20,732	21,143	16,054	21,722
외 채 현 황	총 외 채 잔 액	"	20,202	24,222	27,422	29,124	31,288
	단 기 외 채	"	3,866	6,421	7,900	5,869	..
	총 외 채 잔액 / GDP	%	33.2	34.1	30.5	32.1	31.9
	외 채 상 환 액 / 총 수 출	%	3.8	3.4	3.0	4.2	4.7

\* 출처 : 2010 세계국가편람(한국수출입은행)



---

# 가나 협력전략 2011-2015

## Ghana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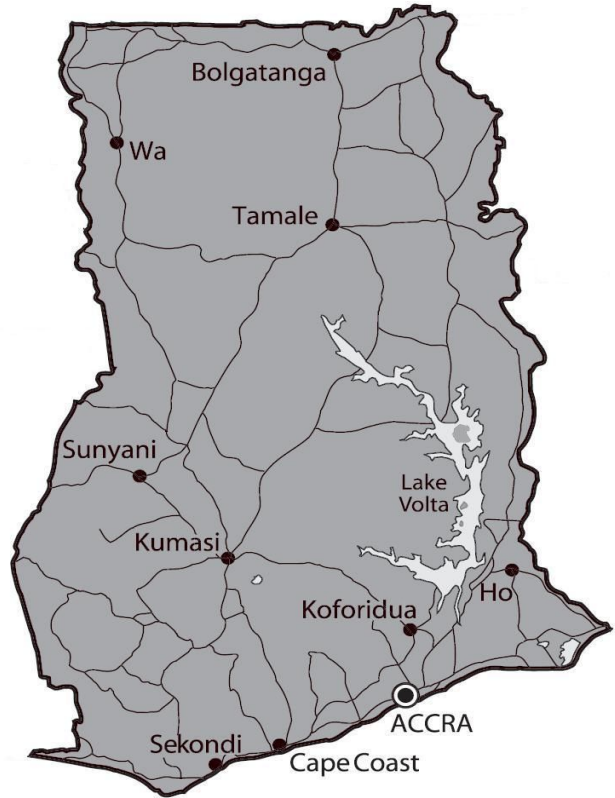
---



## 관계부처 합동

본 전략은 가나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하에 작성되었으며, 국내 및 가나 현지의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 가나 국가 주요개황

국 명	가나공화국 (Republic of Ghana)		
위 치	아프리카 서부 대서양 연안 (코트디브와르, 토고, 부르키나파소와 접경)		
수 도	아크라 (ACCRA, 2.5백만명)		
기 후	열대우림기후 (남부: 고온다습, 북부: 고온건조)		
주요자원	코코아, 금, 목재, 보크사이트, 망간, 다이아몬드, 어류		
종 족	아칸족 (49%), 몰-다그바네족(17%), 에웨족(13%), 가-아당베족(8%) 등		
면 적	239km <sup>2</sup> (한반도의 1.1배)	<b>GDP</b>	262억달러(2009년)
인 구	24 백만명(2009년)	<b>1인당 GDP</b>	1,098달러(2009년)
정치체제	공화제(대통령중심제)	<b>대외정책</b>	친서방 중립
독 립 일	1957년 3월 6일 (영국으로부터 독립)	<b>통화단위</b>	세디 (Cedi)
종 교	기독교(69%), 이슬람교(15.6%), 토속종교(8.5%)	<b>언 어</b>	영어(공용어), 토착어



# 목 차

I. 가나의 개발환경 .....	69
1. 가나의 주요 특성 .....	70
2. 국제사회의 원조현황 .....	76
II. 가나 국가개발전략 및 분석 .....	80
1. 가나 국가개발전략 .....	80
2. 종합분석 .....	82
III. 한국의 對 가나 지원현황 .....	83
1. 지원현황 및 특성 .....	83
2. 지원에 대한 평가 .....	85
IV. 한국의 對 가나 협력전략 .....	87
1. 對 가나 협력의 기본방향 .....	87
2. 중점 협력분야 .....	89
3. 기타 분야(ICT) 지원계획 .....	105
4. 연수 및 기술협력 .....	106
V. 이행전략 .....	109
1. 자원배분 및 조직 .....	109
2. 연계 강화를 통한 원조효과성 제고방안 .....	109
3. 개발 파트너와의 협력전략 .....	110

# 목 차

VI. 성과관리 방안 .....	115
1. 모니터링 .....	115
2. 평가방안 .....	116
VII. 가나 ODA관련 고려사항 .....	118
VIII. 전망 및 2016-2020 계획 .....	119
[참고1] 가나 주요 사회개발 지표	
[참고2] 가나 주요 경제지표	
[참고3] 가나 한국 ODA 사업지역 지도	

- ◇ 가나 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은 2011-2015년간 대한민국 정부의 對가나 최상위 공적개발원조 계획으로 가나 원조의 방향과 기본 틀을 제공함
- ◇ 동 전략을 통해 가나 동반성장 개발계획(GSGDA)의 성공적인 수행에 협력·기여함으로써, 가나의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감소에 공헌하고 양국간 우호와 교류협력을 증진하고자 함
- ◇ 동 전략은 가나의 개발전략에 대한 상호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가나의 개발수요를 바탕으로 한국의 발전경험과 장점을 연계함으로써 원조효과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 한국은 OECD DAC 회원국으로서, 개발협력의 국제적인 규범을 가나 협력전략에 충실히 반영함
- ◇ 동 전략을 통해, 국내적으로 다양한 원조기관간 연계와 역할분담을 강화하고, 국제적으로 타 공여국과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고 원조분절화를 극복하고자 함
- ◇ 동 전략은 2011-2015년 중 對가나 한국 ODA의 역할과 기여를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원조를 수행하며, 가나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행정부담을 감소해 나가겠음
- ◇ 동 전략은 가나의 대내외적 여건변화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양국간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임





## I. 가나의 개발환경

- 가나는 '5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이후 60년대 중반까지 서아프리카 지역내 수출을 주도하는 등 높은 성장을 구가하였으나, 이후 사회주의 노선을 취하면서 80년대 초까지 정치적 혼란 및 경제불안이 지속

80년대부터 시작된 정부의 경제회복 프로그램은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하였고, '00년, '08년 두 차례에 걸쳐 민주적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로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투자 안정지역으로 평가

\*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서부아프리카 최초의 국가

- 특히, '03년 IMF와 원조협정을 체결하고 거시경제 안정성 유지 및 공공분야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시장경제 체제로 급속히 전환 중
- 또한 '03-'04년 서부 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 의장국 및 '07년 아프리카연합(AU) 의장국으로 선출되면서 지역내 입지 강화
- 가나는 2020년 중소득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비전 2020”을 수립하였으며, 2003년 이후 3차에 걸친 빈곤감소 전략(GPRS-I, II, GSGDA)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추진중

- 그러나 아직 정치세력(NDC와 NPP)간 갈등과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계층간·지역간 불균형 심화가 새로운 사회불안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역량미흡이 개발의 제약요인으로 제기

- 최근 가나 정부의 비효율적인 재정정책에 기인한 재정수지 적자와 상품수지·경상수지 적자확대 등의 거시경제적 불안정성도 상존

- 따라서 對가나 협력전략은 가나 사회·경제의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빈곤완화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함

- 이를 위해, 가나의 중기개발전략(GSGDA)을 바탕으로 우리의 강점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다양한 원조기관과의 협력과 역할분담을 통해 원조효과성을 제고해 나갈 필요

## 1. 경제현황 및 전망

- 금 등 귀금속을 중심으로 한 광업부문\*과 관광업 등 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06-'08년 중 연평균 7.3%의 양호한 경제성장을 실현
  - '09년 세계경제 위기로 경제성장률\*\*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10년 농업 및 서비스산업 호조로 빠른 경기 회복세
    - \* 가나는 아프리카 2위의 금 생산국
    - \*\* 경제성장률(% , IMF) : ('06)7.1 → ('07)6.5 → ('08)8.4 → ('09)4.7 → ('10)6.6<sup>f</sup>
- 기업환경 개선\*부문에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제조업 기반이 미비하여 공산품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고, 광물·에너지 자원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전형적인 개도국 시장구조\*\*
  - \* World Bank "Ease of Doing Business Ranking" : ('10)77위 → ('11)67위
  - \*\* 산업별 GDP 구성비율 : 서비스업(49%), 농업(32%), 제조업(19%)
- 2020년까지 중소득국에 진입하기 위한 중기개발목표 및 MDGs 달성을 위해 산업구조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
- 최근 세계경제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가나의 중장기 성장잠재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 '10년말 상업생산을 시작한 쥬빌리 유전\*의 원유생산 및 수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연간 약 6%(4억달러) 수준의 재정수입 증가가 예상되고,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 기대
    - \* 원유 가채매장량 12억 배럴, 천연가스 1.2Tcf (연평균 10억 달러 추정)
    - \*\* IMF 경제성장률 예측 : 8.9%('11년), 7.3%('12년)
  - 석유생산 본격화에 따라 향후 석유화학, 비료, 철강 및 교통 인프라 등의 분야에 대규모 외국인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
    - \* 외환보유액 : ('08)20억달러 → ('09)31.7억달러 → ('10)39.5억달러(추정)

## 2. 빈곤감소 현황 및 전망

- 가나의 빈곤률은 '90년대 초반 52%에서 '06년 28.6%(아프리카 최저 수준)로 급격히 감소
  - '15년 이전 **MDG 목표 1**(절대빈곤 인구비율 반감)을 달성할 전망
- 그러나 계층간·지역별 소득불균형이 악화되고, 특정지역(북부\*)의 빈곤감소가 정체되는 등 새로운 빈곤문제 대두
  - \* Upper West, Upper East, Northern 북부 3개 행정구역
  - \* 북부 3개 지역의 영유아 사망률도 Greater Accra에 비해 2배 이상 높음
- 특히 실업률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전체 노동력의 10% 이하만이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임금 및 소득격차가 큰 상황
- 가나 전체의 균형적인 빈곤감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취약지역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

## 3. 인적자원 개발

- 초등학교 순 취학률이 95%로 상승하였고('08), 남자 초등학생 대 여학생 비율 역시 1 : 0.96('08)에 달하는 등 '15년까지 보편적 초등교육에 대한 **MDGs(목표2)**를 달성할 전망
  - 그러나 교육 인프라 및 서비스의 지역간 격차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취약지역에 교육부문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
    - \* 초등학교 순 취학률: Greater Accra 80.9% vs 북부지역 50% 수준 ('05, USAID)
    - \* 훈련된 초등교사 비율: 평균 59.4% vs 취약지역 37.2% ('07/'08, MoESS)
- 성인의 문자해독률은 약 70%('08)로 높은 수준이나, 북부 지역 문자해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지역·성별간 교육 불균형이 심각
  - \* 남성 36-55%, 여성 35%이하
  - \* UNDP 인간개발지수(HDI) : 169개국 중 130위('10)로 여전히 낮은 수준
- '15년까지 취약지역 아동의 초등교육 취학률 100% 달성(MDGs 2)을 위해 초등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확대 필요

#### 4. 보건 · 의료

- 가나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 및 주요 공여국의 지원으로 기초 의료 보건시설이 확대되고, 의료보험 등 관련 제도가 일부 정비되었으나 **주요 보건지표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
  - \* '97년 보건분야 개혁이후 전국 1,131개 기초보건시설(CHPS : Community-based Health Planning and Services) 확충 및 '03년 의료보험제도 제정
- 모성사망률 감소(MDGs 5)와 HIV/AIDS, 말라리아 등 각종 질병 퇴치(MDGs 6) 목표는 '15년까지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영유아사망률 감소(MDGs 4)도 '15년까지 MDGs 목표달성이 불확실
  - \* 모성사망률(10만건당) : 549명('90) → 503명('05) → 409명('08) ['15년 목표 : 185명]
  - \* HIV/AIDS 감염율(15-49세) : 0.1%('90) → 2.7%('05)→1.9%('07) ['15년 목표 : 0.05%]
  - \* 영유아 사망률(1000명당) : 120명('90) → 111명('05) → 76명('08) ['15년 목표 : 62명]
- 특히, 빠른 경제성장 및 도시화로 인한 인구·사회학적 변화 (인구증가 및 노령화 등)로 인해 보건의료 서비스 혜택에 대한 계층·지역간 격차가 심화
  - 전문인력에 의한 분만 비율 등 주요 서비스 혜택이 도시지역 및 고소득 계층에 집중
    - \* 전문인력 분만비율('08년) : 대아크라(수도)지역 84.3% vs 북부지역 27.2%
    - \* 총인구 33%가 거주하는 도심(대아크라·아산티)에 의사·간호사 60% 이상이 집중
    - \* 5세이하 영유아 사망률(1000명당, '08년) : 고소득층 60명 vs 극빈층 103명
- 공여국·기관들의 지원을 결집하여 **보건의료 시설확충 및 인력의 역량강화(인력의 해외유출 방지대책 마련 포함)** 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의 사회적·지역적 편차를 극복할 필요

## 5. 에너지

- 가나는 그동안 석유·가스 매장량이 주변국에 비하여 미미하였으나, '07년 발견된 쥬빌리 유전(약 12억배럴 매장 추정)의 상업생산이 '10년 개시되면서 아프리카 내 **신흥 산유국으로 급부상**
  - 쥬빌리 유전을 통해 연간 약 6%(4억달러) 수준의 재정수입 증가가 예상되고,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 지속이 기대**
    - \* '12년까지 원유 순 수출국이 될 전망
  
- 현 정부는 유전개발을 가나 중흥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인식하고 유전개발 관련 산업인 전력, 상하수도, 항만, 도로, 통신 등 **사회 기반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
  - 특히 아프리카(사하라 이남)에서 전기보급률(54%)이 가장 높은 국가로서 서아프리카 역내 전력 공급국이 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설정
  - 이를 위해 천연가스를 활용한 화력발전소 및 송변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
    - \* 전력 생산량 목표 : 2,000MW(현재) → 5,000MW('15년, 전기 순 수출국으로 도약)
    - \* 전기보급율 목표 : 75%('15년), 100%('20년)
  - 해상에서 시추된 천연가스를 가나 내 산업지역으로 운송하고 역내 에너지 수송망의 중심축이 되기 위해 가스 파이프라인 등 거대 인프라 투자계획을 수립 중
  
- **에너지 분야를 활용하여 MDGs를 달성하려는 가나정부의 대규모 개발계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공여국 및 민간투자자들의 경제인프라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할 전망**
  - \* 가나정부는 석유수입금의 전략적 활용을 위하여 '10년 석유기금관리법 제정 [석유기금(인프라 프로젝트 활용), 미래세대기금(미래세대 후생지원), 안정화기금(글로벌 충격에서 경제를 보호) 등 체계적으로 제도를 개편]

## 6. 법적·제도적 역량강화

- 가나는 거시경제 안정성을 도모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각종 행정개혁을 추진
  - '10년 국제투명성기구의 평가에 따르면, 가나의 청렴도는 평가대상 178개국 중 62위를 기록(아프리카 국가 중 7위)하는 등 역내 국가에 비해 거버넌스 부문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여·야간 침해한 갈등과 공공부문에 만연한 부정부패 등이 개선되어야할 요인으로 지목
-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법과 행정제도 정비를 통한 공공부문 개혁과 부패방지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 7. 성평등

- '04년 젠더 및 아동정책(National Gender and Children's Policy) 수립, '06년 인신매매법 및 '07년 가정폭력법 제정 등 가나는 여성과 여아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제도 개선에 진일보를 이룸
  - \* OECD Social Institution and Gender Index('09년): 54위/102개국 (비OECD 회원국)
  - \* 젠더개발지수(GDI: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07년): 126위/155개국
- 그러나 법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역량과 재정의 부족으로 충분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차별의식과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
  - \* 국회의원 여성의식 비율 : 186개국 중 107위(매우 낮은 편)
  - \* '09년 여성평균소득은 남성소득의 74% 수준에 불과
- 양성평등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관련 법률의 실효적 이행 및 사회적 인식개선 등 정부의 지속적인 개혁의지가 요구됨
  - \* 취약한 북부(3개) 및 농촌지역 여성의 교육·경제활동 지원 확대방안 수립 필요

< 가나 새천년 개발목표(MDGs) 달성현황 >

목표 1	절대빈곤 및 기아문제 퇴치	진행상황				상태
		1991/92	2005/06	2008	2015 목표	
세부목표 1	하루 소득 1달러 미만 인구비율 반감(%)	51.7	28.5	-	26	달성
세부목표 2	기아 인구비율 반감(%)	36.5	18.2	-	19	달성가능
목표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1991/92	2005/06	2008	2015 목표	상태
세부목표 3	초등학교 취학률(%)	74	-	95.2	100	달성가능
목표 3	양성평등 실현	1991/92	2005/06	2008	2015 목표	상태
세부목표 4	초/중등학교의 남아 대 여아 비율	-	0.95	0.96	1.0	달성가능
세부목표 5	고등학교의 남아 대 여아 비율	-	0.88	0.92	1.0	달성가능
세부목표 6	국회에서 여성의 의석점유율(%)	-	10.9	8.7	-	n/a
목표 4	아동 사망률 감소	1991/92	2005/06	2008	2015 목표	상태
세부목표 7	1,000명당 5세미만 아동사망자 수(명)	122	111	80	53	달성불확실
세부목표 8	1, 000명당 영아(1세미만)사망자 수(명)	-	64	50	-	n/a
목표 5	모성 보건 증진	1991/92	2005/06	2008	2015 목표	상태
세부목표 9	100,000명당 산모사망자 수(명)	740	503	451	185	달성어려움
세부목표 10	전문 보건의 노력으로 출산한 비율(%)	40	48	59	100	달성어려움
목표 6	HIV/AIDS, 말라리아 및 각종 질병 퇴치	1991/92	2005/06	2008	2015 목표	상태
세부목표 11	HIV 감염률(%)	1.5	2.7	2.2	≤ 1.5	달성가능
세부목표 12	말라리아 치사율(%)	-	2.4	n/a	-	n/a
목표 7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1991/92	2005/06	2008	2015 목표	상태
세부목표 13	총 국토면적 중 삼림면적(%)	32.7	24.2	n/a	>33	달성어려움
세부목표 14	안전한 식수에의 접근율(%)	56	-	83.3	78	달성
세부목표 15	향상된 위생에 대한 접근(%)	4	-	12.4	52	달성어려움
세부목표 16	빈민가에서 생활하는 인구비율(%)	27.2	21	19.6	<13	달성불확실
세부목표 17	안전한 주택으로의 접근율(%)	-	11	12.5	18.5 (2020)	달성불확실
목표 8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1991/92	2005/06	2008	2015 목표	상태
세부목표 18	상품 및 서비스수출 부채율(%)	7.8	5.8	4.3	-	n/a
세부목표 19	GDP 대비 ODA 비율(%)	6	9	8.6	-	n/a

출처: 2008 Ghana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2010), UNDP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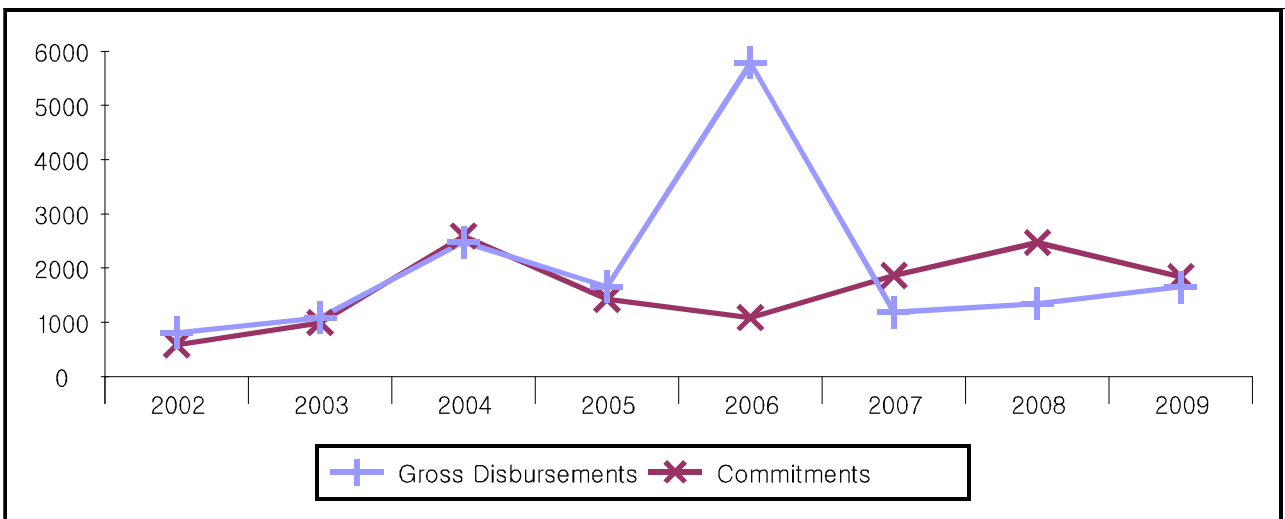
# 국제사회의 원조현황

### 1. 가나의 수원 현황

- 가나는 비교적 안정된 정치체제, 높은 성장잠재력 및 우수한 원조협력 체제로 인해 역내 국가중 비교적 많은 원조를 받고 있음
- 2000년대 초반부터 원조가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GDP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조는 증가추세

< 가나의 ODA 수원 추이 >

(단위: 백만달러)



\* 출처 : OECD DAC 통계

- '09년 GDP 대비 총외채 잔액이 20.7%를 기록하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외채상환 능력이 비교적 양호
- 성공적인 빈곤감소전략 및 정부개혁 수행으로 '04년 고채무빈국 (HIPC) 채무조정 자격을 부여받고, '06년 다자간 부채탕감 프로그램 (MDRI\*)에 의해 대규모 채무가 탕감됨

\* MDRI(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는 고채무빈국(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이 UN MDGs를 달성할 수 있도록 채무를 탕감하여 주는 프로그램



□ 가나는 채무탕감 이후 양허성 차관보다는 주로 무상원조를 도입

\* 유상 : 무상 비율 : 50% : 50% ('00) → 35% : 65% ('09)

□ 분야별로는 프로그램원조(예산지원)가 전체 원조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사회분야, 경제, 보건분야에 대한 지원이 집중

< 가나 분야별 ODA 지원: 2008~2009 >

프로그램원조	22%	기타 사회분야	19%
경제인프라	15%	생산분야	14%
보건분야	14%	교육분야	4%
인도적지원	2%	기타	10%

\*출처 : OECD

□ 국가별로는 영국, 미국, 네덜란드 등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IDA, EU, AfDF의 지원이 큰 규모를 차지

< 공여국 · 기관별 對가나 ODA 원조현황 (2008-2009) >

(백만달러)

순위	원조공여국	지원규모	순위	원조공여국	지원규모
1	IDA	261	6	AfDF	95
2	영국	154	7	캐나다	87
3	EU	143	8	덴마크	87
4	미국	115	9	독일	66
5	네덜란드	109	10	프랑스	59

\*출처: OECD

## 2. 주요 공여국의 활동 및 협력 현황

- 가나는 재정경제기획부와 국가개발계획위원회(NDPC) 주도로 다양한 원조기관 및 개발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원조조화에 노력
  - 특히 가나에서 활동중인 개발파트너(DPs)간 협력강화를 위해 **G-HAP\***을 기획하고 지원전략(**G-JAS\*\***)을 공동으로 수립
    - \* G-HAP (Ghana Harmonization and Aid Effectiveness Action Plan)
    - \*\* G-JAS (Ghana Joint Assistance Strategy) : 16개 공여국·기관이 참여한 공동 지원전략
  - 이를 기반으로 여러 공여국들이 정보를 공유하여 원조 프로그램에 공동 투자하는 등 원조조화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주요 공여국 및 원조기관은 가나 빈곤감소전략의 효과적 지원을 통한 **MDGs**달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

공여기관	지원방향	지원분야
IDA	MDGs 달성 및 GPRSII 효과적 지원	민간부문, 지역통합, 인프라(도로, 식수, 에너지), 농업, 교육, 보건, 환경, 자원관리 등
영국	지속가능한 빈곤친화적 개발	보건, 사회적 보호(고용, 사회복지 등), 시민사회, 거버넌스, 민간부문개발, 무역 등
네덜란드	MDGs 달성 및 GPRSII 효과적 지원	보건, 환경, 교육
덴마크	GPRS 효과적 지원 및 가나의 지속가능한 성장 도모	운송, 보건, 물 및 위생, 비즈니스, 거버넌스
미국	GPRSII의 효과적 지원	거버넌스 개선, 민간부문 경쟁력 강화, 보건, 기초교육 기회 확대

- '07-'10년 동안 **G-JAS** 회원들은 **53억달러\***의 재정을 지원했으며, 유·무상 비율은 1(유상): 2(무상) 수준
  - \* 동기간 전체 對 가나 원조지원액의 95% 수준

< 2007-2010 G-JAS 재정지원 현황 >

GPRS II Pillars & Sectors	프로젝트 총 지출 (백만달러)				
	2007	2008	2009	2010	2007-2010
<b>프로젝트 총 지출</b>	<b>1,292.7</b>	<b>1,382.9</b>	<b>1,434.7</b>	<b>1,255.0</b>	5,365.3 (100%)
재정지원(MDBS)	293.6	354.6	378.1	361.2	1,387.5 (25.5%)
시민사회 직접지원	16.8	16.1	12.9	11.9	57.7 (1.5%)
<b>섹터 및 투자 지원</b>	<b>982.3</b>	<b>1,012.2</b>	<b>1,043.7</b>	<b>881.9</b>	<b>3,920.1 (73%)</b>
<b>Pillar1:</b>					
<b>민간부문 경쟁력강화</b>	<b>596.6</b>	<b>583.1</b>	<b>626.5</b>	<b>519.4</b>	<b>2,325.6 (43%)</b>
농업	200.6	244.5	235.2	190.2	870.5
민간 및 재정부문 개발	91.5	78.4	56.0	36.6	262.5
에너지	76.6	48.5	53.7	57.7	236.5
교통(transport)	227.9	211.7	281.6	234.9	956.1
<b>Pillar2:</b>					
<b>인간개발 &amp; 기초서비스</b>	<b>315.0</b>	<b>330.6</b>	<b>307.7</b>	<b>273.3</b>	<b>1,226.6 (23%)</b>
보건(HIV/AIDS 포함)	115.3	116.4	92.2	89.4	413.3
교육	99.2	110.2	103.5	98.0	411.9
식수 및 위생	100.5	104.0	112.0	85.9	402.4
<b>Pillar3:</b>					
<b>거버넌스</b>	<b>70.7</b>	<b>98.5</b>	<b>109.5</b>	<b>89.2</b>	<b>367.9 (7%)</b>
공공재정관리	5.4	7.4	6.0	5.5	24.3
공공부문개혁	7.9	8.6	6.7	4.7	27.9
지방분권화	29.5	45.8	63.2	60.7	199.2
기타 거버넌스(M&E포함)	27.9	36.7	33.6	18.3	116.5

### 3. 향후 ODA 전망

- 정치환경이 안정되고, 우수한 ODA협력체계를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원개발 확대에 따라 가나에 대한 원조규모는 증가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특히 가나를 아프리카 경제개혁의 모델로 삼으려는 세계은행과 국제사회의 지원확대로, 가나는 2020년까지 중저소득국(LMIC)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
  - 중저소득국에 진입시 주요 공여국의 ODA 감축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가나 정부의 지속적인 원조재원 확보 노력과 함께 원유·가스 등 천연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투자 유치활동이 예상됨
- '15년까지 가나의 국가개발목표 달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보건 등 사회인프라 지원 뿐 아니라 에너지, 상수도 등 경제인프라 지원 및 PPP를 활용한 인프라지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II. 가나 국가개발전략 및 분석

### 1 가나 국가개발전략

#### 1. 가나 비전 2020(Ghana Vision 2020 : 1996~2020)

- 가나는 2020년까지 중소득국\* 지위 획득, 균형경제 달성, 생활 수준의 향상을 이루기 위해 **Ghana Vision 2020(1996-2020)**<sup>1)</sup>을 수립
- 주요 목표 : ① 고용, 거주, 여가에의 광범위한 접근을 통하여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 영위 ② 개발에 따른 혜택의 공정한 배분 및 극심한 빈곤 제거 ③ 국가소득 연 8%이상 증대 ④ 인구성장률 감소(2-3%) 및 가정 실질소득의 증대(1993년 수준의 4배 이상 목표), ⑤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들의 사회·문화·경제적 문제 해결

\* 가나는 '11.7월 세계은행 국가기준 저소득국(LIC)에서 중저소득국(LMIC)으로 전환  
국가분류 : [최빈국(LDC)-저소득국(LIC)-중저소득국(LMIC)-중고소득국(UMIC)]

#### 2. 가나 국가개발전략 진행현황

- 가나는 '96년 수립한 '가나 비전 2020'을 기초로 '96년부터 총 4단계의 국가개발계획을 단계별로 실행 중
- 1단계 : 경제 및 사회개발 정책에 관한 프로그램 (CPESDP: Co-ordinated Programme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olicies, 1996-2000) ⇒ 인간개발, 경제성장, 농촌 및 도시개발, 인프라 확충, 환경을 우선과제로 선정
- 2단계 : 제1차 가나 빈곤감소전략 (GPRS I - Ghana Poverty Reduction Strategy, 2003-2005) ⇒ MDGs 달성 및 빈곤감소 목표
- 3단계 : 제2차 가나 빈곤감소전략 (GPRS II: Ghana Poverty Reduction Strategy, 2006-2009) ⇒ 부의 창출 및 경제성장 중심
- 4단계 : 가나 동반성장 개발계획 (GSGDA: Ghana Shared Growth and Development Agenda, 2010-2013) ⇒ 농업의 현대화와 자원(석유·가스)을 기반으로 한 산업화 및 경제구조 변혁

#### 3. 2010-2013 가나 동반성장 개발계획(GSGDA 2010-2013)

1) Vision 2020은 '국가 개발정책 프레임워크(NDPF: National Development Policy Framework)'라고도 함.

□ 가나는 **Vision 2020(1996-2020)**을 기초로 '11년 현재 제 4차 국가개발계획인 **GSGDA(2010-2013)**를 수립하여 실행 중

- **(7대 핵심주제)**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① 지속적인 거시경제 안정 ② 민간부문 경쟁력 강화 ③ 농업 현대화 촉진 및 지속가능한 천연자원관리 ④ 석유 및 가스 개발 ⑤ 인프라, 에너지, 거주지 개발, ⑥ 인적개발, 생산성, 고용 ⑦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거버넌스
- **(5대 지출 우선분야)** 인프라 구축(에너지, 석유, 가스 부문 포함), 식수 및 위생, 보건, 교육(ICT, 과학, 기술·혁신 부문 포함), 농업을 5대 지출우선 분야로 선정



- 가나가 2020년까지 중소득국 지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함께 취약한 사회부문을 동시에 관리할 필요
- 가나의 국가개발전략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요인을 관리하면서 성장의 양적·질적 측면을 적절히 고려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경제성장에 따른 지역별·계층별 양극화를 주요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정책목표를 설정
  - 또한, 가나 경제의 근간인 농업부문 현대화 전략과 함께, 산업 사회로의 변화를 위한 과학 및 ICT 분야 육성 계획도 포함
  - 지속가능한 성장 및 빈곤감소 달성을 위하여 민간부문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또한 석유 등 천연자원에 대한 지속적 관리계획을 반영함으로써 향후 본격화될 자원고갈 및 환경관리 방안도 적절히 반영
- 그러나 정부가 계획중인 경제·사회개혁 및 부패척결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실천이 요구됨
  - 또한, 사회경제개발전략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합리적인 우선순위 결정 및 지속적인 개발재원 확보가 필요
  - 이와 함께 대외채무,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관리와 이를 위한 역량강화도 시급

### III. 한국의 對 가나 지원현황

#### 1 지원현황 및 특성

##### 1. 지원현황

- (총괄) '90년 對 가나 ODA 지원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12개** 부처·기관에서 총 **126.9**백만달러를 지원
  - 이중 유상은 115백만달러(승인기준), 무상은 약 11.9백만달러(집행기준)을 지원
- (지원규모) 지난 5년간 對 가나 ODA는 '06년 0.27백만달러에서 '10년 58.1백만달러로 급격히 증가
  - 유상은 '02년 가나측의 채무불이행으로 지원이 중단되었으나 '10년 채무재조정과 함께 지원이 재개되었고, 무상은 지속적인 증가세

< 한국의 對 가나 지원추이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계(백만달러)
유상 승인액	-	-	-	-	55	55
무상 집행액	0.27	1.77	2.88	2.89	3.10*	11.18
계	0.27	1.77	2.88	2.89	58.1*	66.18

\* 출처 : EDCF 및 KOICA 통계 (2010 무상통계는 확정전 수치)

- (사업형태) EDCF('90~'10년)와 KOICA('91~'10년)는 프로젝트형 사업(총 10개)을 주로 추진

< 사업형태별 지원 현황 (1990~2010년) >

(단위: 백만달러/건·명)

구분	프로젝트	초청연수	물자지원	의료단	개발조사	기타*
무상(KOICA)	6.3(6)	2.6(273)	1.4(18)	1.2(3)	1.6(2)	0.8
유상(EDCF)	115(4)	-	-	-	-	-

\*기타: 전문가파견, 긴급원조, 태권도 사범 등

- (분야별) '06~'10(EDCF '10년, KOICA '06~'09년) 對 가나 ODA 중 인프라(에너지·환경)에 대한 지원이 전체의 94%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교육, 보건·의료, IT 분야 등에 지원

< 대 가나 EDCF/KOICA 분야별 지원 현황 (1990-2010년) >

구분	에너지	환경·기타	교육	보건·의료	행정·제도	농어촌 개발	정보·통신	긴급 구호	합계
금액 (백만달러)	59.2	58.5	3.3	3.3	1.7	0.8	2.0	0.1	128.9
비율(%)	45.9	45.4	2.6	2.6	1.3	0.6	1.6	0.0	100

- \* 출처 : EDCF, KOICA 통계
- \* 과거 EDCF의 對가나 지원은 에너지 분야에 집중('90년 정유제품저장소, '94년 LPG 용기 제조공장, '00년 송유관 건설사업)

- (지역별) 수도인 아크라가 위치한 Greater Accra 지역에 사업이 집중되고 있으며, 중앙 및 북부 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은 전무

< 1990-2011년 한국의 對 가나 지원(예정)사업 > (단위 : 사업수/백만달러)

지역	에너지 (인프라)		환경 (인프라)		보건·의료		교육		행정·제도		농어촌 개발		기타		사업수
	차관	증여	차관	증여	차관	증여	차관	증여	차관	증여	차관	증여	차관	증여	
대아크라 (Greater Accra)						1/		1/		2/		1/			5
중앙(Central)						0.3		2.0		2.5		3.6			0
서부(Western)			1/											2/	3
			68											2.5	
동부(Eastern)						1/		1/							2
						2.0		3.0							
볼타(Volta)						1/									1
						4.0									
아산티(Ashanti)	1/														1
	30														
브롱아하포 (Brong-Ahafo)	1/														1
	37														
북부(Northern)															0
북서(Upper West)			1/												1
			55.5												
북동(Upper East)															0
TOTAL	2/67		2/123.5		3/6.3		2/5.0		2/2.5		1/3.6		2/2.5		14/210.4

- \* 출처 : EDCF, KOICA 승인(집행)사업 및 주요 지원예정 사업 - 연수 등 역량강화 부문 제외
- \* 에너지 인프라사업은 Ashanti와 Western 두 지역에서 시행하며, 교육부문은 후보사업으로 가능성 낮음



## 2

## 지원에 대한 평가

### ① 지원전략에 대한 평가

-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지원전략 뿐만 아니라, 유·무상 기관의 개별적인 지원전략이 없이, 매년 수원국의 요청에 근거 연도별 지원사업을 결정
  - 지원전략의 부재와 유·무상 및 부처간 對 가나 원조관련 별도의 협의과정이 없어 분절화된 원조수행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과 평가체계 미비

### ②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 **(효과성)** 프로젝트 선정시 가나 국가개발전략상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성장기반 확충과 빈곤감소에 기여하는 등 개별사업의 측면에서 효과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평가
  - 원조기관간 협력이 부족하고, 프로젝트 위주의 지원으로 사업간 연계나 프로그램화된 지원이 전무
- **(지속가능성)** '02년 가나측의 유상차관 채무불이행으로 후속지원이 중단된 바 있으며, 유·무상 지원사업 종료 이후에 일부 후속지원을 하고 있으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이 미비

### ③ 현지 지원체계에 대한 평가

- **(현지인력)** 원조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인력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사업발굴이 어려운 상황(현재 KOICA 1명 파견, EDCF '11년 하반기 1명 파견)

## <우리나라의 對 가나 ODA SWOT분석>

<b>Strength</b>	<b>Weaknes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에서 유일하게 최빈국에서 선진 공여국으로 단기간에 발전한 경험 보유</li> <li>□ 비교적 근래에 개도국으로서 발전 경험을 가지고 있어 진정성 있는 접근 가능</li> <li>□ 향후 5개년간 가나는 아프리카 지역 유상원조중 1위, 무상원조중 3위 수원국으로 전망되므로 한국의 집중지원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짧은 원조역사에 따라 원조활동이 국제적인 기준에 미흡</li> <li>□ 아프리카 및 가나 연구, 한국적 개발경험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부족</li> <li>□ 개발컨설턴트 등 전문가 그룹 부족</li> <li>□ 현지전문가 및 관리 인력의 부족</li> <li>□ 전문화, 세분화 되어있는 파트너십 그룹에 참여부진으로 정보부족</li> <li>□ 개별사업 중심의 지원으로 가나 정부 주도 개발프로그램에 일치하는 프로그램형 원조경험 부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프리카 지역 지원에 대한 국내적 관심 증대와 협력기회 확대</li> <li>□ 우리의 개발경험과 잠재력에 대한 가나 정부의 높은 관심</li> <li>□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와 가나 정부의 ODA 수원전략과의 유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나의 중소득국진입 예상에 따른 국제사회의 지원 축소</li> <li>□ 다양한 개발주체 등장에 따른 원조 분절화 심화 (특히 DAC 회원국이 아닌 중국과 인도의 거대 자본과 노동력 유입)</li> </ul>
<b>Opportunity</b>	<b>Threat</b>

# IV. 한국의 對 가나 협력전략

## 1 對 가나 협력의 기본방향

### 가나 동반성장 및 개발의제 2010-2013

2020년까지 중소득국 진입을 위하여 산업화, 농업현대화 통한 국가경제의 구조적 변화 기반 마련

### 對 가나 CPS 전략목표

체계적·일관성 있는 유·무상 원조수행을 통해 동반성장 및 개발전략 수행에 협력



- 가나의 균형적 발전과 빈곤감소에 공헌
- 양국간 우호교류 협력 증진

### 중점분야

#### 전력인프라확충

- 에너지설비

#### 보건위생·의료환경개선

- 상수도시설
- 모자보건

#### 기술교육환경개선

- 교육인프라 및 역량 강화

가나의 개발전략

한국의 개발경험 및 강점

###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실천계획

#### 사업 효율성

- 예측가능성
- 선택과 집중
- 사업간 연계

#### 지속 가능성

- 사후관리 강화
- 성과평가 강화
- 모니터링 강화

#### 원조조화

- 원조일치
- 프로그램원조

### CPS의 기반

MDGs, 파리선언, DAC 권고사항, ODA 선진화방안

- (목표) 가나 국가개발전략(GSGDA)의 성공적인 수행에 협력·기여함으로써, 가나의 발전과 빈곤감소에 공헌하고 양국간 우호와 교류협력을 증진
  - 아프리카 최대 중점협력대상국으로서 가나가 '20년까지 중소득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에 중점
- (중점분야) 가나의 개발수요, 우리의 강점 및 원조분업 등을 고려하여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총 지원금액의 70%를 집중
  - 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에너지 분야
  - ② 보건위생·의료환경 개선 ⇒ 식수·위생 및 모자보건
  - ③ 기초교육 환경 개선 ⇒ 교육 인프라 및 역량강화
- (실행전략) 對 가나 지원의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업효율성, 지속가능성, 원조조화의 3대 가치를 추구
  - 사업효율성 : 원조사업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 지속가능성 : 지원된 사업 및 시설이 지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후속지원을 강화하고 가나의 자립운영 능력을 육성
  - 원조조화 : 현장기능 정비 및 역량강화를 통해 가나 및 공여국·공여기관과의 협력과 원조분업을 강화
- (전략의 기반) 원조사업의 전 과정에서 MDGs, 파리선언 등 원조 규범, DAC 권고사항 및 ODA 선진화방안을 준수
  - 비구속화 비율, 프로그램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

### 1] 검토배경

- (가나 개발수요) **GSGDA(2010-2013)**은 가나의 7대 개발과제의 하나로 에너지·인프라 분야를 선정
  - 가나의 전체 에너지 소비량에서 전력부문 비중이 **69%**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력설비 확충을 통한 보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시급한 상황\*
    - \* 도시화 가속에 따른 전력소모량 급증으로 전력공급이 매우 불안정하며 이는 경제성장의 장애요인 중 하나
- (가나의 비전) 대내적으로 '20까지 전기보급을 **100%** 달성 ('10년 현재: 54%)하고, 대외적으로 '15년까지 서부아프리카 역내 전력수출국으로의 도약을 추진 중
  - 이를 위해 발전시설 증설과 함께 송·변전 설비확충과 현대화가 필수
  - 인프라 확충과 함께 동 분야 관계법령과 제도, 송·변전 설비 운영 등 관련분야의 역량강화 필요
- (한국의 강점)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전력수요 증대에 성공적으로 대처한 경험 및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보유
  - \* Smart Grid(자동 부하제어 시스템)기술이 가나의 과부하로 인한 만성적인 전력손실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한국 지경부 - 가나 에너지부간 '11년 3월 『석유, 가스 상·하류, 플랜트, 전력 및 에너지 인프라 등』에 대한 포괄적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5년간 유효)하는 등 동 분야 민·관 협력기반 마련
  - 한전의 전력분야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가나 전력청으로부터 교육 효과성 및 유용성을 인정받아 '09년부터 가나의 비용부담으로 전력분야 엔지니어가 한국을 방문하여 연수 중

## ② 목표 및 한국의 기여

전력인프라 확충 및 관련부문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전력공급과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 ○ 가나의 계획

- 현대화된 전력설비 확충을 통해 화석연료의 소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 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 가계와 기업을 위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뿐만 아니라 전력생산비용 절감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
- 에너지 보급률 증대로 취약계층인 여성과 아동의 건강과 안전향상

### ○ 한국의 기여

- 유상(EDCF)으로 송전선로 확충(175km) 및 변전소를 증설(161kV→330kV)을 지원하여 국내 전력난을 해소하고 주변국으로의 전력수출을 위한 기반 조성
- 송전선 및 변전소 증설사업과 연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전력시설 운영 및 에너지분야 교육 등을 포함)을 무상으로(KOICA) 지원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

## ③ 추진계획

### (1) 기본방향

- (유·무상, 부처간 연계) 지경부가 발굴한 전력 사업\*을 EDCF(유상) 재원으로 인프라를 지원하고, KOICA·한전 등 관련 기관이 합동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부처간·기관간 통합적 연계지원
  - \* 가나 프레스티아-쿠마시 330kv 송변전망 구축사업
- 분업과 협력을 통한 원조효과성 및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 제고
- (역량강화) 변전소 설계와 시공, 운영·관리부문 등에서 가나의 전력설비 분야 역량을 종합적으로 강화\*하고 선진기술 이전을 통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기대
  - \* 가나사회의 취약요소인 양성불평등 해소를 위해 역량강화 프로그램 설계시 여성참여 고려

## (2) 실행계획

- (관련기관) 원조기관과 국내 전력설비 관련기관이 합동으로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통합지원 추진
  - 중앙부처 :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 시행기관 : KOICA, EDCF
  - 관련기관 : 한국전력공사, 산업인력공단, 민간전문가 등
- (기술지원) 개도국 기술이전을 포함한 문제해결형 연수를 강화
  - 전력설비분야 ODA 사업에 국내전문가 파견을 포함시켜 수원국 프로젝트사업과 역량강화를 연계

<가나 송전망 확충 및 역량강화를 위한 통합 지원 프로그램 지원계획>

1. 프로그램명 : 가나 송전망 확충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2. 사업 예산 : 유상 67백만달러 + 무상지원
3. 사업 기간 : '12~'14까지 3년간
4. 사업내용 : - 330kv 송전선로 확충(185km), Prestea 지역 변전소 확장(161kV ⇒330kV), Smart Grid 직접부하제어 시스템 설치 등 인프라 구축  
- 전력분야 종합역량 강화(변전소 설계와 시공, 운영·관리 등) 지원

### 5. 단계별 추진계획

#### ① 프레스티아-쿠마시 330kv 송변전망 구축사업('11.7-'13.7)

지원내용 : 67백만달러(EDCF, 유상, 비구속성 원조 지원계획, 국제입찰 예정)

사업내용 : 330kv 송전선로 확충(185km), Prestea 지역 변전소 확장(330kv), Smart Grid 직접부하제어 시스템 설치



#### ② 전력분야 역량강화 사업('12-'14)

지원내용 : 무상지원

사업내용 : (KOICA) 전력분야 종합역량 강화(변전소 설계와 시공, 운영·관리 등)  
(지경부) 기술력을 지닌 산하기관(한전 등)을 활용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

6. 추진기관 : EDCF + KOICA + 한전

## 1. 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사회기반 마련 - 안전한 식수 공급 및 위생 개선

### ① 검토배경

- (가나 개발수요) **Ghana-Vision 2020**은 식수·위생 시설 및 기타 사회인프라 확충을 중점분야 중 하나로 선정, 식수 및 위생은 GSGDA(2010-2013)의 5대 우선 예산지출 분야 중 하나임.
  - 인프라 미비로 인해 소수 주민들에게만 **24시간 생활용수 공급**
  - 북서부 지역은 용수 공급이 가장 취약하고, 볼타 지역은 오염된 물 이용으로 수인성 질병이 만연
  - 가나 수자원 정책(**National Water Policy**)은 '09년 현재 59%인 전국 식수공급률을 **'15년까지 약 80%, '25년까지 100%로 확대할 계획**
- (한국의 강점)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하수도 시설 부족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한 경험과 기술력 보유
  - 또한 우리 정부는 녹색성장 및 환경관련 사업을 정책 최우선 순위로 선정하고 동 분야 예산을 증대할 계획
  - \* '11년 녹색성장산업에 대한 EDCF 지원규모를 승인 총액의 20% 수준으로 확대하고, '15년까지 30% 수준으로 제고할 예정
  - 수자원·위생분야 ODA가 전체 ODA에서 12%\*를 차지하는 등 다양한 식수·위생 부문 원조사업을 통해 풍부한 경험을 축적
  - \* '04~'09년 누적통계 기준



## ② 목표 및 한국의 기여

식수·위생시설 확충 및 관련 역량강화를 통해 해당지역 보건위생과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 개선

### ○ 가나의 계획(GSGDA 2010-2013)

- 안전한 식수 및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도 향상과 보건위생 교육
- 지역 식수위생계획(District Water & Sanitation Plan) 수립 및 가나 수자원공사(Ghana Water Company)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 ○ 한국의 기여

- '15년까지 북서부 지역에 상수도 시설을 지원(EDCF)하여, **15,000m<sup>3</sup>/1일** 규모의 정수용량을 확충하고 약 14만명의 인구를 대상으로 생활용수 공급
- '15년까지 볼타 지역 상수도 시설 취약지역에 소규모 식수 및 위생시설을 보급 및 식수시설 관리·보건위생 역량강화를 지원(KOICA)
- 상수도 분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무상(KOICA)지원하여 유상(EDCF)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기대

## ③ 추진계획

### (1) 기본방향

- **(사회인프라 확충)** 취약지역(북부, 중서부 지역, 볼타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수도시설\***을 지원하고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 EDCF 인프라 사업, KOICA 소규모 식수위생시설 및 환경부 소규모 마을 상수도 사업 등
- **(역량강화)** 식수시설 운영능력 향상 및 위생인식 증진 등을 지원, 동 분야 중앙·지방정부 인력 및 지역주민의 식수위생 역량 강화  
\* 가나사회의 취약요소인 양성 불평등 해소를 위해 역량강화 프로그램 설계시 여성참여 확대

## (2) 실행계획

- **(관련기관)** 원조기관과 국내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
  - 중앙부처 :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환경부 등
  - 시행기관 : KOICA, EDCF
  - 관련기관 : 수자원공사, 환경산업기술원, 환경연구원 등
  
- **(원조조화)** 원조공여국간 연례회의(Consultative Group Annual Partnership Meeting) 참석을 통해 환경분야 주도기관인 EU 및 식수·위생분야 주도국인 프랑스와 공여국간 협력 강화
  
- **(연계강화)** 관계기관 합동(KOICA, EDCF, 환경부 등)으로 **관련분야** (상하수도, 폐기물처리 등)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연계사업 발굴 지원
  - 지역별·기능별 역할분담 및 기 지원시설에 대한 후속 지원방안을 통합적으로 마련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

### <식수위생 분야 연계 프로그램 지원계획(안)>

1. 사업명 : 가나 식수·위생 분야 역량강화 및 인프라 확충 프로그램
2. 사업 기간 : '11~'15
3. 사업내용
  - ① 북서부 WA 지역 상수도 건설사업 등 (EDCF, '11~'14)
  - ② 볼타 지역 식수위생 개선사업(KOICA, '11~'15)
  - ③ 소규모 마을상수도 설치 시범사업(환경부, '11~'12)
4. 한국의 기여사항
  - 15,000m<sup>3</sup>/1일 규모의 정수용량 확충, 약 14만명의 인구를 대상 생활용수 공급
  - 농촌 식수 공급시설 약 300개, 공공위생시설 약 150개 개발 및 역량강화 실시
5. 추진기관 : EDCF(상수도 인프라) + KOICA(소규모 식수위생 인프라 및 역량강화) + 환경부(소규모 마을상수도 공급)

※ 상기내용은 후보안으로 사업 대상지 및 세부실행계획은 수원국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추후 확정될 예정

## 2. 보건의료 강화 - 모자보건 개선

### ① 검토배경

- **(가나 개발수요)** 가나 개발전략(GSGDA 2010-2013)은 7대 개발과제의 하나로 인적자원개발(보건부문 포함)을 꼽고 있으며, 보건부문은 5대 우선 예산지출 분야 중 하나로 제시
  - 또한 가나의 보건부문 제3차 중기전략(Five Year of Work, 2007-2011)의 최우선 목표로 모자보건 분야 개선을 선정
- **(MDGs 이행현황)** 제 5목표인 모성사망을 감소는 '15년까지 달성 불가능하여 MDGs 중 가장 부진한 분야로 평가
  - MDGs 제 4목표인 영유아 사망률 감소 부문\*** 역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어, 국제사회의 동 분야에 대한 지속적 지원 필요
  - \* 모성사망률(10만건당) : 549명('90) → 503명('05) → 409명('08) ['15년 목표 : 185명]
  - 숙련조산사에 의한 출산비율은 47%에 불과하며, 특히 조산사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신규 조산사 양성이 시급한 실정
    - \* 영유아 사망률(1000명당) : 120명('90) → 111명('05) → 76명('08) ['15년 목표 : 62명]
    - \* (전문가에 의한 분만) 40%('88) → 59%('08)
    - \* (보건시설에서의 분만) Northern 지역 27.2%, Greater Accra 지역 84.3%
- **(한국의 강점)** 한국은 산업화과정에서 성공적인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 향상을 달성하는 등 우수한 관련 경험과 기술력 보유
  - 특히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1973년 모자보건법 제정 등)를 통해 영유아 및 모성 사망률을 단시간 내 감소시킨 성공사례 보유
    - \* (5세 이하 사망률, 1000명당) 70명('60) → 9.9명('93) → 6.2명('99) → 4.1명('06) 세계최저수준
    - \* (모성사망률, 10만명 당) 20명('95) → 18명('99) → 15명('06)

## ② 목표 및 한국의 기여

모성 및 영유아 사망률 감소를 지원함으로써 가나 여성인력의 생산력 향상 및 건강한 차세대 육성을 통한 효과적인 경제·사회발전 지원

### ○ 가나의 계획

- 가나 보건부문 중기개발계획('10-13)\*은 MDGs 달성을 위하여
  - ① 모성·신생아·어린이·청소년 보건 서비스의 질적 제고
  - ② 질병 예방 강화 ③ 보건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④ 병원치료개선
  - ⑤ 빈곤·소외계층 보건서비스 확대 등 5개 목표를 설정

\* '13년 까지 목표 : '08년 대비 모성사망률 30% 감소, 신생아 사망률 44% 감소, 5세미만 영유아 사망률 46%로 감소

- 가나의 보건부문 예산은 전체 국가예산의 12.8%('09년) 수준으로 아프리카 국가중 높은수준(11위)이며, 모자보건 부문이 보건분야 예산중 가장 큰 비중(29%)을 차지

- 특히, 모성사망률 감소(MDGs 제5목표)를 위하여 2010년 **“MDGs Accelerations Framework(MAF)-Country Action Plan”**\*을 작성하여 운영중

\* MAF는 MDGs 제5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우선 지원 분야, 지원시 예상되는 위험요소,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해결책, 잠재적 협력파트너(공여국 등), 항목별 필요예산액, 필요 예산액 중 부족액 등을 정리한 구체적 액션플랜

### ○ 한국의 기여

- '15년까지 Greater Accra 및 Volta지역 내 기초 보건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보건소 건설과 시설 보수 등 인프라 건립·보수 및 기자재 지원

- 모자보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각 지역 보건소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
  - \* 가나의 취약요소인 양성불평등 해소를 위해 역량강화 프로그램 설계시 여성참여 고려
- 모자보건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성생식 보건 향상을 위한 가족 계획을 실시하고 청소년 성문화·조혼 등 사회·문화적 인식과 행동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
- 소아에게 흔한 전염병(홍역, 풍진, 수두, 무균성수막염 등)에 대한 발생 추이를 관찰·예측할 수 있는 감시 체계 지원을 통해 영유아 사망률 감소

### ③ 추진계획

#### (1) 기본방향

- **Greater Accra**지역 및 **Volta**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소 등 지역 내 보건의료시스템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통합적 프로그램을 지원
  - 산전·분만·산후·신생아관리, 소아전염병 감시체계 등을 포함하고 마을단위 기초보건시설(CHPS) 부터 보건소, 지역병원 단계에 이르기 까지 전 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통합지원 프로그램 설계

#### (2) 실행계획

- (관련기관) 원조기관과 국내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
  - 중앙부처 :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등
  - 시행기관 : KOICA, EDCF,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관련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대학원, 질병관리본부, 인구보건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및 간호대학 등

- **(인프라 확충)**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보건소 등 인프라 건설 및 시설 보수
- **(기자재 지원)** 지역 보건소 등 한국이 지원한 의료시설에 필요 의료기자재 제공
- **(역량강화)** 모성 및 영유아 보건관련 의료인력 훈련시 양성평등 고려, 중장기연수, 전문가 파견 및 시설 운영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 **(원조조화)** 보건 워킹그룹의 공식·비공식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정보공유, 정책대화 및 섹터지원전략 마련에 동참
  - \* 가나의 보건 워킹그룹은 매년 2회(4월, 11월) 보건회의(Health Summit)를 개최하며, 연 3회(4월, 8월, 11월) 업무미팅(Business Meeting)을 추가로 개최
- **(분야별 예산지원)** 공여국 보건 워킹그룹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효과적인 원조조화를 위하여 **'14년부터 KOICA를 중심으로 보건부분 분야별 예산지원(budget support) 실시**
  - '11~'13년까지 분야별 예산지원(budget support) 관련 기관별 제도를 정비하고, '14~'15년 2년간 시범으로 예산지원 시행 예정
- **(연계강화)** 관계기관 합동(KOICA, EDCF, 보건복지부, 국제보건의료재단 등)으로 **관련분야 추진전략을 마련**
  - 지역별·기능별 역할 분담 및 기 지원시설에 대한 후속 지원방안 수립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

## <모자보건 강화를 위한 (무상)프로그램 지원계획(안)>

1. 프로그램명 : 가나 지역사회기반 통합 모자보건사업
2. 사업 기간 : '12~'15까지 4년간
3. 사업내용 : Greater Accra 및 Volta 지역의 의료시설 확충(기자재지원 포함), 보건소 및 지역병원 인력 역량강화(조산사 교육 포함), 산잔산후관리 강화, 신생아 관리 및 영유아 응급진료시스템 강화, 성생식보건 향상
4. 단계별 추진계획(1개 sub-district에서 시범사업 실시후 타지역에까지 점진적 확대계획)

### ① 사업 설계 단계('12.1-'12.12)

개요 : 지역사회기반 통합 모자보건사업 설계

- 내용 : ① 사업후보지역 보건의료시스템 평가  
 ② 사업지역 보건의료프로그램 현황 및 이해관계자 분석  
 ③ 최종 사업지역 선정 및 단계적 확대방안 수립  
 ④ 프로그램 내용의 우선순위 결정 및 사업단계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⑤ 모자보건·생식보건 실태, 모자보건, 소아전염병, 의료이용 실태 기초조사  
 ⑥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수립  
 ⑦ 성별분리 통계 구축  
 ⑧ NGOs 및 가나 보건분야 워킹그룹에 참여

### ② 1단계 사업('13.1-'13.12)

개요 : 지역사회조직 및 보건의료시스템 강화 사업

- 내용 : ① 주민조직, 지도자 교육, 생식보건교육 사업 등 지역주민 수요증진 및 참여강화  
 ② 재래식 조산사 교육 및 사업참여  
 ③ 보건요원을 이용한 임신부 및 영유아 등록 사업  
 ④ CHC 및 보건소 인프라 구축 사업(시설, 장비, 운송수단, 교육기자재 등)  
 ⑤ CHPS 및 보건소 인력의 양성 평등한 역량강화 및 성인지적 인식행동 개선교육  
 ⑥ 성별분리 통계 구축 및 활용

### ③ 2단계 사업('14.1-'14.12)

개요 : 지역사회기반 통합모자보건서비스 도입 및 정착 사업

- 내용 : ① 등록 임신부 관리 및 위험도 평가  
 ② 지역사회 기반 생식보건 교육 및 가족계획 서비스 제공  
 ③ CHPS 및 보건소 산전관리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서비스의 질적 제고  
 ④ 안전분만 키트 보급 및 통합 가정분만 서비스 제공  
 ⑤ 전문가에 의한 분만을 향상 및 지리적, 경제적 접근성 향상  
 ⑥ 보건소 분만 역량강화 및 분만 관련 보건의료시스템 강화  
 ⑦ 기초 및 포괄적 모자보건 응급 의료서비스 강화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⑧ 신생아 관리, 산후관리 서비스 강화 (모유수유, 영양관리, 가족계획)

### ④ 3단계 사업('15.1-'15.12)

개요 : 지역사회기반 통합 모자보건사업 지역 확대 및 후송병원 역량강화 사업

- 내용 : ① 사업지역을 4개 Sub-district로 확대  
 ② 후송병원 역량강화 (시설, 장비, 인력 등)  
 ③ 지역 민간의료기관과의 협조 강화 및 지역 정부 보건계획에 참여  
 ④ 사업 최종평가 및 지속성 확보 계획 수립

6. 추진기관 : KOICA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

※ 상기내용은 후보안으로 사업 대상지 및 세부실행계획은 수원국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추후 확정될 예정

## ① 검토배경

- (가나 개발수요) **GSGDA(2010-2013)**는 교육·인적개발 부문을 7대 과제 및 5대 우선 예산지출 분야로 선정
  - 특히 양질의 교육과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은 교육분야 전략 **2003-2015**(ESP: Education Strategic Plan)의 핵심목표
    - \* ESP 2003-2015 교육분야 4대 핵심목표 : ①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② 양질의 교육 제공, ③ 교육 관리 능력 향상, ④ 과학·기술·직업교육 강화
- (교육부문 현황) 높은 초등학교 취학률(2008년 기준 92.5%)로 MDG 2 (보편초등교육) 목표 달성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지역간 학력 및 교육의 질 격차가 심화
  - \* 초등학교 순 취학률: Greater Accra 80.9% vs 북부지역 50% 수준 ('05, USAID)
  - \* 훈련된 초등교사 비율: 평균 59.4% vs 취약지역 37.2% ('07/'08, MoESS)
- (한국의 강점) 높은 수준의 공립 의무교육을 기반으로 우수한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회발전을 달성
  - 휴전 직후 '53년 『의무교육완성 6개년계획(1954 -1959)』을 수립·이행하여 해방 10년내 초등교육의 보편화 달성
  - 이를 바탕으로, 아프리카·아시아지역 등 개발도상국에서 교육환경 개선·교육분야 역량강화와 관련된 성공사례 및 역량 보유



## ② 목표 및 한국의 기여

낙후지역에 기초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기초교육의 질적 향상을 실현을 통해 균형적인 사회 발전 지원

### ○ 가나의 계획(Education Strategic Plan 2010-2020)

- '20년까지 유치원 순취학률(NER) 90%, 초등학교 총취학률(GER) 120%, 중학교 총취학률(GER) 110% 달성
- 농촌 및 소외지역 아동들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교사 파견(9천명)
- '12년까지 초등·중학교 1인 1교과서 보급 및 문해율 60% 달성

### ○ 한국의 기여

- '15년까지 기초교육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및 교사기숙사 등 50동 건립 또는 개보수 실시
- 양질의 교사양성을 통한 기초교육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현직 및 보조교사 재교육 실시

## ③ 추진계획

### (1) 기본방향

- 2015년까지 기초교육 분야의 **MDGs**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초교육 인프라 확충과 역량강화 부문을 동시 지원
- (인프라 확충)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건설, 개보수 실시 및 기지원 사업시설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 제고

- (역량강화)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교사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커리큘럼 자문 등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

\* 가나의 취약요소인 양성불평등 해소를 위해 역량강화사업 추진시 여성참여 고려

## (2) 실행계획

- (관련기관) 원조기관과 국내 유관부처·기관이 합동으로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
  - 중앙부처 :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교육부 등
  - 시행기관 : KOICA, EDCF
  - 관련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국교원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등
- (원조조화) 교육분야 워킹그룹(DFID가 의장)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정보공유, 공여국 합동 정책대화 및 섹터지원전략에 동참
  - 다수 공여국·기관 및 NGO 등에 의한 소규모 프로젝트가 많으므로, 중복이 최소화 되도록 타 공여국·기관과 협력 및 분업
- (연계강화) 관계기관 합동(KOICA, EDCF, 교육부, 여성부 등)으로 관련 분야(안전한 식수 공급, 전력공급, 여교사 양성 등) 추진전략을 마련
  - 지역별·기능별 역할 및 기 지원시설에 대한 후속 지원방안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

## <가나 기초교육환경 개선 프로그램 지원계획(안)>

1. 프로그램명 : 가나 기초교육환경 개선 프로그램
2. 사업 기간 : '12.7~'15.12
3. 사업내용 : Western 지역 및 Volta 지역 기초교육환경 개선
4. 단계별 추진계획

### ① 단계 사업설계('12.7-'12.12)

개요 : 기초교육환경 개선사업 설계

내용 : ① 사업후보지역 기초교육시스템 평가

② 사업지역 기초교육프로그램 현황 및 이해관계자 분석

③ 최종 사업지역 선정 및 단계적 확대방안 수립

④ 프로그램 내용의 도입 우선순위 결정 및 사업단계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⑤ 사업지역 및 대조지역 기초교육시설, 학생취학률, 이수율, 자격보유교사율 등 기초조사

⑥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수립

⑦ NGOs 및 가나 교육분야 워킹그룹에 참여



### ② 단계 사업수행('13.1-'15.12)

개요 : 기초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교 건립 및 개보수, 교사역량강화 사업

내용 : ① 학교 신축 및 교사숙소 신축

② 현직·보조교사의 재교육(성인식 재고 포함) 및 양성 평등한 교사 양성

③ 학습 교보재 등 기자재 지원

④ 성별분리통계 구축

6. 사업지 선정 : Western 지역(타 원조기관의 지원이 비교적 적은 수준)  
Volta지역(기존 학교시설에 대한 개보수 수요가 많아 체계적인  
지원시 원조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

7. 추진기관 : KOICA

※ 상기내용은 후보안으로 사업 대상지 및 세부실행계획은 수원국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추후 확정될 예정

## < 2011-2015 중점분야별 한국의 기여사항(안) >

분야	가나 개발목표(GSGDA)	주요 프로젝트(진행/예정)	예상 기여사항
중 점 분 야	에너지	<p>전력인프라 확충을 통한 생활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p> <p>Vision 2020 : 에너지설비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고 소비전력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여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p>	<p>&lt;인프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비용량 330KV로 증설하여 상시 1,000MVA 전력운반</li> </ul> <p>&lt;역량강화 등&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프라 관련 인력 20명 운영 교육 및 인프라 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li> </ul>
	보건·환경	<p>보건위생 수준 향상을 통한 삶의 질 개선 및 모성과 영유아 사망률 감소를 통한 생산력 향상</p> <p>Vision 2020 : 현재 제한적인 상수도시설을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 공급하여 안전하고 접근용이한 식수공급</p> <p>2013년까지 '08년 대비 신생아 사망률 44% 및 5세미만 영유아 사망률 46%, 모성사망률 30% 수준까지 감소</p>	<p>&lt;인프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수장 : 15,000m<sup>3</sup>/1일 규모</li> <li>- 농촌지역 관정 300개, 공공 위생시설 150개 신규 개발</li> </ul> <p>&lt;기승인 진행사업&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a 상수도 사업</li> <li>- 볼타지역 동·서크라치군 식수위생 개선사업</li> </ul> <p>&lt;승인 예정사업&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볼타지역 식수위생 개선 2차사업</li> <li>- 가나 지역사회기반 통합 모자보건사업</li> </ul> <p>&lt;보건의료 서비스 강화&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 20만명 대상 영유아 및 모성보건 서비스 기반 강화 (지역 보건의료시설 약 20개소 시설 및 장비 지원, 주민 건강관리 시스템, 응급진료 시스템 구축 등)</li> </ul> <p>&lt;역량강화 등&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 부처 및 지역 정부 관계공무원, 지역 보건인력 역량강화 (약 200명)</li> <li>- 지역주민 식수 및 보건위생 역량강화 (약 20만명)</li> <li>-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관련 주민 인식 증진 (약 20만명)</li> <li>- 소아전염병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li> </ul>
	기초교육	<p>기초교육 환경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및 균형적인 사회발전 도모</p> <p>Vision 2020 : 120%의 초등학교 취학률(GER) 달성, 농촌 및 소외지역 아동들의 교육권 보호 및 9천여 명 교사 파견, '12년까지 초등학교 1인 1교과서 보급 및 문자해독률 60% 달성, '20년까지 훈련되지 않은 교사비율을 21.1%까지 감소, '15년까지 교사 결근율 5% 달성</p>	<p>&lt;승인 예정사업&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기초교육환경 개선사업</li> </ul>

## ① 검토배경

- **(개발수요·계획)** 가나는 서부아프리카 역내에서 ICT분야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 중 하나로, 정부는 GPRS-II('06-'09)를 통해 전자정부를 우선 추진분야로 선정하여 추진중
  - 세계은행은 가나정부와 합동으로 **e-가나 프로젝트**('06~'14, 40백만불)를 수행중으로 금융·통신·공공행정 등 **IT기반 국가시스템 지원중**
- **(한국의 강점)** ICT 관련 제조업 뿐만 아니라 전자정부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개도국의 롤모델로 인식됨
  - \* 전자정부 준비지수 1위, 온라인 참여지수 1위('10년 UN 전자정부 평가)

## ② 추진계획

- **(IT 기술이전)** 중점 프로그램 이행에 있어 **IT에 기반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적 역량강화**를 지원
  - 사업계획 수립시 부터 IT를 활용한 행정제도 효율성 향상방안을 검토
- **(전자정부)** 우리의 강점분야인 관세 및 조달시스템, 예산회계 시스템 등 전자정부 및 정부 행정망 사업 등을 지원
  - 인프라사업은 EDCF, KOICA 위주로 지원하되 마스터플랜, 타당성평가 수행 및 사업진행시 부처(행안부, 방통위, 관세청 등) 참여를 보장하여 전문역량을 적극 활용
- **(봉사단·전문가파견 등)** 유·무상 ICT 인프라사업과 연계하여 컴퓨터·인터넷 봉사단, 전문가 파견 및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프로젝트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
- **(정책자문)** KSP 등 정책자문 지원시, **IT 기반 행정서비스**를 접목하여 가나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1

## 초청연수

## ① 중점지원 분야 및 추진방안

- 연간 150명 이상의 초청연수를 추진하고, 모자보건, 상수도, 전력망 및 기초교육분야 등 중점분야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
- 다년간 연수과정(Multi-year training program) 도입, 장기 학위연수, 전공 분야 다양화 및 1인당 연수비용 증액 등을 통해 연수품질을 제고

## ② 초청연수의 효과성 제고

- 가나의 개발과제, 사업발굴 및 사업간 우선순위 등을 공동으로 연구하여 그 결과를 ODA 사업에 활용하는 문제해결형 연수를 도입
  - \* 중점지원 분야별로 가나 공무원 및 관계자를 초청하고, 장기연수를 통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운영
- 연수자가 사전에 연수목표 설정, 연수프로그램 내용구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연수의 효과성을 제고
- 연수자의 역량강화가 기관의 역량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범 기관을 선정하여 종합적·장기적인 연수계획을 수립
  - 과정당 연수기간을 2주 이상으로 확대하여 연수의 효과성 제고

## ③ 연수기관 역량강화

- KOICA를 중심으로 분야별 연수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종합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
- 연수기관별 평가, 분야별 연수사업 전문가 Pool 구축, 연수전문가 육성 등을 통해 연수기관의 역량을 강화

## 2

##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 ① 전문가 파견

- **(지원계획)** 중점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 파견을 통해 가나 현지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완료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 **(지원규모)** 가나의 분야별 수요와 국내 연구기관의 전문가 인력 현황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 '05~'09년간 → 실적 없음, '91/'92년: 2명, 미곡생산 분야 파견.
- **(파견기간)** 6개월 이상 중장기 전문가 파견을 확대하여 수원기관의 자립능력 향상 제고

### ② 해외봉사단 파견 (World Friends Korea)

- **(지원규모)** 해외봉사단파견협정 체결을 전제('11.6월 현재 협정체결 진행중)로 '12~'15년간 총 50여명 신규파견 목표
- **(지원분야)** 중점프로그램 목표달성 및 연계·후속조치를 위한 지원과 함께 빈곤층의 삶의 질 개선 및 인적자원 역량 강화를 위해 보건, 교육, 지역개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

#### < 분야별 지원비중 >

교육	지역 개발	보건 의료	산업 에너지	정보 통신	환경 및 기타
20%	20%	25%	15%	10%	10%

- **(지원전략)** 사업 초기에는 아크라를 중심으로 봉사단원을 파견하되, 점진적으로 봉사활동의 실질적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으로 단원 확대 파견(안전 지역 위주)
- **(파견기간)** 봉사단의 현지 적응 등을 고려하여, 활동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파견계획 수립

### 3

## 개발조사 및 정책자문

### ① 기본방향

- 개발조사 및 정책자문사업 등 가나의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형 원조를 지속적으로 확대

### ② 개발조사

- 개발조사의 활용도 제고 및 중복방지 등을 위해 사전에 국내 원조 기관간 협의를 강화
- 무상 개발조사를 EDCF 본사업으로 연계하는 등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개발조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타공여국과 공동조사 강화
- 초청연수 및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다양한 개발조사 후보사업을 발굴하고, 개발조사에 수원기관을 참여시켜 역량강화를 추진

### ③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 Knowledge Sharing Program)

- 가나 상황에 맞게 우리의 경제발전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험전수 및 자문을 제공
- 재정·금융정책, 기업정책 및 인력양성 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법률 제·개정 및 실행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
- 정책자문 결과가 유·무상 사업으로 연계되도록 후속 지원을 검토하고, 기존에 실시된 자문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



## V. 이행전략

### 1 자원배분 및 조직

- (자원배분) 양자원조 중 최소 **70%** 이상을 중점프로그램에 지원
  - 다만, 가나의 긴급요청 및 사업지연 등 상황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이행점검시('13년) 수정사항 반영
- (조직) 현지 사무소 인력확충, 역량강화를 통해 현장 중심의 **ODA** 추진
  - 현지사무소 인력을 현재 1명(KOICA)에서 2명(EDCF 주재원 1명 추가)으로 확충하고, 현지전문가 채용확대
  - 원조조화 및 타 공여국과의 협력강화를 위해 양 기관이 상호협력

### 2 연계 강화를 통한 원조효과성 제고방안

- (사업간 연계와 시너지효과) 가나 정부와의 정책협의 및 사업발굴 단계에서부터 유관부처 합동으로 관련 사업간 연계가능성을 검토
  - 가나는 서아프리카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자원개발·도로·항만·플랜트·송변전 등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인 바, 국내 기업의 진출 및 PPP 강화를 위해 범 정부차원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강화\*
    - \* 예) 지경부-가나에너지부간 체결한 에너지 분야 포괄적 MOU를 활용하여 유관분야 ODA 활성화
  -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가나 재무부 및 수원기관과 정례적인 정책협의를 실시하고 지원계획을 수립
  - 유·무상 사업간 연계, 개발조사·프로젝트·기술지원간 연계 등 사업간 연계강화를 통해 시너지효과 창출

- **(사후관리 강화)**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이 종료된 사업에 대해 가나와 공동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
  - 사후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일정기간 후에 수원기관이 자립하여 지원을 종료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 확충에 중점
    - 운용·관리 인력에 대한 훈련시 자체적인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역량강화를 통한 자립에 중점
  - 사업의 성격 및 리스크를 감안하여 하자보수 기간(통상 1년)을 적절히 연장하고 하자보수 업체에 대한 요건과 관리감독을 강화
  - 사후관리 지원을 위해 전문가 파견, 봉사단 파견, 초청연수 등을 연계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

### 3 개발 파트너와의 협력전략

#### 1 가나 및 타공여국·기관(G-JAS)과의 협력

- **(원조일치)** 비구속화비율 제고 및 가나 시스템 활용 등 원조 일치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도입
  - '15년까지 가나 국가예산에 보고된 분야에 대한 지원(Budget support)을 시범적으로 실시
    - \* 원조조화 프로그램 참여를 위하여 '14년부터 KOICA를 중심으로 보건부분 분야별 예산지원(budget support) 시범 실시
  - '15년까지 전체 ODA를 국가개발전략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에 지원
  - '15년까지 가나 공공재정관리 시스템 활용비율을 10%로 향상
  - 우선 중점지원 분야에 대해 국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나와 협의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점차적으로 비 중점 분야로 확대

<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이행 목표 >

이행지표		현황 (2010)	2015년 달성목표
원조일치	1. 가나 예산에 통합된 원조 (Budget support)	0%	1%
	2. 우리 지원전략과 가나 국가개발계획과 일치 정도	80%	100%
	3. 가나 공공재정관리(PFM) 시스템 활용	-	10%
	4. 원조의 예측가능성 제고	70%	90%
	5. 원조의 비구속화 확대	-	30%
원조조화	7. 공여국간 공동합의 및 공동절차 활용 (프로그램원조 비율 확대)	0%	5%
	8. 공여국간 공동 분석 (공동 현지조사 및 공동분석연구 등)	-	5%
상호 책임성	9. 상호 공동책임(공동평가 실시)	-	5%

□ (원조조화) 가나 공동지원전략(G-JAS) 및 섹터 워킹그룹에 참여

- 주요 공여국의 최상위 공동지원전략인 제 2차 **G-JAS**(Ghana Joint Assistant Strategy)\*에 정식 멤버로 참여하여 공여국간 원조조화 제고에 기여
  - \* 1차 G-JAS : '07년 수립되어 '10년 말 종료. 현재 제 2차 G-JAS(Compact로 진행될 예정) 수립중, 연내 완료를 목표로 가나정부 및 원조파트너간 협의 중
- 보건, 식수, 전력, 교육 분야 등 한국의 중점 지원 섹터를 중심으로 공여국 간 섹터미팅에 정기적 참여
  - '15년까지 주요 공여국과의 공동현지조사 및 분석연구 참여 비중을 5%로 제고
- 타 공여국과의 원조조화 강화\*를 위해 현지 사무소 인력을 확충하고, 필요시 중점 분야별로 상주 전문가를 파견

## 2차 G-JAS 수립 현황

◆ 가나 공동 지원전략(**G-JAS: Ghana Joint Assistance Strategy**)은 가나 내 원조 공여국간 가나의 성장 및 빈곤감소전략(GPRS II)의 목표달성 및 원조조화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작성된 지원전략임. 동 전략은 원조 공여국들이 4년을 주기로 갱신하고 있으며, 1차 G-JAS는 2007-2010년간 지속되었음. 동 지원계획에는 영국, World Bank, 덴마크 등 총 16개 공여국·기관이 공동 서명

◆ '11년 8월 현재 2차 **G-JAS** 수립을 위한 **Task Force** 팀(**DANIDA, JICA, CIDA, EU, GTZ** 등)이 구성

◆ 2차 **G-JAS** 수립 진행 현황

(1) 참여주체 : 1차 **G-JAS**는 공여국만이 참여하였으나, 2차 **G-JAS**는 협력대상국의 주인의식 제고를 위하여 공여국 및 가나 정부가 함께 공동 이행사항을 도출하고, 공동 서명을 독려하는 '**DP-GOG 간 협정(Compact)**' 형식으로 제안되고 있음

(2) 문서 형식 : 2차 G-JAS는 가나 개발환경 등의 분석 및 이행전략 파트로 구분될 예정이며, 공여국 및 가나 정부 양측이 가나 개발의 핵심의제에 대한 **commitment**를 진행할 예정

(3) 진행 일정 : '11. 6월 워크숍 실시 후 현재 2차 G-JAS 초안 작성중으로 '11년 연내 합의를 목표로 가나정부와 공여국·기관간 협의 진행중

(4) 기타 : 현재 가나의 주요 공여국·기관들은 한국, 인도, 브리질, 중국 등 타 신흥 공여국들의 2차 G-JAS 공동성명을 위하여 금번 G-JAS의 Framework를 보다 포괄적으로 구성하고자 함

<참고 : 2007-2010 G-JAS 기간 동안 DP Mapping >

	Canada	Denmark	EC	France	Germany	Italy	Japan	Netherlands	Spain	Switzerland	UK	USA	AfDB	IFAD	UN	WB
Pillar 1																
PSD/Trade			SBS	α							Pooled fund					Pooled fund, ©
Agriculture	Increase SBS, α		SBS	Toward SWAp, ©							Silent					Toward SWAp
Environment/NRM (Land & Forestry)	Cross-cutting, α			©	Phasing out			Toward SWAp			With others					
Transport			α		Phasing out						Exit by 2007					
Energy										α						
Urban Dev																CAW
Pillar 2																
Health								α			Silent				©	
HIV/AIDS											Pooled fund	α				Pooled fund
Education					Phasing out			Silent			SBS	©			α	
WSS	Exit by 2014 ?		SBS ©	Toward SWAp, α	Phasing out			With others			delegate d funding	Exit by 2009				©
Pillar 3																
PFM					Phasing in						α					
PSR								Being discussed			Pooled fund, α					Pooled fund
Decentralisation	pooled / SBS, ©	α	SBS													
Other Governance (incl M&E)					Being discussed						α + ©					A
Gender Equality	Cross-cutting, ©				Cross cutting			Cross cutting			©	Cross cutting	Cross cutting	Cross cutting	α	Cross cutting
MOBS	GBS	GBS	GBS	GBS, α	GBS, ©		GBS	GBS		GBS	GBS		GBS			DPL A

GBS = general budget support

SBS = sector budget support

α = DP sector lead

© = DP sector co-lead

## 2

## NGO 및 기업과의 협력

### □ NGO 및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 가나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ODA에 대한 홍보를 강화
- 가나 ODA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가나에서 수행중인 정부의 ODA 활동뿐만 아니라 NGO 및 기업의 원조활동 정보를 공유
- 현지에서 활동중인 NGO 및 지역전문가 인력 Pool을 구축

### □ 정부기관, 대학 및 연구소, NGO, 기업 등 ODA 참여기관의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 기관간 인적교류 확대, 분야별 전문영역 구축, 해외 민간단체와 공동 프로젝트 시행 등을 통한 역량 강화
- 대사관 중심으로 정부기관 및 NGO·기업이 함께 모여 공동사업 발굴 및 협력을 위한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

### □ PPP 사업 확대

- '12년까지 민관협력 시범사업을 발굴·시행하고 성과를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 글로벌 인프라펀드 등 민간부문의 참여 및 EDCF와의 연계를 추진

### □ NGO 및 기업의 ODA 역량강화 지원

- 가나 현지 NGO의 역량강화 및 기업의 참여제고를 위해 ODA 교육 및 봉사단 파견 등의 지원을 확대
- 정부의 ODA 사업 및 NGO 사업에 대한 평가시 공동참여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NGO와의 연계사업 발굴 및 NGO의 역량강화도 추진

## VI. 성과관리 방안

### 1 모니터링

- (통합 모니터링) 투입 및 성과의 적시성 있는 진도관리를 위해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 현행 통계시스템을 바탕으로 ODA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ODA 사업을 등록
  - 사업별 진도, 예산집행, 현지여건 변화 등 추진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
  - '현지사무소-가나 정부'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회의를 정례화하여 정보를 공유
- (위험관리) 중점분야별로 체계적인 리스크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내·외부의 위험요인 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필요시 전략을 수정
  - 현지사무소의 실시간 모니터링, 양자대화 및 공여국회의 참석을 통해 위험요인 발생 여부를 적시에 확인

#### < 리스크 매트릭스(예) >

위험요인	관리방안
1. 거시경제환경 악화	· 경제환경변화를 실시간 반영한 원조예산 조정 및 적시 투입 · 개별사업 일정조정을 통한 효과적 사업관리
2. 공공부문 부패 등 비효율적 거버넌스	· 사업진행의 투명성 지속 모니터링 · 부패방지법 관련 제도확충-공공부문 역량강화 지원 확대
3. 사회 및 환경문제 심화	· 사업수행시 사회·환경영향평가 지원 · 소외계층·지역 대상 지원 프로그램 발굴
4. 한국내 공여기관간 통합 결여	· 부처간 통합 CPS 작성, 공동 정책협의, 연계사업 강화를 통해 통합된 ODA 시스템 구축
5. 공여국간 협력 약화	· 현지인력 증원을 통한 공여국 대화채널 참여 확대 · CPS 공개를 통한 효과적 원조분업 및 재원배분

### ① 사업 및 프로그램 평가

- (실적평가) 사업 시행기관별로 사업 종료 전후에 해당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
  - 시행기관 자체적으로 추진하되, 대형사업이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통합평가를 실시
- (사후평가) 사업종료 후 일정기간(2-3년) 경과 후 해당사업의 효과 및 영향력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
  - 대형사업 또는 중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제3자가 수행하는 외부평가를 실시
  - 정량적인 평가를 위해 사업선정 단계부터 기대되는 산출(output), 결과(outcome), 효과(impact)에 대한 평가지표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계
- (주제별평가) 모니터링, 실적평가 및 사후평가지 젠더, 인권, 환경 등 범 분야에 대한 평가를 포함
  - 필요시 해당 범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개별적으로 추진
- (가나의 참여 제고) 평가시 가나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견 반영 및 평가결과를 공유



## ② 국별협력전략 평가

- (목적) 국별협력전략의 주요 분야별 목표달성 여부 및 기여도를 평가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차기 전략 수립시 반영
- (평가시기) '13년에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15년에 종료평가를 실시
  - 이행보고서('13년) : 해외사무소와 합동으로 중간 이행점검을 통해 필요시 전략수정 및 목표 재정립
  - 종료평가('15년) : 관계기관 합동으로 국별협력전략 종료 6개월 이전에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차기전략에 반영
- (평가방식) 중점분야별로 '결과-지표-출발점-목표-검증수단'을 반영한 '결과 평가틀'(Result Framework)을 수립하고, 목표 대비 달성현황을 정량적/정성적으로 측정
- (평가내용) 사업평가, 정책평가 및 주제별평가를 실시
  - 사업평가 : 국별협력전략 기간 중 수행한 전체 사업의 과정 및 영향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집계·분석
  - 정책평가 : 국별협력전략 및 그에 따른 성과를 DAC의 5대 평가 지표\*에 기반하여 평가
    - \* 주인의식, 원조일치, 원조조화, 결과지향, 상호책임
  - 주제별평가 :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젠더, 인권, 환경 등 주요 범분야에 대해 평가를 실시
- (환류계획) 개별사업 및 국별협력전략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

## Ⅶ. 가나 ODA관련 고려사항

---

### □ 타 공여국 및 공여기관과의 협력

- 가나 ODA 원조를 주도하고 있는 가나 공동지원전략(**G-JAS**) 모임에 직접 참여하여 공여국 간 지원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공여기관간 연계를 통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
- 특히 타공여국·기관과의 협력과정에서 선진국형 원조인 프로그램형 원조, 수원국 예산에 통합된 원조(Budget Support)관련 경험·노하우 도입 및 적용

### □ 유무상 연계 시범사업

- 가나 송전망 사업 및 상수도 사업이 'EDCF 인프라 + KOICA 역량 강화 및 사후관리' 연계모델의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는 바, 성공적인 사업 수행으로 타 수원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 □ 정치세력(여당·야당)간 갈등

- 가나는 '00년, '08년 두 차례의 민주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국가로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있으나, 여당(NDC)-야당(NPP)간 갈등이 잠재
  - 타 아프리카지역의 사업수행에 비해 여·야간 합의도출과정에서 사업중단·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다 체계적인 사전조사 및 계획수립이 필요

## VIII. 전망 및 2016-2020 계획

- '20년까지 가나가 1인당 GNI 996달러 이상\*의 중소득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15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됨

\* 세계은행의 기준으로 가나는 1인당 GNI 995달러 이하의 저소득국('09년)임

- 가나 동반성장 개발계획(GSGDA 2010~2013) 및 한국의 對가나 1차 CPS의 성과와 추후 가나 국가개발전략의 목표를 고려하여, '15년에 2차 CPS를 수립

- 최근 활발해진 자원개발(석유 및 가스)을 기반으로 향후 급속한 산업화 달성 가능

- '15년 이후에는 민간부문 경쟁력 강화 등 거시경제의 안정화를 위한 지원강화와 더불어 인적개발, 고용 등 취약한 사회분야에 대한 지원을 병행할 필요

-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구의 급격한 도시 유입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15년 이후에는 도시계획수립 등의 **Master Plan** 수립지원 및 신도시 지역에 환경오염 관련시설(하수도 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공여국 및 기관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규범을 준수하려는 노력 필요

- 정부의 역량 및 시스템이 비교적 잘 정비된 가나의 상황을 고려하여, ODA 지원 시 가나 정부시스템 활용 비율을 향상하는 등 원조일치 제고에 보다 노력할 필요

[참고1] 가나 주요 사회·개발 지표

지 표	수치 (기준연도)	지 표	수치 (기준연도)
평균수명	남성 56세(08) 여성 58세(08)	농경지 비율	65.3%(07)
성인 출산율 (1,000명중)	32명(08)	산림지역	52,862Km <sup>2</sup> (07)
청소년 출산율(1,000명중)	13명(08)	도로포장률	15%(05)
5세미만 유아사망율(1000명중)	69명(09)	위생수 접근율	13%(08)
초등교육 제공비율	105%(08)	1인당 에너지 소비량(석유환산)	415kg(07)
초등교육 여/남 비율	99%(08)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0.4 메트릭톤(07)
초등교육 교사1인당 학생 비율	32명(08)	1인당 전기소비량	259kWh(07)
피임보급율 (15-49세 여성)	24%(08)	개업 준비기간	12일(09)
홍역예방비율 (12-23개월 영아)	93%(09)	군비지출(GDP대비)	0.7%(09)
HIV 감염율 (15-49세)	2%(07)	고기술 수출비중 (수출제조업 중)	1.0%(08)
이동통신 가입자(100명중)	50명(08)	인터넷 사용자(100명중)	4.3명(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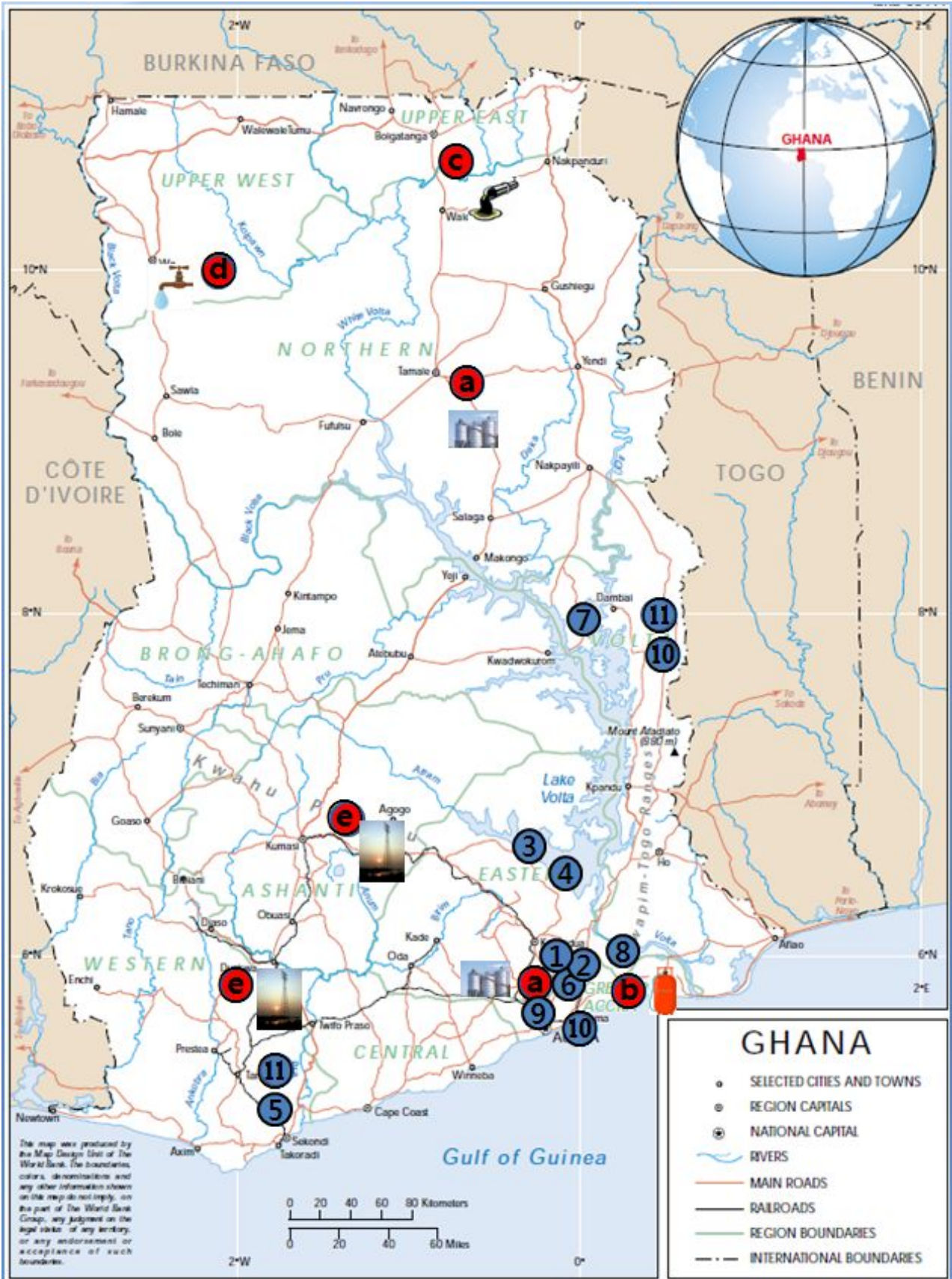
\* 출처 :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2011)

[참고2] 가나 주요 경제지표(최근 5년간)

	경제지표	단위	2006	2007	2008	2009 <sup>e</sup>	2010 <sup>f</sup>
국내경제	GDP	억달러	127	150	167	155	181
	1인당 GDP	달러	567	655	717	651	757
	경제성장률	%	6.4	5.7	7.3	4.0	5.4
	산업생산증가율	%	..	..	..	..	..
	국내총투자/GDP	%	30.4	33.8	35.9	30.1	34.9
	실업률	%	..	..	..	..	..
	재정수지/GDP	%	-7.5	-9.2	-14.5	-9.7	-8.6
	소비자물가상승률	%	11.7	12.7	18.1	16.0	13.5
대외거래	환율 (달러당, 연중)	GHC	0.92	0.94	1.06	1.41	1.43
	경상수지	백만달러	-1,043	-2,151	-3,543	-1,441	-1,490
	경상수지/GDP	%	-8.2	-14.3	-21.2	-9.3	-8.1
	상품수지	백만달러	-3,027	-3,894	-4,999	-2,721	-2,508
	상품수지/GDP	%	-23.8	-26.0	-29.9	-17.6	-13.6
	수출	백만달러	3,727	4,172	5,270	5,715	6,972
	수입	"	6,754	8,066	10,269	8,437	9,480
	서비스수지	"	-137	-162	-497	-536	-685
	수입 (Credit)	"	..	..	..	..	..
	지급 (Debit)	"	..	..	..	..	..
	자본수지	"	1,321	2,403	2,343	..	..
	FDI 순유입	"	..	..	..	..	..
외채현황	외환보유액	"	2,268	2,808	2,028	2,450	3,150
	총외채잔액	"	3,197	4,479	5,056	5,634	6,513
	단기외채	"	1,143	1,265	..	..	..
	총외채잔액/GDP	%	25.2	29.9	30.3	36.3	35.4
	외채상환액/총수출	%	4.9	3.1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2010 세계국가편람

[참고3] 가나 한국 ODA 사업지역 지도



\* 지도출처 : World Bank

## □ 사업지 설명

### [KOICA : 파란색 숫자로 표기]

#### □ 기지원 사업지역(1991-2010)

- ① 테마병원 현대화 지원사업('03/30만불) Tema시
- ② 외교부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사업('07-'08/150만불) 아크라
- ③ 동부지역 기초교육환경 개선사업('08-'11/300만불) Kwahu North, Fanteakwa District
- ④ 동부지역 아동 및 모성사망율 감소지원사업('08-'09/200만불) 동부지역 3개군 (Kwahu-West, Upper Manya Krobo, Yilo Krobo)
- ⑤ 아한타웨스트 지역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사업('09-'10/150만불) 아한타웨스트
- ⑤ 아한타웨스트 지역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2차사업('10-'11/100만불) 아한타웨스트
- ⑥ 아크라 직업훈련센터 재건사업('10-'11/200만불) 아크라

#### □ 사업(예정)지역(2011-2015)

- ⑦ 가나 볼타지역 동서크라치군 식수위생 개선사업 (2011-2013) 볼타
- ⑧ 가나 Dawhenya지역 농촌 종합개발 사업 (2011-2013) 다웨냐
- ⑨ 가나 통계청 인적역량 강화사업 (2011-2012) 아크라
- ⑩ 가나 지역사회기반 통합 모자보건 사업(2012-2015) 아크라 및 볼타
- ⑪ 가나 기초교육환경 개선 프로그램(2012-2015) 웨스턴 및 볼타

### [EDCF : 빨간색 알파벳으로 표기]

#### □ 기지원 사업지역(1990-2000)

- ㉠ 정유제품저장소 건립사업('90-'94/13백만불) Accra, Juapong, Tamale
- ㉡ LPG용기 제조공장 건립사업('94-'98/8백만불),Tema
- ㉢ Buipe-Bolgatanga간 송유관(265Km) 건설사업('00-'05/38.2백만불)

#### □ 기승인 진행사업 지역(2011-2015)

- ㉣ Wa지역 상수도 건설사업(55.5백만불)
- ㉤ Kumasi-Prestea구간 330KV 송변전망 구축사업(67백만불)

---

# 솔로몬군도 협력전략 2011-2015

## Solomon Island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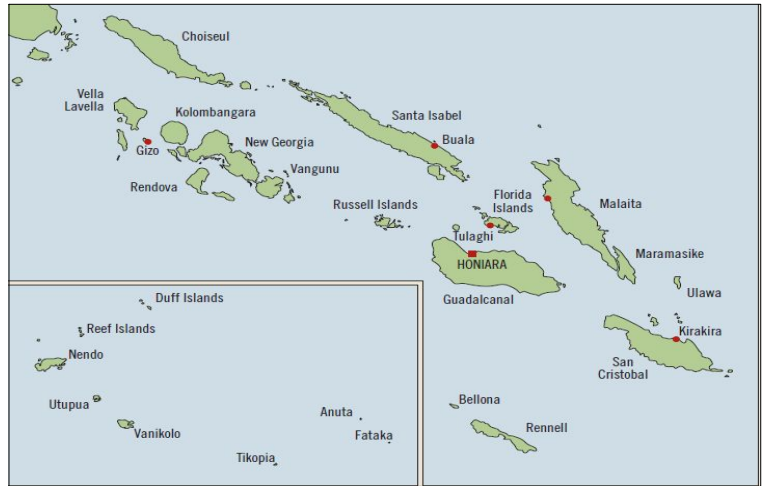


### 관계부처 합동

본 전략은 솔로몬군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하에 작성되었으며, 국내 및 솔로몬군도 현지의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 솔로몬군도 주요개황

국 명	솔로몬군도(Solomon Islands)		
위 치	태평양 남서부(오세아니아 남태평양의 파푸아뉴기니 동쪽)		
수도/주요 행정구역	호니아라(Honiara, 7만명), 말라이타(Malaita, 14만명), 과달카날(Guadalcanal, 9만명), 웨스턴(Western, 8만명), 마키라(Makira, 4만명) 등 총 9개 행정지역		
기 후	열대성 기후, 평균기온 22~28℃(우기 11~4월, 건기 5~10월)		
인 종	멜라네시아인(93%), 폴리네시아인(4%), 마이크로네시아인(1.5%), 중국계, 유럽계		
면 적	28,450km <sup>2</sup> (한반도의 1/8)	GDP	6.7억 달러(2010년)
인 구	약 56만 명(2010년)	1인당 GDP	1,340달러(2010년)
정치체제 (정부형태)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	통화단위	솔로몬군도 달러(SBD)
종교	기독교(95%, 영국성공회 1/3이상, 카톨릭 19%, 복음주의 17%)	언 어	영어(공용어이나 전체인구의 1~2%만 사용), 피진어 대부분 사용, 지방언어 63종



# 목 차

I. 솔로몬군도의 개발환경 .....	132
1. 솔로몬군도의 주요 특성 .....	133
2. 국제사회의 원조현황 .....	139
II. 솔로몬군도 국가개발전략 및 분석 .....	144
1. 솔로몬군도 국가개발전략 .....	144
2. 종합분석 .....	146
III. 한국의 對 솔로몬군도 지원현황 .....	147
IV. 한국의 對 솔로몬군도 협력전략 .....	149
1. 對 솔로몬군도 협력의 기본방향 .....	149
2. 중점 협력분야 .....	153
3. 연수 및 기술협력 .....	163
V. 이행전략 .....	166
1. 예산 및 조직 .....	166
2. 원조효과성 제고방안 .....	167
3. 솔로몬군도 및 타개발파트너와 협력전략 .....	168

## 목 차

VI.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성과관리 방안 ..... 169

VII. 솔로몬군도 ODA관련 고려사항 및 향후 전망 ..... 170

[참고1] 솔로몬군도 주요 경제지표

[참고2] 솔로몬군도 주요 사회개발 지표

- ◇ 솔로몬군도 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은 2011-2015년 한국 정부의 對 솔로몬군도 최상위 공적개발원조 계획으로서 솔로몬군도에 대한 원조의 정책방향과 기본 틀을 제공함
- ◇ 동 전략은 솔로몬군도의 국민연합 정부 정책성명(NCRA)과 국가 개발계획(NDS)의 성공적인 수행에 협력·기여함으로써, 솔로몬군도의 균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과 빈곤 감소에 공헌하고 양국 간 우호와 교류협력을 증진하고자 함
- ◇ 동 전략은 솔로몬군도의 개발전략에 대한 상호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솔로몬군도의 개발수요를 바탕으로 한국의 발전경험과 비교우위를 연계함으로써 원조효과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둠
- ◇ 한국은 OECD DAC 회원국으로서, 국제적인 ODA 권고사항을 솔로몬군도의 협력전략에 충실히 반영하고자 함
- ◇ 동 전략을 통해, 국내적으로 다양한 원조기관 간 연계와 역할분담을 강화하고, 국제적으로 타 공여국과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고 원조 분절화를 극복하고자 함
- ◇ 동 전략은 솔로몬군도의 대내외적 여건변화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임



## I. 솔로몬군도의 개발환경

- **197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이후, 유럽과 원주민의 이질적인 문화 차이와 1000여개로 흩어져 있는 섬내 종족 간 잦은 갈등으로 치안불안**
  - 과달카날계 부족(본토 섬)과 말라이타계 부족(본토 밖의 주변 섬) 간의 대립과 갈등 지속
  - 잦은 분쟁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호주를 주축으로 구성된 **RAMSI\***로 치안 유지
    - \* Regional Assistance Mission to Solomon Islands는 솔로몬군도의 치안안정과 경제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호주 등 태평양제도포럼(PIF)의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임무단(2003년 창설)
  
- 내전에 따른 심각한 부패, 법 집행력 약화 등 행정제도 전반이 미비하고 **제도적인 역량이 부족**
  - \* World Bank의 국가정책 및 제도평가(CPIA) 기준에 의한 저소득 취약국
  - 2010년 8월 총선 후, Danny Philip 총리가 취임하는 과정에서 여야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정치불안이 지속**
    - \* 2010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는 180개국 가운데 110위
  
- 사회 전 분야에 **빈곤이 만연하며**, 태평양 도서국 중 파푸아뉴기니에 이어 **1인당 GDP가 가장 낮은 수준**
  - \* 2010년 1인당 GDP는 US\$ 1,340
  - 국민의 80%가 기초 **사회보장 서비스로부터 소외되어** 있으며, 절대 빈곤계층, 빈곤격차율 등에 대한 통계자료가 부재
  - 2003년 이후 원목, 수산물 등 주요 품목의 국제가격 상승과 수출 증대로 경제가 성장세를 보였으나, 2009년 이후 세계경제 침체로 무역수지 악화와 산림자원 고갈로 거시환경이 불투명



# 1 솔로몬군도의 주요 특성

## 1. 경제현황 및 전망

□ 농림어업 분야에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종사하고 있으며, 동산업이 **GDP의 절반 이상(55.6%)**을 차지

\* GDP 성장률(%) : ('07) 10.7 → ('08) 7.3 → ('09) ▼2.2 →('10) 3.4

○ 수도인 호니아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현금 경제와는 거리가 먼 자급자족형 생활을 유지

○ **1차상품 수출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기반이 미비**

\* 원목, 수산물, 야자유가 주요 수출품목으로 전체의 75% 차지

□ 원조에 대한 높은 의존도(국민 총소득의 40%), 열악한 투자여건, 과도한 부채 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

\* 2009년 기준, ODA/GNI 비중이 42%차지(OECD/DAC통계)

○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 문제 등 제도적인 여건 미비와 종족간 갈등으로 인해 투자 환경이 열악

\* 전체 토지의 약 90%가 “관습지(customary land)”로서 부족과 씨족의 공동 소유

○ 다만, 최근 지출통제, 공공재무 관리 강화 등 정부의 재정개혁 추진으로 외국인 직접투자(FDI)와 원조유입이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

\* FDI(\$US, m) : ('06) 6 → ('07) 11 → ('08) 13 →('10) 16

□ 산림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의 다변화를 위하여 수산업, 광업 및 관광업 분야 등에 대한 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민간 투자가 확대될 전망

○ 수산업은 제 2의 수출 분야로, 일본, 중국, 대만 등의 투자가 활발하며, 솔로몬 군도 정부도 어업개발 정책을 적극 추진 중

○ 내전 후 중단된 금광생산이 재개될 예정으로, FDI도 증가할 전망

○ 공항, 도로 등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관광분야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나, 최근 방문객은 증가 추세

\* 2009년 방문자 수(19,440명/2008년 대비 11%↑), 호주인 49%, 뉴질랜드인 8%

## 2. 빈곤 현황

- 낮은 소득수준과 높은 실업률 등 만성적인 빈곤이 지속되는 상황
  - 전체인구의 **11%**는 최소한의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3%**는 기초적인 욕구(음식, 주거, 교통, 교육 등)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197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이후 부족 간 분쟁으로 기초 인프라와 사회서비스 시설이 파괴되어 빈곤층이 더욱 확산
  - 낮은 경제성장률에 비해 인구증가율이 높은 상황이며 보건·교육 등 기초 사회서비스가 취약
    - \* 인구증가율(1987~2007)은 평균 3.1%, 동기간 경제성장률은 평균 2.5%
- 계층·지역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도시빈곤 등 새로운 형태의 빈곤문제가 대두
  - \* 2005-2006 지니계수 0.39로 평균 수준(파푸아뉴기니 0.5)
  - 자연재해와 종족간 분쟁, 실업 등으로 인한 인구 이동으로 빈곤층이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 상대적 빈곤율도 상승
    - \* 1999년 통계에 의하면, 주민 6명 중 1명의 비율이 출생지가 아닌 지역에 거주
  - 전체 주민의 약 80%이상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수도 호니아라와 그 외 지역 간 경제적·사회적 발전 격차가 큰 상황
  - 수도 호니아라 인구유입에 따라 도시빈민이 증가하고 있으며, 섬간 지리적으로 고립된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교통, 통신시설이 미비
    - \* 전체 1,500Km 중 40Km만이 포장된 도로이며, 이중 대부분이 수도인 호니아라에 집중

### 3. 보건의료 현황

- 영·유아 및 아동 사망률, 산모 사망률, 말라리아, HIV 등 전염성 및 비 전염성 질병의 사망률이 높음
  - 말라리아 환자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결핵 완치율 등 관련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암,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 비 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증가 추세
- 의료 서비스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취약
  - 전반적인 의료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전체 의료인력의 40%가 호니아라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체 의사의 65%가 국립병원에 집중
  - 보건의료부는 국제사회의 원조를 통해 Health Sector Support Program 2008-2015(HSSP)을 실시하여, 보건상황을 개선하고자 노력 중
    - 호주(AusAID)는 전체 솔로몬군도 보건의료 예산의 40%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에 대만, 일본, UNICEF, 세계은행, EU에서 지원
    - \* 국립병원은 대만의 지원으로 2007년도 건립 완성

#### < 솔로몬군도 의료체계 >

Level	권한	기관	수	주요담당 인력
6	국립	National Referral Hospital	1	전문, 일반의사, 간호사, Paramedics(의료보조)
5	지방	Provincial Hospital	9	일반의사, 간호사, Paramedics(의료보조)
4	지역협의체 (Area Council)	Area Health Center	37	Assistant Nursing, 간호사, Nurse aid
3	구(wards)	Rural Health Clinics	103	간호사, Nurse aid
1~2	구(wards)	Nurse Aid Posts, AID Posts	185	Nurse aid, Village Health Workers
전체 의료시설			335	

자료 : MHMS(2010), 2010년 31개 clinic이 문을 닫아 총 294개의 clinic은 영 중

#### 4. 인적자원 개발

-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미비하여 태평양 지역 내에서도 인간개발 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가 현저히 낮은 상황
  - \* 2010년 HDI지수 0.494, 169개국 중 123위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균(0.650)보다 낮음
- 인구 증가율이 높고 청소년 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실업 문제가 악화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 안정을 위해 인적자원 개발이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
  - \* 15세 이하 인구비율이 전체의 41%로, 노동인구의 75%가 젊은 계층으로 노동인력은 풍부
- 초등교육 보편화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등록률에 비해 이수율이 낮은 편이며, 고숙련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미약
  - 숙련 노동인력의 부족과 미숙련 인력의 공급과잉으로 도시지역의 실업률이 높음

#### 5. 법적·제도적 역량강화

- 내전으로 인한 정부 시스템 붕괴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불안정 지속
  - 정부시스템의 투명성과 행정능력 강화 등 적절한 개선이 필요
- 전반적인 정부역량 부족, 부패확산 등으로 정부 주도의 개발전략 수립이 어려운 상황
  - 특히, ODA를 총괄·기획하는 개발원조기획부(Ministry of Development Planning & Aid Coordination)의 역량이 부족
  - ODA 예산체계가 미비하고, 개발원조기획부와 재정부간의 ODA 예산집행을 위한 조정이 미흡
  - ODA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고 원조규모의 변동 폭도 커, 국가 재정에 대한 예측이 힘들어 장기적인 원조사업 추진에 차질

## 6. 환경문제

- 풍부한 산림·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환경관련 제도 및 기초 인프라가 미비**
  - 산림자원 고갈과 **황폐화**, 높은 산림 **벌채율**, 이동·화전농업, steep-slope 농법 등 부적절한 토지이용 관행으로 토양유실
  - 잦은 태풍, 지진, 화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에 취약
  -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이 악화**되고 있으며, 무분별한 연안 조업으로 **해양자원이 고갈**

## 7. 양성평등

- 여성의 **중등교육 기관 등록률, 문자해독율, 정치참여율,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이 전반적으로 **낮은수준**
  - \* 남아 對 여아 중등 등록률 84%, 15세 이상 문자해독율 남 88%, 여 79%, 국회 여성 의석수 0
  - 특히, **여성 국회의원이 전무**하고, 여성의 **정치 의사결정 참여율이 저조**
  - 어린 시절 **성적학대**, 불량조직의 **집단강간**, **별목 및 수산업 분야** 외국계 혹은 지역 회사 종사자에 의한 성적 착취도 빈번
- 솔로몬군도 정부는 **성 평등과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결의를 천명 하였으나, 관련 전략의 실행이 미흡한 상황

## 8. MDGs 성과

- **절대빈곤 계층** 관련 통계자료의 부재로 정확한 개선의 정도를 알 수 없으나, 전반적으로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인간개발지수(HDI)**의 개선이 부진하고, **MDGs 목표5(모성보건)**의 100,000명당 모성사망률과 **목표7(지속가능한 환경)**의 국가보호 구역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이미 달성

**< 솔로몬군도 새천년 개발목표(MDGs) 달성현황 >**

구분	과제	진행상황				상태
		1991	2000	2007/8	2015 목표	
<b>목표 1</b>	<b>절대빈곤과 기아문제 퇴치</b>					
세부목표	·5세 이하 영양부족 인구비율(%)	23	21	-	11	절반달성
<b>목표 2</b>	<b>보편적 초등교육 달성</b>					
세부목표	·초등학교 등록률(%)	83	74	80	100	달성가능
<b>목표 3</b>	<b>양성평등 실현</b>					
①세부목표	·초등학교에서 남아 대 여아 비율(%)	0.87	0.94	0.97	1.0	달성가능
②세부목표	·중학교에서 남아 대 여아 비율(%)	0.61	0.79	0.84	1.0	달성가능
③세부목표	·국회에서 여성의 의석점유율(%)	0	2	0	-	n/a
<b>목표 4</b>	<b>아동 사망률 감소</b>					
①세부목표	·1000명당 5세 이하 아동사망률	38.2	36.9	35.9	12.6	달성불확실
②세부목표	·1000명당 영아사망률	31	30	30	10.2	달성불확실
<b>목표 5</b>	<b>모성 보건 증진</b>					
①세부목표	·100,000명당 모성사망률	130	110	100	32.5	이미달성
②세부목표	·전문 보건의 조력으로 출산율(%)	85	85	86 (2009)	92	달성가능
<b>목표 6</b>	<b>HIV/AIDS, 말라리아 및 각종 질병 퇴치</b>					
①세부목표	·100,000명당 말라리아 발병자 수	45,000	15,172	8000명 이하	0	진전
②세부목표	·100,000명당 결핵 발병자 수	310	180	120	0	진전
<b>목표 7</b>	<b>지속가능한 환경 확보</b>					
①세부목표	·총 국토면적 중 산림면적(%)	98.9	84.7	77.6	-	달성어려움
②세부목표	·국가보호 구역(%)	0.01	0.12	0.17	-	이미달성
③세부목표	·이산화탄소 배출량(1인당 톤)	0.5	0.39	0.39	-	이미달성
④세부목표	·향상된 식수에 대한 접근(%)	-	70	70	-	달성불확실
⑤세부목표	·향상된 위생에 대한 접근(%)	-	31	32	-	달성불확실
<b>목표 8</b>	<b>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b>					
①세부목표	·100명당 고정회선(명)	1.49	1.85	1.57	-	n/a
②세부목표	·100명당 휴대폰 가입(명)	0	0.28	5.87	-	n/a
③세부목표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명)	0	0.48	1.96	-	n/a

자료: IMF(2009), ADB(2005), MDGs Report(2010), UN Stats (2010), WB(2010)

## 2 국제사회의 원조현황

### 1. 솔로몬군도의 수원 현황

□ 소수 공여국에 원조의존도가 높고, 원조 분절화 정도가 커서 공여국 간 원조분업 및 조정이 필요

\* 주요 공여국의 원조비중은 호주 81%, 뉴질랜드 8%, 일본 5% 순

\* 솔로몬군도(206백만불, '09)는 PNG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지원(전체의 13%)

○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내전으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불안, 정부 정책의 운용 실패로 공여국의 원조가 70% 감소

○ 2007년 4월, 지진해일로 인도적 지원이 증가하였고 부분별 예산 지원(Sectoral budget support)도 증가 추세

○ 사회 인프라 분야에 대한 지원 비율이 전체의 약 75%차지

#### < 솔로몬군도 총 ODA 규모(2006-2009)>

구 분	2006	2007	2008	2009
순 ODA 총액(백만불)	205	246	224	206
총 ODA 중 양자간 비중(%)	88%	95%	97%	96%
순 ODA/GNI 비중(%)	44.4%	46.7%	35.1%	42.8%
순수 민간자본 흐름(백만불)	10	5	40	0

자료: OECD/DAC 통계

□ 주요 공여국인 호주와 뉴질랜드는 지역 내의 안보환경과 안정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태평양 개발협력 파트너십(Pacific Partnership for Development) 체결

○ 일본은 기본적인 욕구충족을 위한 사회 인프라 구축 지원

○ 대만은 농업기술 부문과, 국립병원 건립, 봉사단 파견 등 지원

#### <대 솔로몬군도 10대 공여국(기관)>

(단위: 2007-2008년 평균, 백만달러)

순위	국가	총 지원액	순위	국가	총 지원액
1	호주	193.8	6	캐나다	0.6
2	뉴질랜드	19.8	7	UNTA	0.5
3	일본	12.4	8	이탈리아	0.3
4	AsDF	6.2	9	한국	0.3
5	EC	5.2	10	영국	0.3

자료: OECD/DAC 통계

## 2. 호주의 지원동향

- 지정학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오세아니아 국가를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RAMSI**를 통해 평화구축 지원
  - 해상운송의 요충지이며 어업자원이 풍부한 동 지역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감소하기 위해 환경 취약국적 입장에서 ODA 추진
  - 호주 주도로, 2003년 솔로몬군도의 평화구축을 위해 **RAMSI**를 설립하고 행정 및 질서유지를 위한 거버넌스 지원
  - 2008년 Port Moresby Declaration, **2009년 솔로몬군도 정부와 개발 파트너십 서명** 등을 통해 솔로몬군도 중점 지원
- 호주의 對솔로몬군도 원조 프로그램은 양자원조 프로그램과 **RAMSI**, 다자지원으로 구분되며, 양자원조와 RAMSI의 지원비율은 동일
  - 양자지원은 말라리아, 인프라(도로, 물·위생시설), 교육을 중심으로, **RAMSI**는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 및 경제 거버넌스 중점 지원
    - \* 호주는 '09-'10년 총 109백만불 지원(양자는 57.1백만불, RAMSI는 51.9백만불)
  - 호주는 오세아니아 전체 지역의 평화구축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 다자기구를 통한 지원(호주 ODA 전체 규모의 30%)\*에도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로 협정체결을 통한 비지정기여(core-funding) 방식 선호

### <호주 ODA 국별 지원규모 현황>

(단위: 백만달러)

국가	2009-10	2010-11	점유율(2010-11)
파푸아뉴기니	401.2	415.0	15.6%
인도네시아	394.1	399.1	15.0%
<b>솔로몬군도</b>	<b>114.8</b>	<b>114.0</b>	<b>4.3%</b>
필리핀	112.5	105.0	3.9%
동티모르	67.2	69.0	2.5%
전체 호주 ODA규모	2,379.0	2,654.9	-

자료: AusAID (2011)



- 분야별 양자프로그램은 개별적인 지원보다는 공여국 간 협력체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
  - 솔로몬군도 정부 주도로, 공여국 간 월별, 분기별 회의 개최 및 분야별 실무그룹 운영
    - 호주를 중심으로 보건·교육 분야에서 섹터별 접근법인 SWAp (Sector-Wide Approaches) 등을 통한 분야별 실무그룹이 활발
    - 분야별 예산지원(Sectoral budget support)도 증가 추세
  - 솔로몬군도 정부와 공여국간 경제핵심 실무그룹(Core Economic Working Group) 운영
    - 2015년까지 거시경제 및 재정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합의된 지표(Matrix of Priority Government Policy Action)의 이행을 합의
- 정부기관의 제도 구축 및 빈곤층의 사회서비스 접근 개선 중점지원
  - 도서국이 처한 지역별 고립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운송인프라 지원,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적인 효율성 증진 등

<주요 공여국(기구)의 중점지원 분야(2011)>

(단위: 솔로몬군도 백만달러)

정부 각 부처	금액(SI\$, m)	주요 국가(기구)
인프라	234.9	ADB, AusAID, JICA, EU, WB
보건·의료	204.3	AusAID, JICA, EU, WB, UNICEF
교육	149.9	NZAID, AusAID, JICA, EU, UNICEF
재정 및 재무	139.9	RAMSI, ADB, NZAID
에너지	83.7	JICA, WB, RAMSI(호주)
안보 및 치안	83.3	RAMSI(호주, 뉴질랜드)
법	69.9	RAMSI(호주)
수상·내각	32.4	JICA, RAMSI(호주)
지방정부	23.6	RAMSI(호주), EU, UNDP
여성·아동	17.5	UNICEF, AusAID, RAMSI(호주)
기후변화·재해관리	8.0	UNDP
농림·축산	1.3	GEF*
산림	0	2010년 공여기구: EU, AusAID, GEF*
수산	0	2010년 공여기구: NZAID, EU, JICA
추정 합계	1,420	

자료: SIG(2011), \*Global Environment Facility 지구환경기금

< 주요 공여국(기구)간 협력 체제를 통한 지원 사례 >

원칙	활동내용	협력국가	비고
① 수원국 시스템 활용 (Ownership)	호주의 보건부문 신탁계정(HSTA) 의료서비스 지원	호주, 일본, 대만	진행
② 국가분석 작업 (Country Analytic)	태평양 빈곤 프로그램 태평양 지역 국가의 빈곤 분석	호주, ADB, WBG, 뉴질랜드	계획단계
③ 원조조정 (Alignment & harmonization)	공여국간 원조 조정회담	호주 등 타 공여국	2003. 10월
	솔로몬 정부- 공여국의 회의	호주 등 타 공여국	2003. 11월 ~
	National Peace Council Support 평화협의회 지원, 다공여국 신탁계정, 협조융자(co-financing)	호주 등 타 공여국	진행
	호주, ADB, WBG 간의 삼자회담 태평양 제도 국가에 대한 원조 조정 협의체	호주, ADB, WBG	진행
	경제핵심 실무그룹(ECWG) 2015년 광범위한 경제성장 달성 지원 거시경제 개선	솔로몬군도 정부-공여국	진행
④ 공여국 간 분야별 협력지원 (Alignment & harmonization)	교도소 건설 협조융자	호주, 뉴질랜드	뉴질랜드 지원완료
	전기발전기 수리	호주, 뉴질랜드	2003. 9월 시작
	경제 거버넌스 개선	호주 등 타 공여국	2002. 11월 ~
	EXIM 부채상환	대만, 중국	진행
	센서스 및 통계지원	호주, UNDP, UNFPA, SPC	진행
	보건 분야, SWAp	호주, WBG	진행
	운송 인프라 지원, 협조융자, 솔로몬군도 정부의 운송 계획 지원	호주, ADB, 뉴질랜드	진행

#### 4. 향후 ODA 전망

- 주요 공여국의 솔로몬군도 원조규모 및 수산업 분야 등에 대한 민간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추세
  - 2002년 내전 종결 이후, 파괴된 시설 복원 및 치안과 안정을 위한 원조가 증가되었고 동 규모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음
  - 2010년 코로선언 이후, 입어권 확보를 위해 뉴질랜드, 일본, 중국, 대만 등의 수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가 증가 추세
  
- 호주와 뉴질랜드 등 기존의 주요 공여국 이외에 최근 중국 등의 지원으로, 공여국간 원조조화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
  - 특히, 중국의 외교적·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공식적인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최근 ODA 지원을 추진하는 중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미비하여 산림 황폐화, 해양환경 파괴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대두할 전망
  - 원목수출을 위한 말레이시아 민간투자 대거 유입으로 벌목과 산림 황폐화 문제가 심각하나 정부차원의 대처능력이 약함
  - 산림 황폐화에 대비하여 원목수출에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탈피하고, 새로운 산업을 개발할 필요
  
- 따라서 솔로몬군도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구축, 인프라 확충, 인력양성이 필요하며, 원조수행 과정에서 주요 공여국의 협력강화가 더욱 강조

## II. 솔로몬군도 국가개발전략 및 분석

### 1 솔로몬군도 국가개발전략

#### 1. 국민연합 정부 정책성명(NCRA)

##### < 기본목표 >

솔로몬군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 각 분야의 근본적인 개혁과 발전 프로그램의 통합 및 기본적인 방향 제시

- 솔로몬군도는 지방과 도시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동등한 참여를 통한 정치·경제·사회 발전을 목표로 제시
  - 새로운 솔로몬군도 건립(국민의 경제적 자생력 강화), 국민의 역량 강화(국가적 안보 제공, 발전의 공평한 접근과 기회제공, 민간부분 투자기회 제공), 국민 경제 보호(토착민 경제적 안전 확보) 등이 주요 목표
  - 관광, 수산업, 농업, 광업 등 주요 산업 분야의 민간 투자유치 향상과 도로, 항구, 활주로, 통신 등 인프라 확충을 중점 추진
- 솔로몬군도 정부가 제시한 5개의 경제·사회 분야 ODA 사업
  - \* 2011. 2. 27~3. 7 동안 실시된 현지출장 결과 반영

##### 최우선적인 ODA 사업 제안

- ① 자생적인 성장기반 조성, 실질적 고용 창출을 위한 수산업 분야 인프라 지원
- ②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산림녹화사업 지원
- ③ 기초보건의료체계 강화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역의 접근성 개선 지원
- ④ 기존 인프라 시설 향상, 관리 및 유지를 위한 물자지원
- ⑤ 인적역량강화(특히, 수산업과 산림녹화부문 직업, 전문교육 지원)
- ⑥ 의료, 교육, 어업, 산림 분야 WFK(World Friends Korea) 파견

## 2. 국가개발전략 2011-2020(NDS)

### < 기본목표 >

정치·사회·경제·정신적인 발전과정에 공평한 참여를 통한 솔로몬군도 국민의 역량 강화 및 새롭게 단합된 역동적인 솔로몬군도 건설

- 솔로몬군도의 최상위 계획인 국가개발전략(NDS)은 원조기획부의 주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작성 중 (11년 8월 경 완료예정)

### < 솔로몬군도 NDS 기본 정책방향 및 세부목표 >

NDS 정책 방향	NDS 정책 세부목표
상위 목표: 국민의 더 나은 삶의 창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빈곤 감소, 사회·경제적 기회 제공</li> <li>② 영속적 평화를 위한 사회·공동체 안정 유지</li> <li>③ 국경의 안전, 법과 질서 유지</li> </ul>
목표 1: 국민에 대한 더 나은 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지원</li> <li>② 질 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말라리아, HIV, 비 전염성 및 기타 질병 감소</li> <li>③ 질 높은 교육에 대한 접근성 강화, 국가의 인력 수요에 적절하고 지속적인 대응</li> </ul>
목표 2: 국민의 생계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발전 이익의 지역 간 공정한 배분, 전 국민 삶의 수준 향상</li> <li>② 국민 생계향상을 위한 국가 경제성장률과 고용 증가</li> <li>③ 국민의 기초 사회서비스 향상과 시장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및 시설 건설</li> </ul>
NDS 이행을 위한 기반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자연재해에 대비한 국민 보호,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li> <li>② 지역과 국제사회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파트너십 형성, 상호이익과 존중에 기반한 파트너 개발</li> <li>③ 국가, 지방, 지역 간의 연계성 강화 및 관리 향상</li> </ul>

\* 본 계획은 2011년 최종적으로 완성될 예정이므로 세부사항은 추후 보완예정

## 2 종합분석

- 솔로몬군도가 모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과 정치·사회 안정의 기반을 마련하고 발전에 제약이 되는 다양한 장애요인들을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야 함
  - 특히, 솔로몬군도는 다양한 역사적, 지리적 환경에 의한 잦은 지역 간의 갈등으로 정치가 불안하고, 취약한 정부역량에 따른 제약 요건이 상존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이러한 측면에서 솔로몬군도의 국민연합 정부 정책성명(NCRA)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을 내세우고 국가개발전략(NDS)에 산업분야별 발전과 사회분야별 국민복지 향상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됨
  - 특히, 민간투자 없이는 빈곤 퇴치, 경제성장, 다양한 산업개발, 국민의 경제·사회적 기회 확대가 어렵다는 점을 잘 인식하여 국내의 민간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보임
  - 또한 주요한 수출산업인 산림산업의 과도한 개발로 인하여 산림 자원 고갈과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마련과 그 중요성을 인식
  
- 그러나 솔로몬군도 정부가 계획 중인 산업의 다양화와 법·제도 개선은 장기적인 투자와 정부의 강력한 실행의지가 요구됨
  - 또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친환경적 경제개발, 자립을 위한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습득이 필요
  - 이와 함께 제도적인 역량강화, 부패척결, 대외채무 등 거시적인 경제·사회의 안정적인 관리와 정부 및 개인의 역량강화가 필요

### Ⅲ. 한국의 對 솔로몬군도 지원현황

- 지리적인 차이로 인해 우리 정부차원의 협력기반이 부재하고, 높은 투자위험 등으로 민간투자도 미흡

\* 1978년 국교수립, 1980년 어업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재외공관 부재

- ODA 지원 실적은 1991년~2009년 약 83만 불상당에 불과(유상원조 실적은 없음)

#### < 한국의 對 솔로몬군도 지원추이 >

구분/연도	1991	1995	2001	2005	2008	계(천불)
유상	-	-	-	-	-	-
무상(KOICA)	52.83	293.9	29.92	41.45	17.75	830.51
계	52.83	293.9	29.92	41.45	17.75	830.51

\* 출처 : KOICA, EDCF통계

- 민간투자는 입어권 확보를 위한 원양분야 투자, 조림사업 등 일부분에 제한되어 진행 중

\* 국내원양 업체의 참치조업은 연간 32만 톤 수준(약 7,000억 원, 총 생산량의 53%),

\* 이견산업은 1,000만 불 규모의 조림, 벌목사업 진행 중

#### <무상원조의 사업별 내용(1991-2009)>

(단위: 천 달러)

형태	지원년도	사업내용	규모	비율(%)
물자지원	1991~2007	차량, 컴퓨터, 노트북 등 지원	416.36 (12건)	50
프로젝트	1995	솔로몬군도 국립미술관 개보수	261.69 (1건)	32
연수생초청	1992~2008	어로기술, 수산양식, 산림관리, 지역개발, 경제정책, 정보통신 기술	80.1 (15명)	10
긴급원조	2007	현금지원	70.51 (1건)	8
NGO지원	1995	아태지역 적십자 봉사요원 대회지원	1.85 (1건)	0
1991~2009			830.5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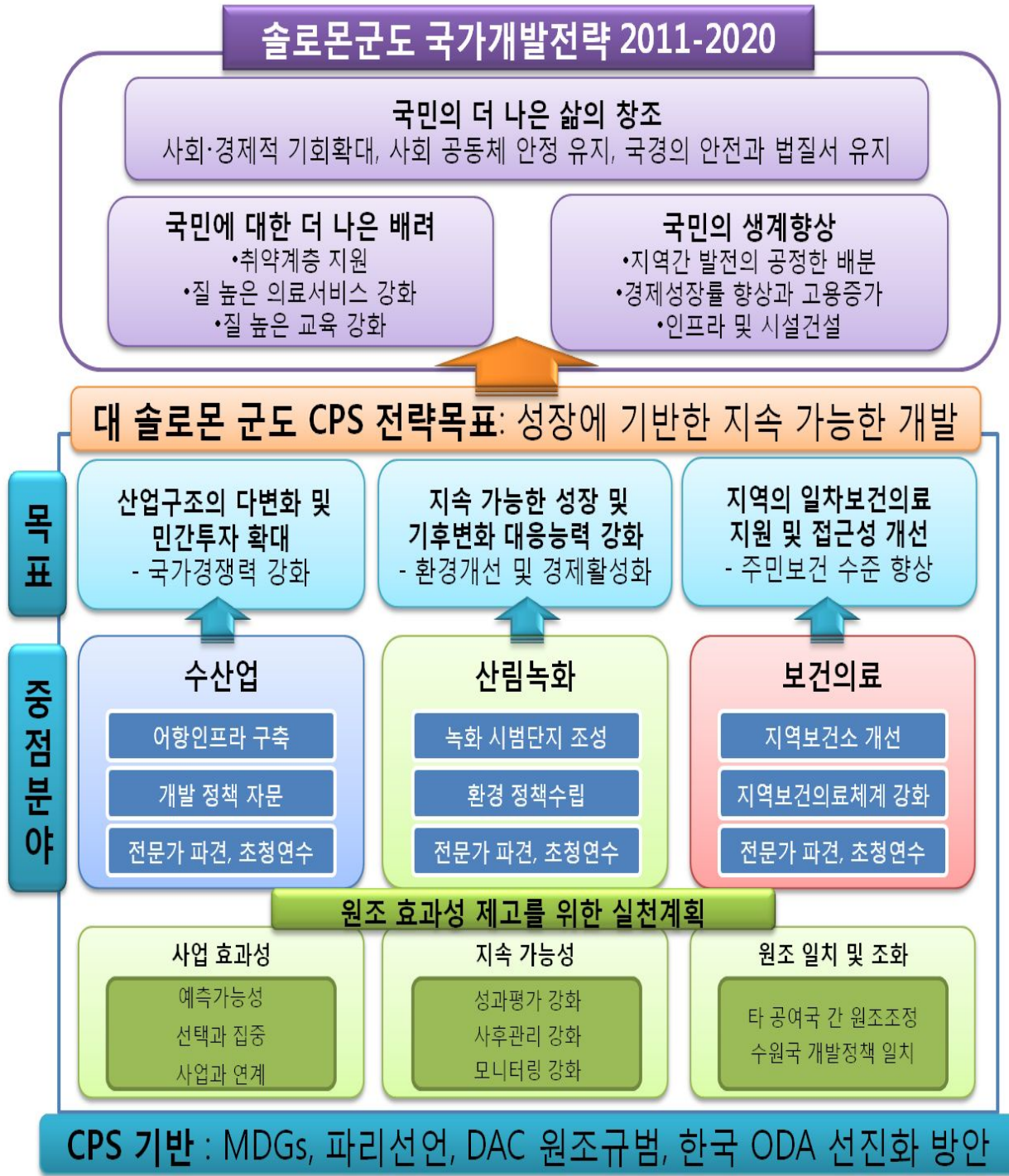
#### <한국의 대 솔로몬군도 ODA SWOT분석>

Strength	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ECD 국가 중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사례</li> <li>○ 개도국으로서의 직접적인 경험을 보유하여 수원국의 개발 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응</li> <li>○ 한국의 비교우위와 솔로몬군도의 국가개발전략 방향성 일치</li> <li>○ 정부,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 ODA에 대한 관심증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짧은 원조역사, 대 솔로몬군도에 대한 외교정책 및 ODA 목적과 방향성 결여</li> <li>○ 소액 원조, 단기성 개별사업 실시에 따른 중장기 원조효과 제고 미흡</li> <li>○ 정부 간 정례 협의채널 등 네트워크, 인프라 부재</li> <li>○ 수원국에 대한 연구 및 정보부족</li> </ul>
Opportunity	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사회의 ODA 규모에 대한 지속적 확대추세와 관심증대</li> <li>○ 풍부한 자연자원 및 광물자원 보유, 젊은 계층이 주를 이루는 인구 구조 등 향후 잠재성 보유</li> <li>○ 정치·경제·사회의 안정추세에 따른 투자 및 원조 유입 증가</li> <li>○ 오세아니아 지역 국가 중 공여국과의 정책협의체가 비교적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리적인 고립성, 경제적인 낙후성</li> <li>○ 취약 국으로서 잦은 원조 변동성 발생 가능성</li> <li>○ 법, 제도, 정부의 행정능력 등 제도적인 역량 미비</li> <li>○ 정치, 경제, 사회의 불안정성과 사회 갈등 요인 상존</li> <li>○ 공식적인 PRSP, 국가개발전략 부재, ODA관련 부처의 독립적인 역량 부족</li> </ul>



# IV. 한국의 對 솔로몬군도 협력전략

## 1 對 솔로몬군도 협력의 기본방향



□ (목표)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경제·사회발전

- 솔로몬군도가 저소득국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제성장 기반 구축에 중점
- 2011-2015년 5년간\* 지원계획 수립, **3대 분야**(수산, 산림, 보건의료)에 집중하여 원조 수행
  - \* 솔로몬군도 국가개발전략(2011-2020)을 고려하여 결정

□ (필요성) 소규모 도서국으로 종족간 분쟁으로 개발의 모멘텀이 부족

- 잦은 내전으로 분쟁 취약국인 솔로몬 군도에 대한 인도적 지원확대를 통한 국격 제고
  - **OECD DAC 회원국**으로서 국제적인 역할과 책임
    - \* 솔로몬 군도는 대한민국 단독 수교국(총 24개국) 중 하나

- 소규모 도서국에 대해 한국의 개발원조 경험이 함유된 **ODA 모범 사례 창출**

□ (중점분야) 솔로몬군도의 개발수요, 한국의 강점을 고려하여 중점 분야를 선정하고 재원의 **70% 이상을 집중지원**

- ① 수산업 ⇒ 산업구조 다변화, 민간투자 확대, 경제성장 기반 마련
- ② 산림녹화 ⇒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 기후변화 대응능력 강화
- ③ 보건의료 ⇒ 원조조화를 통한 지역의 보건의료체계 강화

□ (중점분야 선정 원칙) 솔로몬군도 정부의 국가개발전략, 한국-솔로몬 군도 정부 간 정책협약, 한국의 비교우위, 타 공여국과의 원조 조화, 기타 솔로몬군도의 개발제약 요인에 대한 고려

- (실행전략)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업 효과성, 지속가능성, 원조일치 및 조화의 가치 추구
  - (사업효과성) 유·무상 연계와 수산업·산림·보건 등 중점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원조효과성 달성
  - (지속가능성) 사업 종료 후 자립운영을 위한 주민들의 역량강화, 대체산업 개발을 통한 산업구조 다변화, 산림복원을 통한 환경보전 등 중점지원
  - (원조조화) DAC의 원조규범 및 국가발전 정책과 연계강화, 솔로몬 군도 및 공여국·공여기관의 협력과 원조분업 강화
- 지역·분야·주제별로 협력을 확대하고 개발목표를 중심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 지원

< 한국의 중점분야와 타 공여국 지원경향\* >

한국의 중점분야		해당분야 주요 공여국
수산업	인프라 (항구)	- 타 공여국 약정예정 없음
	역량강화	- NZAID - JICA의 해외청년 협력대(JOCV)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산림녹화	산림녹화 프로젝트	- 솔로몬군도 정부 (SIG : Strategic Support to Reforestation project) - 유럽연합 (EU : Plantation forestry), 2010 완료
	역량강화	- 호주 (Interim Support to Ministry of Forestry: 2009-2010) - 호주 (Forest Management Programme)
보건의료	가족계획 및 의료체계 지원	- 타 공여국 약정예정 없음
	전염성 질병 프로그램	- 호주, 일본, Global Fund의 말라리아 지원 사업, 그 외 부문별 예산 지원

\* 2011. 2. 27 - 3. 7 현지 출장 시 솔로몬군도 원조기획부(Min. of Development Planning and the Aid Coordination)가 한국 측 대표단에 제출한 내용 반영

< 2011~2015 단계적 지원모델 >

<p align="center">&lt;1단계&gt; 2011년 정책수립 및 시범사업 선정</p> <hr/> <p align="center">호니아라</p>	<p align="center">&lt;2단계&gt; 2012~14년 기초인프라 구축 및 사업추진</p> <hr/> <p align="center">과달카날 섬</p>	<p align="center">&lt;3단계&gt; 2015년~ 기존 사업 안정화, 확산 및 전문화</p> <hr/> <p align="center">그 외 주변지역</p>
<p>□ 공통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지방, 지역 사회 차원의 수준별 수요 분석</li> <li>- 초청연수 및 인력파견 검토</li> <li>- 국별 연수, 기술교육</li> <li>- 무상 원조 중심</li> </ul>	<p>□ 공통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별 중간평가</li> <li>- 초청연수 및 인력파견</li> <li>- 국별 연수, 기술교육</li> <li>- 유·무상 원조</li> </ul>	<p>□ 공통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별 종료평가 및 사후관리 정비</li> <li>- 사업 지역, 분야, 주제에 대한 확대 검토</li> <li>- 무상 원조 중심</li> </ul>
<p>□ 수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적 지원정책 수립 (Master-plan)</li> <li>- 품질검역소, 수산물 가공, 해양조사 및 연안관리 역량강화</li> </ul>	<p>□ 수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구건설 및 인프라 구축사업 확대</li> <li>- 국립수산학교 재건</li> <li>- 직업훈련원 건립</li> <li>- 수산물 유통 센터 재건</li> </ul>	<p>□ 수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관협력 연계 확대</li> <li>- 수산업 분야 자립 운영</li> <li>- 분야별 인적 역량강화</li> </ul>
<p>□ 산림녹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조사와 개발 환경 분석을 통한 종합적 지원정책 수립(Master-plan)</li> <li>- 정책 및 기술협력 지원</li> </ul>	<p>□ 산림녹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녹화 시범단지 조성</li> <li>- 산림보호 기관역량강화</li> <li>- 지역별 기술협력 사업 확대 (환경보호, 재해예방 지원)</li> </ul>	<p>□ 산림녹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사업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솔로몬군도의 자립 운영 지원</li> </ul>
<p>□ 보건의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공여국(호주)과 구체적 협력방안 마련</li> <li>- 타 공여국과의 원조 조화, 원조 일치 검토</li> <li>- 지역보건의료체계 수립 사전조사</li> </ul>	<p>□ 보건의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보건소 및 보건지소 건립 및 시범운영</li> <li>- 지역보건의료체계 강화</li> </ul>	<p>□ 보건의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보건의료체계 모델 구축 및 확대</li> </ul>

## 2 중점 협력분야

### 1. 산업구조의 다변화 및 민간투자를 통한 경제성장 ⇒ 수산업

#### ① 검토배경

- **(솔로몬군도의 개발수요)** 수산업은 제2의 산업분야로서 솔로몬군도 주민들의 주요한 식량 공급처인 동시에 민생 수단
  - 국가의 주요 재정수입원이며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산업분야
    - \* 내륙, 연안의 참치조업 입어료와 로열티로 재정수입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수산업이 전체 수출 비중의 11%를 차지하며 솔로몬군도 제2의 수출상품
  - 제1의 산업인 산림의 자원고갈로 인한 목재 수출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장기적 대체 산업**으로서 어업분야의 중요성 인식
    - \* 최근 솔로몬군도의 참치선망이 중요어장으로 부각
  - 노로(Noro)항 외 **원양어선 입항이 가능한 어항이 부재**하여 수산자원의 효과적 관리와 육상 운송인프라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
    - \* 현재 솔로몬군도의 유일한 참치가공 공장인 Noro에 위치한 Soltai가 있으며, 운영과 소유권의 잦은 변경으로 불안정함
- **(한국의 비교우위)** 어항단지 개발 경험과 수산업 관리 기술력 보유
  - 단순한 건설차원을 넘어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 해양교통, 물류운송 등을 포함하는 **다기능어항 사업**에 기술력과 경험 보유
  - EEZ 어업관리, 자율관리어업, 해외 신어장 개발, 불법어업 단속 등의 수산업 정책의 적용을 통한 **성공경험 보유**
  - 동 지역에서 한국의 원양어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민간투자를 통해 복합수산단지를 구축**하여 수산개발 기술전수 효과를 극대화

## ② 목표 및 한국의 기여

- ① 수산분야의 기초 인프라 구축을 통한 민간투자유치와 자립적인 경제성장 기반조성
- ② 수산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를 통한 해양 수산자원 개발

### ○ 솔로몬군도의 계획

- 지속가능한 수산업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양식 개발을 통한 국민 소득수준 향상
  - \* 2011-2013년에 과달카날섬(Doma)의 참치 가공공장, 말라이타섬(Suafa Bay)과 과달카날섬(Tenaru)의 로인 공장 등 3개의 수산 프로젝트 진행
- 지역 어민의 수산시장 접근성 개선, 해양자원의 건강 개선, 수산법의 효율적인 집행, 수산발전을 위한 지식과 기술력 향상 등

### ○ 한국의 기여

- 2014년까지 유상원조를 통해 과달카날섬에 어항을 건설하고 복합 수산단지를 구축하기 위한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여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 솔로몬군도 정부의 상황변동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진
- 과다카날 섬에 복합수산단지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무상으로 지원
- 국립수산학교 재건, 수산물가공 직업훈련원 설립지원 및 정부의 행정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③ 추진계획

### (1) 기본방향

- (정책협력) 유·무상 연계를 통한 공동사업으로서 수산단지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인프라 개선)** 어항 건설을 통해 수산업 기초 인프라 건설
- **(역량강화)** 연수사업 콘텐츠와 연계하여 **중장기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술교육 및 전문가 파견

## **(2) 실행계획**

- **(관련기관)** 관계부처와 원조기관이 합동으로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
  - 관계부처 :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 시행기관 : KOICA, EDCF
  - 협력기관 : 수산분야 민간기업
- **(인프라·제도 지원)** 어항 건립과 수산물 가공·유통단지 신규 조성, 국립수산학교 재건 및 직업훈련원 추가 설립
- **(역량강화)** 정부의 수산분야 관리 및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숙련 노동력과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수산업 노동 생산성 향상에 기여
  - 국립수산학교의 직업훈련원 역량강화와 수산물 가공 및 위해요소 관리, 해양조사 및 연안관리, 품질검역소 역량강화
  - 솔로몬군도 고등교육 대학(College of Higher Education: SICHE)과 협력을 통한 수산업 발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원조조화)** 수산업 분야의 주요 공여국인 뉴질랜드\*와 정책 및 지원 분야에 대해 협의
  - \* 2010년 4월 솔로몬군도 정부는 뉴질랜드(NZAID)와 메켄스트롱(MEKEM STRONG Solomon Islands Fisheries: MSSIF) 협약을 맺고 수산자원의 장기적인 발전과 관리를 목표로 협력체계 구축
  - 뉴질랜드(NZAID)와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여국간 원조조정 회의 및 경제핵심실무그룹(ECWG)에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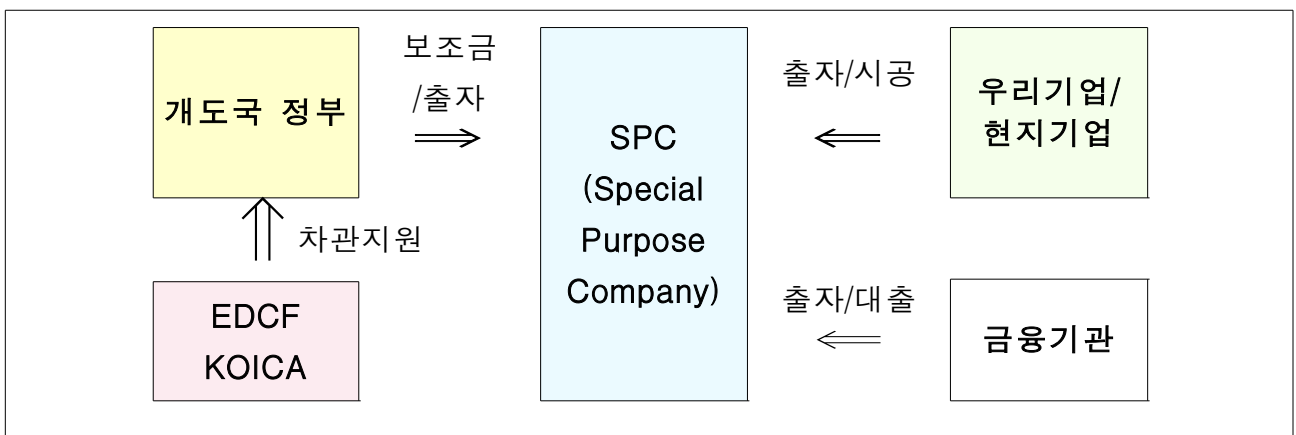
○ 어항개발 사업 세부 내용

사업개요	수산업 발전을 위한 <b>항구 건설</b>
사업의미	① 수산업 <b>인프라</b> 구축을 통한 <b>경제성장 기반 마련</b> ② <b>자원의 공동개발</b> 및 <b>공공·민간파트너십</b> 의 시범사례
대상지역	과달카날 섬 (잠정: 도마지역)
사업기간	2011년 ~ 2014년
협력기관 및 역할	① 농림수산식품부 : 타당성 조사 ② 한국국제협력단(KOICA) : 항구설계 및 복합수산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③ 한국수출입은행(EDCF) : 항구 시공 및 감리 ④ 민간기업 : 참치가공 공장 및 복합수산단지 건립
민·관협력 (PPP) 사업내용	① 복합수산단지 조성을 위한 <b>민간기업</b> 간의 <b>솔로몬군도 투자 프로젝트단</b> 구성 ② 한국원양산업협회 내 <b>해외수산투자협의회</b> 11개 회원사 공동참여 ③ 참치가공 공장, 어분가공, 냉동창고, 어망수리소, 선박수리소, 유통저장 시설 등 약 <b>1억 달러 이상의 투자 계획수립</b>
기대효과	① 약 <b>3,000개의 일자리 창출</b> , 국민 소득증대 기여 ② 수산분야 역량강화를 통한 <b>해양수산자원 개발</b> ③ 수산업 발전을 통한 <b>산업구조 다변화</b> 에 기여 ④ <b>한국기업 진출과 수산 자원 확보의 거점</b> 으로 활용

\* 솔로몬군도의 유상지원 요청 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중점분야 재조정 등 지원전략을 수정

○ 개도국 정부가 사업시행법인(SPC)에 제공하는 국고 보조금, 출자금 등을 **EDCF** 자금으로 지원

<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사업 추진 모형 >



자료 : 수출입은행 기본계획안(2011~2014)



## 2.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과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 산림녹화

### ① 검토배경

- (솔로몬군도의 개발수요) 산림자원 고갈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타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강화할 필요
  - 원목수출은 솔로몬군도의 제 1의 산업분야로서 전체 수출수입의 70%를 차지
  - 1960년대 이후 정부의 예산부족으로 인한 과도한 벌목으로 적정 생산량을 초과하여 **산림 황폐화 현상이 가속화**
    - \* 향후 조림을 하지 않는 벌목회사에 대해 벌채권을 박탈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나 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엄격하게 단속하지 못하는 실정
  - **산림보호 조치와 자연자원 개발에 대한 관리제도가 미비하고** 정부의 예산 및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2011년 타 공여국의 원조가 전무**
    - \* 기존 공여국의 경우 지속가능한 산림개발과 산림운동 제도역량 부문에 지원 하였으나 2010년 모든 지원이 완료됨
  - 2015년 이후 천연림 고갈로 인한 목재 생산과 수출이 급감할 전망
- 한국의 비교우위
  - 우리의 **산림녹화 경험과 개도국 조림 프로젝트 사업 실시 등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 보유**
    - \* 1998-2000년 미얀마 산림녹화 시범단지 조성사업 추진 등
  -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 안정적 산림자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가와 조림사업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 \* 산림청의 「해외산림자원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2008-2017년까지 25만 ha의 해외조림 추진 및 해외조림사업 관련 기업 자금 지원
  - 1980년대 초 진출한 우리 민간기업이 솔로몬군도 뉴조지아 섬에 조림지 8,000만평을 보유하는 등 솔로몬군도에서 풍부한 현지경험 보유

## ② 목표 및 한국의 기여

- ① 산림녹화를 통한 환경의 복원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개발 구축
- ② 산림보호 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 전문 인력 양성

### ○ 솔로몬군도의 계획

-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림자원의 보호와 생태환경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근거한 산림자원 개발을 추진
- 지역 주민의 산림녹화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민간차원에서 상업조림과 제재목 가공산업 개발을 추진

### ○ 한국의 기여

- 2012년까지 과달카날 섬에 100ha 규모의 산림녹화 시범 단지를 조성하고 2015년까지 점진적으로 녹화지대를 확대
- 산림녹화 및 자원관리를 위한 기관 역량강화, 산림환경보전 정책을 자문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산림녹화 마스터플랜 수립지원

## ③ 추진계획

### (1) 기본방향

- **(정책협력)** 지속가능한 환경보호와 개발 차원에서 산림녹화 정책 수립과 정부의 산림보호 감시 및 관리체제 지원
- **(인프라 개선)** 산림녹화 시범단지 조성 및 시설 지원과 산림보호 유지관리를 위한 기관 역량강화 지원
- **(역량강화)** 산림보호·관리 역량강화 등 시설운영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및 인력을 파견(WFK)

## (2) 실행계획

- **(관련기관)** 관계부처와 원조기관, 민간 기업 등이 연계하여 추진
  - 관계부처 :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등
  - 시행기관 : KOICA
  - 협력기관 : 산림분야 민간기업
  
- **(인프라·제도 지원)** 산림녹화 시범단지 조성, 산림자원의 관리 및 감시를 위한 산림부 역량강화, 기후변화, 신재생 에너지 등 관련 분야와 연계한 통합 프로그램을 발굴할 예정
  - 산림녹화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조림용 자재 운반, 비료주기 등 관리 작업을 위한 작업로, 임도망 구축, 사업 시행과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효율적인 산림감시 업무 수행을 위한 장비 구축 지원
  
- **(역량강화)** 산림개발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산림 관계자 역량 강화와 재해예방 및 기후변화 대응능력 강화
  - 산림녹화 사업을 위한 현지 노동인력은 충분하나 전문기술자가 부족하고 정부의 산림녹화 경험이 부족한 점을 고려
  - 산림자원의 관리 및 개발 전문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의 산림 녹화기술 및 황폐지역 복원기술 전문가 파견
  
- **(원조조화)** 과거 공여기관\*이 지원한 산림분야 사업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습득하고, 현재 솔로몬군도에서 조림사업을 하는 기업\*\*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
  - \* 유럽공동체(EC), 유럽투자은행(EIB)등의 지속가능한 산림과 보존 프로그램 (Sustainable forestry and Conservation Programme)지원 경험
  - \*\* 이건산업, Kolombangara Forest Products Ltd (KFPL) 등

### 3. 원조조화를 통한 지역보건의료체계 강화 ⇒ 보건의료 분야

#### ① 검토배경

- **(솔로몬군도의 개발수요) 국민의 기초 보건의료의 질적 개선과 접근성 개선을 보건 분야의 개발과제로 추진**
  - 지역별로 보건소(Health Clinic)를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기초 의료서비스가 취약
  - 호니아라에 위치한 국립병원(National Referral Hospital)은 의료시설과 재원 부족으로 국가 제1의 병원 수준의 질적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함
  - 다수의 섬에 분산된 인구분포와 교통 인프라의 부족으로 주민의 **80% 이상**이 기초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
  - MDG 4(아동사망률)와 MDG 5(모성 보건 증진)의 경우, 진전이 있거나, 이미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이 여전히 많은 상황
    - \* 1990년 대비 2010년 모성사망률 74.5% 감소
    - \* (영유아사망률) 30명/1000명('10), (모성사망률) 137명/100,000명('11)
- **(한국의 비교우위) 지역보건 역량강화 관련 성공경험과 기술력, 전문가 및 선진 의료기술 보유**
  - 농어촌 보건소 건립 및 개선, 의료 기자재 지원 등 기초 보건의료 사업을 통한 지역보건수준 향상 경험 보유
  - 모자보건 보편화를 위한 안전한 임신과 출산 프로그램 보급, 산전 관리 시스템 구축 경험 등 전문성 보유
  - 결핵 및 예방접종 등 질병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체제와 전문성 보유

## ② 목표 및 한국의 기여

원조조화를 통하여 지역의 보건의료체계 강화하고 기초의료서비스 및 의료시설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국민의 보건 수준 향상

### ○ 솔로몬군도의 계획

- 지역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미니병원\* 설립**  
\* 지방병원(Area Health Center)을 주립병원(Provincial Hospital) 수준으로 향상
- 2015년까지 공공보건 수준을 1~2% 향상하고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통한 기초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현 **국립병원(NRH)의 위치 이동 및 의료서비스 운용체계 향상 및 전문 인력양성**

### ○ 한국의 기여

- 솔로몬군도 어항개발사업 및 수산단지 건립지역의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지역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립**
- 지역 보건의료 프로그램 관리, 모자보건 증진, 질병관리 정책수립 및 운영 등에 대한 연수를 통한 **인적역량강화와 의료인력 파견 지원**

## ③ 추진계획

### (1) 기본방향

- **(정책협력)** 타 공여국과 협력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 체제 강화
- **(인프라 개선)** 어항개발사업에 위치한 지역 보건소를 중심으로 시설의 재건 및 개보수, 기자재 지원 및 유지관리
- **(역량강화)** 의료 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모자보건 교육 등을 위한 의료인력과 봉사단 파견

## (2) 실행계획

- **(관련기관)** 관계부처와 국내 보건 관련 기관간 협력을 통해 추진
  - 관계부처 :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 시행기관 : KOICA, KOFIH
  - 협력기관 : 국내 의료기관
  
- **(인프라·제도 지원)** 지역보건소 및 보건지소 개보수와 지역의 지역보건의료체계 구축 지원
  - 타 공여국의 지역단위 보건의료지원과 연계하여 기초 보건의료 제공에 필요한 의료 장비 지원
  
- **(역량강화)** 국내 초청연수를 통하여 지역 보건소의 의료인력 양성 및 시설물 운영관리자의 역량강화
  - 한국의 비교우위가 있는 지역 보건의료 프로그램 관리, 질병관리 정책수립 및 운영, 병원운영 및 관리, 모자보건 증진 교육 등
  
- **(원조조화)** 보건 분야에 대한 호주, 대만, 일본, EU, WB 등 국제 사회의 지원 규모가 증가추세로 이들과의 협력을 통한 통합지원
  - 호주를 중심으로 한 분야별 실무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솔로몬 군도 보건부의 HSSP(Health Sector Support Program)에 참여
  - SWAp(Sector-Wide Approaches)형 사업과, 분야별 예산지원(Sectoral budget support)을 통한 프로그램형 사업 추진
  
- **(효과성 제고)** 국민의 보건 의식수준 향상을 위하여 국민의 보건서비스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국민 계몽운동 실시
  - 라디오방송을 통한 지역의 보건 계몽운동 참여 확대

### 3 연수 및 기술협력

#### ① 초청연수

- (지원방향) 중·장기 연수를 중심으로 '12년 6명에서 '13년 15명 등으로 연수 인원을 점차 확대
- (중점분야) 초기 수산과 산림분야를 중심으로 한 정책과정 중심의 연수에서 기술과정 연수로 심화
  - 수산분야는 수산업 기초관리 능력 배양, 수산부 관계자 장학프로그램, 수산물 가공 및 위해요소 관리, 품질검역, 해양조사 및 연안관리 연수
  - 산림분야는 산림녹화 및 기후변화 대응능력 배양, 재해예방 및 환경관리 연수 등을 시행
  - 보건분야는 지역 보건의료 프로그램 관리, 질병관리 정책수립 및 운영, 병원운영 및 관리, 모자보건 증진 연수 등을 시행

< 분야별 지원 비중 >

수산업	산림녹화	보건의료	기타
52%	22%	15%	11%

- (효과성 제고방안) 중점분야별 프로그램과 연계한 주제별·분야별 연수를 통해 사업의 일관성 및 효과성 극대화

< 2012년도 솔로몬군도 연수사업 추진계획 >

과정 명	과정 수	연수인원
광물자원 탐사 및 GIS 원격탐사	1	1
농촌지역 지도자 양성	1	1
모자보건 증진	1	1
무역진흥	1	1
수자원 인프라 개발 및 관리	1	1
양성평등 정책	1	1
합계	6	6

자료: KOICA

## ②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WFK)

- 수산, 산림녹화, 보건의료 등 중점분야를 중장기 자문단 파견사업과 **WFK(World Friends Korea)**를 연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에 기여
  - 현지 노동인력에 기술전수를 통한 숙련 및 전문 노동인력 양성
  - 산업 부분별 장비, 시설의 운영 능력 향상을 통한 제도 인프라 역량강화
  - 중점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관련 연구기관의 전문가를 파견하고 타 공여국 원조기관 및 관련 연구소와의 협력을 강화
- 솔로몬군도 분야별 수요와 국내 연구기관 및 봉사단 인력 현황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 < 2012-2015 솔로몬군도 전문가·봉사단 파견 계획 >

구분	수산업	산림녹화	보건의료
전문가	4명	4명	4명
봉사단	-	12명	12명

## ③ 개발조사 및 정책자문

- 수산업 개발, 산림녹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기타 역량강화 사업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개발조사 활용, 중복방지 등을 위해 국내 원조기관 간 협의강화
- EDCF 사업과의 연계,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개발조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타 공여국과의 공동조사 기능 강화
- 초청연수 및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다양한 개발조사 후보사업을 발굴하고 개발조사에 수원기관이 참여하여 수원기관의 역량강화 추진



## < 2011-2015 중점분야별 한국의 기여사항(안) >

(단위: 백만 달러)

중점 분야	솔로몬군도 개발목표 (NCRA, NDS 등)	주요 프로젝트*	예상 기여사항
<b>수산업</b>	<p><b>&lt;2011-2013 우선순위&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업 투자를 통한 경제 성장</li> <li>- 지속가능한 양식개발로 국민의 생계 향상</li> <li>- 어민의 시장 접근성 개선</li> <li>- 수산법의 효율적인 집행</li> <li>- 수산업 발전을 위한 지식과 기술력 증진</li> </ul>	<p><b>&lt;후보사업&gt;</b>  <b>EDCF 사업</b>                      - 항구건설</p> <p><b>KOICA 사업</b>                      - 어항개발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 국립수산물학교 재건                      - 직업훈련원 건립                      - 수산물 유통 센터 재건</p> <p><b>*초청연수 프로그램*</b>                      - 수산분야 scholarship                      - 수산물 가공 및 위해요소 관리                      - 품질검역소                      - 해양조사 및 연안관리</p>	<p><b>&lt;인프라&gt;</b>                      - 항구건설 : 부두 160m 규모                      - 국립수산물학교 : 700㎡규모, (약 50명 규모)                      - 직업훈련원: 3000㎡규모, (약 100명 규모)                      각종 기자재 공급</p> <p><b>&lt;제도개선&gt;</b>                      - 어항개발사업 마스터플랜 수립</p> <p><b>&lt;역량강화&gt;</b>                      - 학위 과정 9명 : 3명씩 (12'~14')                      - 초청 연수 40명 : 10명씩 (12'~15')                      - 전문가파견 4명 : 1명씩 (12'~15')</p>
<b>산림 녹화</b>	<p><b>지속가능한 산림 채취, 산림 개발, 산림녹화 증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별채권 발급의 중단과 비운영중인 별채권 검토</li> <li>- 현 별목 세금제도 검토</li> <li>- 산림연구기관 지원</li> <li>- 지역공동체에 자원의 상업적인 사용관리와 기술의 전달을 위한 기술과 산림 서비스 가능</li> <li>- 제약 상품과 같은 비원목 산림 상품 지원</li> <li>- 국가 전 지역의 산림녹화 증진</li> </ul>	<p><b>&lt;후보사업&gt;</b>                      - 산림녹화 마스터플랜 수립                      - 산림녹화 시범단지 조성                      - 산림부 기관 역량강화</p> <p><b>*초청연수 프로그램*</b>                      - 산림녹화 정책 및 환경관리                      - 재해예방 및 기후변화 대응능력</p>	<p><b>&lt;인프라&gt;</b>                      - 산림녹화 시범단지 : 100ha 녹화사업 시작으로 500ha까지 확대,                      10만 그루 나무 심기(12'~14')</p> <p><b>&lt;제도개선&gt;</b>                      - 산림녹화 마스터플랜 수립                      - 산림보호정책 및 관리제도 구축                      - 재해예방 및 기후변화 대응책 수립</p> <p><b>&lt;역량강화&gt;</b>                      - 학위 과정 9명 : 3명씩 (12'~14')                      - 초청 연수 40명 : 10명씩 (12'~15')                      - 전문가파견 4명 : 1명씩 (12'~15')                      - 봉사단원파견 12명 : 3명씩 (12'~15')</p>
<b>보건 의료</b>	<p><b>&lt;2011-2015 전략&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까지 공공보건 상황 증진 (1~2%)</li> <li>-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통한 기초 보건서비스 확대</li> <li>- 파트너십 확대(농업, 교육, 노동, 교통, 인프라 등)</li> <li>- 질병관리 개선을 통한 보건 증진</li> </ul>	<p><b>&lt;후보사업&gt;</b>                      - 지역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립</p> <p><b>*초청연수 프로그램*</b>                      - 지역 보건의료 프로그램 관리                      - 질병관리 정책수립 및 운영                      - 병원운영 및 관리                      - 모자보건 증진</p>	<p><b>&lt;인프라&gt;</b>                      - 지역 보건소 설립 : 600㎡규모 (단층, 20병상)</p> <p><b>&lt;역량강화&gt;</b>                      - 초청 연수 40명 : 10명씩 (12'~15')                      - 전문가파견 4명 : 1명씩 (12'~15')                      - 봉사단원파견 12명 : 3명씩 (12'~15')</p>

\* 주요 프로젝트 후보사업은 '11-'15년 분야별 주요 집행예정 사업

## V. 이행전략

### 1 자원배분 및 조직

- (자원배분) 양자원조 중 최소 **70%** 이상을 중점프로그램에 지원
  - 다만, 솔로몬군도 정부의 긴급요청 및 사업지연 등 상황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중간 이행점검 시(13년) 조정
- (조직) **2011년** 하반기 설치될 현지 사무소의 역량강화를 통해 현장 중심의 **ODA** 추진, 타 공여국과의 원조조화를 위한 협력확대
  - PNG 재외공관, 현지 KOICA사무소, 현지기업인 등으로 구성

#### < 프로그램별 자원배분 비중 >

구분		무상 지원	유상 승인	합계 평균
중점프로그램	수산업	52%	100%	76%
	산림녹화	22%	0%	11%
	보건의료	15%	0%	7.5%
기타프로그램	제도개선 및 인력강화	11%	0%	5.5%
계		100%	100%	100%

\* 상기 배분비율은 예산협의 및 사업기획 단계에서 변경 가능

## 2 원조효과성 제고방안

### 1. 연계강화 방안

- (사업간 연계와 시너지효과) 솔로몬군도 정부와의 정책협의, 사업 발굴 단계에서 관련 사업간 연계가능성을 검토
  -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연합하여 솔로몬군도의 원조 기획부 및 수원기관과 협의를 토대로 지원계획 수립
  - 유·무상 사업간 연계, 개발조사·프로젝트·기술협력 간 연계 등 사업간 연계강화를 통해 시너지효과 창출
- (사후관리 강화)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종료된 사업에 대해 솔로몬군도 정부와 공동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
  - 사후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일정기간 후에 수원기관이 자립하여 지원을 종료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 확충에 중점
    - 운용·관리 인력에 대한 훈련 시 자체적인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역량 강화를 통한 자립에 중점을 두고 수원기관의 예산확보에 비례하여 장비·물품 등을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지원규모 축소
  - 사업의 성격 및 리스크를 감안하여 하자보수 기간(통상 1년)을 적절히 연장하고 하자보수 업체에 대한 요건과 관리감독을 강화

### 2. PPP 사업 확대

- '12년까지 민간협력 시범사업을 발굴·시행하고 성과를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 수산분야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진하고 EDCF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추진

- 솔로몬군도 정부, 주요 공여국,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고, 비구속화 비율 제고 및 솔로몬군도 시스템 활용 등 원조일치를 위해 노력
- 솔로몬군도 정부와 협력방안
  - 국가개발전략의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지원 분야를 선택하여 자원을 배분하고 공여국이 조성한 기금이 사용되는 지출 부분은 공여국과 솔로몬군도 정부가 함께 통제
- **World Bank, WHO, UNICEF** 등 다자기구와 함께 공동사업 추진
  - 환경(산림녹화) 및 보건의료 사업 이행을 위해 해당지역 협의체인 **SPC**(Secretariat of the Pacific Community)에 적극 참여
  - 수산업 지원전략 수립 방안으로 **FFA**(Forum Fisheries Agency)에 비 지정기여를 통한 공동원조 협력
- 주요 공여국인 호주와의 협력
  - 호주(AusAID)는 보건부분의 주요 공여국으로 솔로몬군도 지역과 수도 전체 의료 물품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향후 KOICA의 지역 보건역량강화 사업 이행시에 협력 도모 필요
- 태평양 도서국 원조조화 협의체(Cairns Compact) 및 대화상대국회의(Post Dialogue Forum)를 통한 기여
  - \* '11.3.29일 열린 제1차 한-호주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호주 측 제안으로 남태평양 지역협의체(SPC, SREP, FFA)에 대한 자금 지원

## VI.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성과관리 방안

- (통합 모니터링과 위험관리) 사업의 진도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분야별 리스크 매트릭스 활용하여 내·외부의 위험요인에 대처
  - 현행 통계시스템을 바탕으로 ODA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별 진도, 예산집행, 현지여건 변화 등 추진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
  - '현지사무소-솔로몬군도 정부'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회의 정례화, 양자대화, 공여국회의 참석을 통해 위험요인 발생 여부 적시 확인
- 실적평가, 사후평가, 주제별평가 실시

평가종류	평가목적	평가지기	평가자
실적평가	계획된 사업 추진여부 종합평가	사업 종료 전후	시행기관 자체적
사후평가	사업의 효과 및 영향력을 정량적 평가	사업 종료 후 2-3년 경과 후	외부평가
주제별평가	젠더, 인권, 환경 등 범 분야 평가	실적, 사후 평가 시	필요시 개별적

- 국별 협력 전략 평가
  - (평가지기) '13년에 중간평가 실시, '15년에 종료평가 실시
  - (평가방식) 중점분야별 '결과-지표-출발점-목표-검증수단'을 반영한 '결과 평가 틀'을 수립, 목표 대비 달성현황 정량적 측정
  - (평가내용) 사업평가, 정책평가, 주제별 평가 실시
  - (환류계획) 평가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실태 점검

## VII. 솔로몬군도 ODA관련 고려사항 및 향후 전망

### 1. 솔로몬군도 ODA관련 고려사항

#### 솔로몬군도의 전통과 문화 존중 필요

- 솔로몬군도는 다양한 인종과 1000여개의 섬으로 구성된 국가로 지역과 부족 간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신중한 사업추진 필요
- 부족 중심의 사회 구조로 원조의 지역적 형평성을 반영하여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부족과의 좋은 관계 유지가 사업의 성공을 좌우

#### 기존 공여국과의 협력강화

- 역내 국가이며 주요 공여국인 호주, 뉴질랜드의 영향력이 크고 이들 국가의 자문관이 솔로몬군도 정부에 파견되어 있어, 이들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

### 2. 향후 전망

#### 최근 솔로몬군도의 정치체제가 안정되고 있어, 현 추세가 유지될 경우 풍부한 자원개발을 통한 경제적 발전의 잠재성이 큼

- 수산업의 기반 인프라 건설이 완료될 경우, 대체 산업으로서 해외 투자 유치, 고용 창출 및 산업구조 다변화 등에 크게 기여할 전망
- 산림자원 복원 및 지속가능한 개발체계가 확립될 경우 성장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지역 중심 보건지소 건립으로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할 전망

[참고1] 솔로몬군도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GDP (% US\$ bn)	0.48	0.49	0.6	0.6	0.7
1인당 GDP (US\$)	945	1,184	1,274	1,279	1,340
GDP(% change y-y)	6.9	10.7	7.3	-2.2	3.4
소비자물가지수 (% change y-y)	9.9	10.9	18.1	1.8	6.5
인구(m)	0.48	0.50	0.52	0.54	0.56
무역수지(US\$ m)	-63	-75	-69	-62	-178
수출(US\$ m, % change y-y)	113 (10)	160 (41.6)	193 (21.1)	157 (-18.8)	145 (-7.8)
수입(US\$ m, % change y-y )	176 (22)	235 (33.7)	262 (11.7)	219 (-16.5)	323 (47.4)
경상수지(US\$ m)	-29.4	-67.3	-120	-74.2	-130.7
경상수지(% , GDP)	-6.4	-12.4	-18.7	-11.1	-18.2
외국인 직접투자 (US\$ m)	6	11	13	10	16
총외채(US\$ m)	152	173	164	145	136
총외채/GDP(%)	45.4	32.1	25.4	22.2	19.4
총 외환보유고 (US\$ m)	104.4	120.6	90.1	88.3	63.2
환율(av S\$:US\$)	7.61	7.65	7.75	8.06	8.05

자료: EAP(2010), EIU(2010), IMF(2009)

\*추정치

[참고2] 솔로몬군도 주요 사회개발 지표

지 표	수치 (기준연도)	지 표	수치 (기준연도)
평균수명	67세(09)	농경지 비율	3%(08)
성인 출산율 (1,000명 중)	30명(09)	산림 비율	79.1%(10)
청소년 출산율(1,000명 중)	39명(09)	도시의 위생시설 접근율	98%(08)
5세 미만 유아사망율(1,000명 중)	36명(09)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0.4 메트릭톤(07)
초등교육 제공 비율	107%(07)	개업 준비기간	57일(09)
초·중등교육 여/남 비율	97%(07)	이동통신 가입자(100명 중)	6명(09)
피임 보급율	27%(07)	인터넷 사용자(100명 중)	1.9명(09)
홍역예방 비율	60%(09)	결핵 발병자 수 (100,000명중)	115명(09)

자료 :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 Base (2011)

솔로몬군도 기본사회 발전 지표 비교(2008)

지표	솔로몬군도	동아시아 태평양	하위중소득국
인구(백만)	0.51	1,931	3,702
1인당 GNI(US\$)	690	2,631	2,078
인구증가율(%)	2.5	0.8	1.2
노동력증가율(%)	2.8	1.2	1.6
도시인구율(%)	17	44	41
출생 시 평균수명(년)	66	72	68
15세 이상 문해율(%)	76.7*	93	83
영아사망(1,000명 당)	30	22	46

자료 : EIU(2010), \*솔로몬군도의 문해율 수치는 1999년 자료 인용(Matthew Clarke, 2007)